



8

1987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7. 8호

(루계 478)



◆◆◆◆◆◆◆◆◆◆

## 차 례

◆◆◆◆◆◆◆◆◆◆

제 3 차 7 개년계획 수행에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훌륭하게 창작하자 ...	4
발전소건설자의 노래 .....	5
딸에게서 온 편지 .....	6
이 땅우의 모든 기쁨이 .....	28
삶의 환희 .....	28
조국해방과 함께 .....	29
그이는 주체 .....	30
무포의 달밤 .....	30
무두봉의 우등불 .....	31
그대에게 묻노라 .....	32
무지개는 천만리에 .....	33
해쫂는 동쪽에 .....	36
벗이 오는 날에 .....	37
나도 오늘은 이 길을 간다 .....	38
내가 사는 땅 .....	39
삼지연못가에서 .....	40
내 어머니 되여 알았습니다 .....	41
녀기사의 고백 .....	42
대학으로 떠나며(외 1 편) .....	51
나는 교단에서 집을 짓는다 .....	52

요구 .....	53
쌍둥이 처녀 돌격대원을 두고 .....	60
좋다, 나는 타입공 .....	61
탄부의 길 .....	61
나의 연(외 1 편) .....	62
전초선의 밤(외 1 편) .....	63
나의 당원증번호 외울 때마다 .....	64
나는 알았어도 .....	64
내가 다녀온 고장 .....	65
공을 세운 내 조국의 아들이여 .....	67
지평이에 대한 생각 .....	68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속담 .....	69
도마봉의 운림 못 .....	70
새세대들의 나이 .....	72
내 노래의 작은 소반엔(외 1 편) .....	73
극도의 절망속에서 허우적이는 남조선의 부르쥬아반동시문학 .....	74

## 제3차7개년계획 수행에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훌륭하게 창작하자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제3차7개년 계획 수행에 들어섰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 발전 제3차7개년계획에 대한 법령과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양양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우리앞에는 양양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조직 동원하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새 전망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벽찬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지금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우리 문학은 그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한층 높여야 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더욱 심화발전되고 인민들의 사상미학적요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으며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이 고조되고있는 현실은 문학앞에 창작적양양을 세차게 일으킬것을 제기하고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이 펼쳐지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현실의 다양성은 여러 주제의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제3차7개년계획 수행에 이바지할 작품을 훌륭히 창작하기 위해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있게 그리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려야 한다.

작가들은 제3차7개년계획 수행으로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의 위대성과 숭고한 품모를 깊이있게 그려내야 한다.

위대한 사상가, 령도자로서의 숭고한 품모를 깊이있게 그려내야만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할수 있다.

또한 작가들앞에는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이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 진두에서 새 전망계획 수행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결한 인간품모를 감명깊게 그리는데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제3차7개년계획 수행에 이바지할 작품을 훌륭히 창작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새 전망계획이 수행되는 벽찬 현실에 뛰어들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생활을 심장으로 체험하는것이다.

현실속의 인간들과 함께 살며 일하면서 생활을 직접 체험하게 될 때라야만 작가들은 새 전망계획수행에 펼쳐나선 그들의 전형적성격의 본질을 옹게 형상화할수 있다. 진실로 숨은 영웅들의 사상정신세계를 작가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 때라야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을 창작할수 있는것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현실속에 들어가도 높은 정치식견과 당적안목을 가지고 생활을 대하여야 당의 경제정책이 관철되고있는 현실을 옳바로 볼수 있으며 가치있는 종자를 찾게 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제3차7개년계획 수행에 이바지할 작품을 훌륭히 창작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결정지시를 어김없이 관철하며 경제과업수행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우고있는 사람들의 투쟁을 훌륭히 형상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이 요구하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애써 일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속에 전형적인 생활이 있고 우리 사회의 본질이 있다. 바로 이런 생활을 형상화하는데 낮을 돌리고 거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류의해야 할 문제는 인간관계와 생산문제의 호상관계를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잘 풀어나가는것이다. 생산기술적문제를 내세우고 인간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미를 높은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보여주지 못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생산활동을 묘사하는 경우에도 로동과정에서 보게 되는 근로자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펼쳐보이는데 모를 박고 형상을 집중하면서 심오한 인간문제를 밝혀내야 한다.

현실에서 보게 되는 혁명전사들의 성격형상의 기초에는 어떤 경우에도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 놓여있다. 그것은 주체의 혁명관이 선 80년대 인간들의 전형적성격의 핵이다.

작가들은 이러한 성격의 핵을 깊이있게 그려내야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할수 있다.

제3차7개년계획 수행에 이바지할 작품을 훌륭히 창작하기 위해서는 창작에서 독창성과 개성적 특성을 옹계 구현하는것이다.

당과 수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벌리고있는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불굴의 투쟁은 끝없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이러한 벽찬 생활로 끝없이 충만된 현실생활을 한틀에 엮어매면서 도식화하거나 류형화할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 작가들이 애써 노력할것은 특색있는 생활과 구성, 독창적인 수법과 기교, 새로운 성격적미를 적극 탐구하는것이다.

본래의 의미에서 창작은 비반복적이며 독창적인것이다. 때문에 창작된 작품은 특색있고 독창적이어야 한다. 창작가들이 남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하는것은 량심없고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우리는 기성의 사고방식과 수법을 대담하게 버리고 새것을 탐구하면서 낡은것을 부단히 새롭게 갱신해나가는데 정력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작가들은 현실을 미화분식하거나 과장하고 형식만을 내세우는 자연주의, 형식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모든 작품들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리며 자연주의, 형식주의적

요소들과 수정주의침습을 막기 위하여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높은 정치적식견과 예술적자질을 소유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작가들은 창작실천과 결합된 주체사상학을 강화하며 전공부문 학습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그 주인인 생산자대중이 그 사업의 정당성과 의의를 잘 알고 힘있게 펼쳐나섬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진척될수 있다.

때문에 작가들은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에서 발현되고있는 아름답고 숭고한 영웅적인 기개와 혁명정신,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높은 사상에 승화시켜서 감명깊게 형상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투쟁에서 신심과 용기를 얻고 자각적열성과 드높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며 생산에서 계속 앙양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제3차7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우리 작가들이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의 투쟁과 생활을 진실하고 풍부하게 그려낸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새 전망계획 수행에 이바지하는 주체형의 혁명전사들의 의의있고 빛나는 형상을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주체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창작적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 발전소건설자의 노래

로창남

산악을 옮기고 강을 메우며  
주체시대 기념비 세워나간다  
우리 당의 믿음을 가슴에 안아  
불타는 열정은 용솟음친다  
아, 우리는 자연의 정복자  
자랑높은 언제건설자다

바위가 막아선다 우리 겁나라  
땅속에도 새 물길 열어나간다  
우리 당이 이끄는 한길을 가기에  
대자연을 개조하는 긍지높아라

아, 우리는 위훈의 창조자  
영예로운 언제건설자다

자력갱생 기술혁신 기세드높이  
서해갑문 건설속도 꽃피워간다  
우리 당을 받들어 우리 가는 한  
승리자의 영예는 우리것이다  
아,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  
80년대 언제건설자다

## 딸에게서 온 편지

때: 1920년대말

곳: 우리 나라 북부 어느 한 산간마을

나오는 사람들

허달수 주인공, 농민

조 씨 허달수의 어머니

어머니 달수의 어머니

허달천 달수의 동생, 농민

봉 순 달천의 딸, 야학생

부 실 농민

차 돌 부실의 아들, 야학생

야학선생

김로인 농민, 야학생

만 복 타고장에서 오는 청년

석유장사

소 경

윤지주 삼치골 지주이며 구장

지주처

기타 남녀 야학생, 마을사람들

△ 국부조명속에 소개자가 나온다.

소개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공연하신 작품입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반세기도 훨씬 넘었지만 오늘도 이 작품은 배우기 싫어하고 모르면서 아는체하다가가는 남의 웃음거리가 되며 사람은 알아야 자주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다는 참된 진리를 밝혀주고있습니다.

△ 음악속에 막이 열린다.

### 서 장

때 어느 한 여름날의 한낮

곳 삼치골의 나루터

무대 높은 산밭들이 아득히 펼쳐진 심산계곡

그밑으로 작은 강줄기가 유유히 흐른다.

강기슭에는 백양나무들이 서있다.

막이 열리면

△ 길손들이 나루가로 내려간다. 그속에는 우편 배달부도 있다.

배달부: 배사공아바이, 같이 잡시다.

배사공: 어서 오슈.

△ 배사공이 노대를 메고 내려간다.

△ 황소가 울자 염소들이 따라온다.

△ 이때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고 다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잠시후 호미를 든 달수 땀을 흘리며 급히 들어온다.

얼마후 조씨 뒤편아 들어온다.

달수: (언덕에 올라) 여보슈, 배달부랑반.

소리: 왜 그러슈?

달수: 우리 봉녀한테서 편지가 오지 않았소?

소리: 뭐라고요?

달수: (두손을 입에 가져다대고)북간도에 간 우리 딸에게서 편지가 오지 않았소?

소리: 오지 않았수다.

조씨: 에이구 봉녀야 어떻게 됐기에 소식한장 안보낸단말이나, 응 봉녀야.

△ 까치가 요란스럽게 울어댄다.

달수: 똘똘 (침을 뱉는다.)뵈어먹을 까치새끼.

조씨: 아니, 까치보군 왜 그러슈?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소식이 온다는데...

달수: 저녁까치가 울면 근심이 와.

조씨: 아는것두 많수다.

달수: 망할년, 편지라도 한장 할제지. (까치가 더욱 크게 운다.)후여! (돌을 집어던진다.)

△ 경쾌한 음악과 함께 제명이 새겨진다.

###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

△ 이때 방창이 울린다.

꽃피는 이른봄날 집떠난 딸자식  
단풍든 가을에도 소식이 없네  
삼치골 령감로친 애라게 기다리는  
딸소식 그 언제면 받아안올가

### 제 1 장

때 서장에서 얼마후 가을 저녁

곳 달수네 집

무대 언덕밑에 자리잡은 초가집

굴뚝뒤에 서있는 큰 느티나무가 지붕우에까지  
가지를 드리우고있다.

마당한옆 바위밑에서는 샘물이 솟아오른다. 언  
덕에는 마을과 읍으로 가는 행길이 뻗었고 그  
너머에는 부실의 집 일부가 보인다.

무대 밝아지면

△ 하늘가에 노을이 비졌다.

△ 동네녀인 들어와 동이에 물을 담는다.

△ 처녀1 석유장사를 데리고 들어온다.

**처녀1:** 바로 이 집이 허달수아저씨네 집이에요.

**석유장사:** 그래, 고맙다.

**처녀1:** 그럼 제가 야학에서 기다리겠어요. 저기  
개울건너 첫집이에요.

**석유장사:** 알겠다.

**처녀1:** 꼭 오셔야 해요. 우리 선생님이 석유를 많  
이 사시겠다고 했어요.

**석유장사:** 먼저 가있으라구. 내 인차 뒤따라갈테  
니.

△ 처녀1 나간다.

△ 석유장사 집앞으로 다가간다.

△ 어머니 방문만 열고 안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

**석유장사:** (어머니에게)편안하십니까?

**어머니:** (듣지 못한다.)

**동네녀인:** 할머니가 잘 듣지 못하십니다.

**석유장사:** 그래요?

△ 동네녀인 물동이를 이고 나간다.

**석유장사:** 할머니 편안하십니까?

**어머니:** 응? 석유사라구? 우린 안사, 돈이 없어  
서 광술불을 켜다네.

**석유장사:** 저 강건너 북간도에 가있는 딸한테  
기별이 왔수다.

**어머니:** 강건너에선 잘 팔리지 않는다구? 그럼  
마을에 들어가보라구.

**석유장사:** 하, 절벽이로구만... 이걸 어떻게 한다.  
젊은 주인들이 없나?

**어머니:** 담배 피우라구.

**석유장사:** 예 고맙습니다. 자, 이거(편지를 보며)  
봉투에 넣지 않은걸 봐선 별다른 사연은  
아닌것 같은데... (편지 읽는다.) 부친님전  
상서라. 그동안 기체후 일향 만강하옵신  
지요?

**처녀1:** (소리)아저씨, 빨리 오시라요.

**석유장사:** 오냐 간다. 자 이거 사연이 길다.(다  
읽고나서)응! 북간도에 가있는 딸이 무사  
히 잘 있다는 소식이로구만.

△ 어머니 나온다.

**처녀1:** (소리)아저씨, 빨리요.

**석유장사:** 오냐, 할머니, 이걸 아들이 오면 주십 시  
오. 여기다 이렇게 놓고 갑니다. 이놈의 석유  
상자를 지구 하두 돌아다니다보니 배달부노  
릇까지 다 해보는구나. 석유사려, 석유사려.  
(퇴장)

△ 잠시후 조단을 진 달수와 콩단을 인 조씨가  
들어온다.

△ 참새들이 울어댄다.

**달수:** 후여 후여-

**어머니:** 에그, 너희들 배가 고프겠구나.

**조씨:** 어머니, 우린 일없어요.

**어머니:** 아이구나, 흥년은 들었어도 너희들이 밤낮  
밭에 나가 살더니 콩알이 이렇게 여물었구  
나.

**달수:** 낱알이 잘 여물면 뭇합니까. 저 고래아가리갈  
은 운주사네 대문안으로 다 들어가겠는데요.

△ 달수 샘물가에서 지성드리려고 떠놓은 물을  
마시려고 한다.

**어머니:** 애, 그 물 마시지 말아.

**달수:** 에이 깜짝이야, 간 떨어지겠수다.

**어머니:** 봉녀소식 오게 해달라구 칠성님께 떠놓은  
물인데 네가 그 물을 마시다니, 정신 나갔느  
냐?

**달수:** 네, 네.(물대접을 다시 놓는다.)

**조씨:** 어머니, 이럴 때 우리 봉녀가 곁에 있으면 이  
콩으루 비지라도 한그릇 해먹이겠건만...

**어머니:** 애에미야, 난 고년이 보고싶어 죽겠다. 눈  
만 감으면 고 얼굴이 사물사물하는게... (비칠  
거린다.)

**조씨:** 어머니(부축한다.) 여보, 어머니가 저러시다  
않아누우실가봐 걱정이예요.

△ 어머니 부엌으로 들어간다.

**달수:** 그러게 내 뭐라구 그랬소. 어머님앞에선 봉녀  
이야길 꺼내지 말라구 하지 않았소. 그런데 이  
건 마주앉기 바쁘게 콩이요, 비지요 궁상을 떠  
니...

**조씨:** 그러지 말자구 하면서도 콩 몇알 생겨두 자  
꾸만 생각나는걸 어찌겠수. 예구, 외동딸 하나  
있는걸 북간도로 보내지 말구 끼구있어야 하  
는건데.

**달수:** 제 서방이 감옥에 갇혔다구 밤낮 눈물만 짜  
구있는걸 끼구있어선 뭇해. 죽으나사나 제 서  
방곁에 있어야지.

**조씨:** 그렇지만 그 어진것이 어떻게나 지내는지.

△ 이때 봉순이 사발을 들고 들어온다.

봉순: 저 큰어머니, 된장 좀 주세요.

조씨: 오냐. (부엌으로 들어간다.)

달수: 애 봉순아, 하등주막집에 가서 네 애비가 있거든 당장 데려오너라. 래일은 너희 조발가을을 해야겠다.

봉순: 저, 집에 가서 저녁을 지어야겠는데요.

달수: 너희집에 무슨 저녁거리가 있겠느냐.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때거라.

△ 조씨 된장그릇을 들고 나온다.

봉순: 저, 그런데 거기 갔다 오면 야학에 늦어져서...

달수: 뭐, 야학? 꼴좋다. 애빈 투전바람이 나구 딸자식은 야학바람이 났으니...

봉순: 저...

달수: 이것아, 예로부터 뭐라구 했는지 아니? 남녀칠세 부당상? 부당석...? 그 말이 옳든가?

조씨: 낸들 아우.

달수: 하여든 남녀가 일곱살이면 한자리에 앉지 두 말라는게다. 그런데 시집가게 된 계집애가 사내녀석들하구 한자리에 앉아 땡땡땡하구 있어?

오봉순: 우린 야학에 나가 글공부하지 뭐 별다른 일은...

달수: 썩 가지 못할가.

△ 봉순 기겁하여 나간다.

조씨: 그 참한 엘 왜 자꾸만 욱박지르시우? 다 늙은 나두 배우고싶은데 그 앤들 오죽하겠수.

달수: 큰에미라는게 한다는 소리가, 쫓 쫓...

△ 달수 토방에 앉아 담배통을 끌어당긴다.

달수: (편지를 보고)이거 보지 않던 종이다.

조씨: 그제 혹시 관청에서 온 세금고지서가 아니우?

달수: 이렇게 무식하다구야. 관청에서 온 고지서나 문서장이라면 여기 보름달같은 빨간도장이 찍혀있을게 아닌가?

조씨: 그렇긴 한데...정성껏 글을 쓴걸 보면 무슨 편지 같기두 하구.

달수: 편지?...정말 이게 우리 봉녀한테서 온 편지라면 오죽 좋겠소. 《아버지, 어머니, 이 만자식은 무사히 잘 있습니다.》 이렇게 몇자 써 보내면 될게 아니야. 망할년, 죽었는지 살았는지.(찢으려 한다.)

조씨: 여보, 그래두 알아봐야지요.

달수: 알아보거나새나.

조씨: (방문을 열고)어머니, 이게 웬 종이예요?

어머니: 오, 석유장사가 담배 한대 피우구 놓구 갔어.

달수: 그것 보라구요. 이 허달수가 아무리 글을 모른들 편지하구 담배종이야 분간 못할가. (종이를 쪽 하고 찢는다.)

조씨: 원 당신두.

△ 이때 방창이 열린다.

△ 달수 찢은 종이로 담배를 말아 피운다.

방창: 애간장을 태우던 딸의 편지  
담배종이 하다니 웬 말인가  
딸소식 하늘중천 날려가네  
한조각 구름되어 동실동실  
기다리던 그 사연 다 날려가네

조씨: 담배맛이 그렇게두 좋수?

달수: 종이가 좋으니까.

어머니: 아니 이 아까운 종이루 담배를 피우다니. 이 께진 창구멍을 막아야겠다.

달수: 참 우린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 어머니와 조씨 편지로 창구멍을 막는다.

△ 봉순 망태를 멘 달천과 함께 들어온다.

봉순: 큰아버지, 가다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 봉순 된장그릇을 들고 나간다.

달천: 형님, 날 불렀수?

달수: 총에 맞은 물오리처럼 어쩔 왜 그리 축 처졌나?

달천: 장가를 들던가 해야지 이거야 어디 살림이 궁색해서...

저 아주머니, 어디 참한 과부가 하나 없습니까?

조씨: 흐흐

달수: 그 과부도 또 굶겨 죽이자구!

달천: 굶겨 죽이다니요.

달수: 농사군의 정신이 늘 그놈의 투전판에서 맴돌구있는데두?

달천: 형님은 그저 만나기만 하면... 쯔쯔...

달수: 그래 어제밤엔 또 어느 구석에 처박혀 그 놀음을 했나?

달천: 놀음이라니요? 난 요전에 형님한테 밤새 혼썰이 난 다음부터는 그 놀음을 아예 끊을려구 작정했수다.

달수: 먼눈을 팔지 말라구. 목구멍에 죽물이라두 넘기자면 농사군은 그저 늘 손에 흙을 묻혀가지구 있어야 하는게야.

달천: 예.

달수: 임자네 그 조발을 좀 보라구. 전번 바람에



기름바른 머리칼처럼 번듯하게 넘어진 꼴을…  
래일 당장 가을을 하세.

달천: 그렇지 않아두 가을을 하려던 참이웨다. 그  
숫돌이나 좀 주시우.

달수: 봉순이년을 생각해서라도 이젠 제발 정신  
을 차리라구.

달천: 알겠수다.

△ 달수 집뒤로 들어간다.

달천: 아주머니, 내 부탁하나 들어주시겠소?

조씨: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의 부탁인데 내 할수  
있는 일이라면야 무얼 주저하겠소.

달천: 내 그렇게 생각하실줄 알았수다. 아주머니,  
나 돈 좀 꺾주시우.

조씨: 돈?

달천: 내 인차 갚아드리지요.

조씨: (동여뻤던 웃고름에서 돈을 꺼낸다.)

달천: 그저 우리 아주머니가 제일이시다. 얼마가  
요?

조씨: 소금사고 남은 15전.

달천: 예? 에그 고것 가지군 안되겠수다.

조씨: 아니, 어디다 쓰겠기에?

달천: 췌- 아주머니, 내 어제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 범바위산에서 독같이 큰 호박들이 줄을 지  
어 디굴디굴 굴러와서 우리 집 마당에 산처럼  
쌓이는데 아니겠나요.

조씨: 원 저런!

달천: 이젠 분명 횡재할 꿈인데 아주머니, 오늘  
딱 한판 쫓기만 하면 황소 한마리값은 문제없  
이 걸어옵니다.

조씨: 아니 그럼 또 투전을?

달천: 췌!

조씨: 그러다 형님한테 또 혼쌀 날려구? 그러지  
않아두 전번날 적은이에게 욕을 하고 와선 허  
씨가문에 놀음군이 났다구 밤새 한숨만 쉬던  
데…

달천: 야 고 꿈 아깝다.

△ 달수 숫돌을 가지고 나온다.

달천: (아닌보살하며)거참 날씨가 꽤 덥다.

달수: 엉 덥다니? 선기가 난지 언젠데?

달천: 선기요? 아 참 그럼 날씨가 쌀쌀한가?

달수: (방백)아니, 이 사람이 오늘은 왜 이러나?

△ 이때 법석 고아대는 부실의 목소리가 들린  
다.

△ 차돌이 쫓기듯 급히 들어온다.

차돌: 어머니두 참.

달천: 넌 왜 놀란 메뚜기처럼 풀떡거리니?

△ 차돌 부엌으로 들어간다.

△ 부지깽이를 든 부실이 떠들썩 고아대며 들어  
온다.

부실: 애 차돌아, 차돌아!

달수: 어힘!

부실: 이녀석이 어델 갔을가.

달수: 왜 이리 소란이요? 장가가게 된 애를 두고.

부실: (억이 막혀)아주머니, 아, 글썽 그 빌어먹을  
녀석이 도배하자구 사온 종이를 몽땅 저 야  
학방에 내가지 않았겠수.

달수: 허, 그놈의 야학바람 꽤 세차다.

부실: 어이구(떨어졌던 부지깽이를 집으며) 아이 따  
거워… 그녀석한테 야학귀신이 콕 붙었는지 수  
수가을을 당장 해야겠는데 이젠 그저 눈만 뜨면  
중 녀불외듯 글을 읽는다, 창가를 한다 하구 진  
종일 입을 놀려가지구있수다.… 아무래두 저 집  
봉순이가 자꾸 꼬여내는것 같은데.

달천: 뭐? 흥, 우리 봉순이가? 그집 차돌이녀석  
이 저녁마다 찾아와 휘익, 휘익 휘파람을 분다  
빠꾸기소리를 낸다 별지랄을 다하며 우리 봉순  
일 꼬여내요.

부실: 우리 차돌이가요?

달천: 그 부모에 그자식이라구 차돌이녀석 기갈을  
잘해야겠습시다.

부실: 뭐라구요? 야 이거 정말이 그래두 제 마음  
이 달랑하니 따라다니겠지. 그 집 봉순이가 무  
슨 염소새끼라구 우리 차돌이녀석이 밤낮 끝구  
다니겠수? 그 집 딸이나 잘 기갈하시우.

달천: 아니, 이 아주머니가.

달수: 하, 그러다 두 집 의 상하겠다.

부실: 내 오늘부터 저녀석을 기둥에 붙들어매놓던  
가 해야지.

차돌: (부엌문을 열고)어머닌 정말 봉건이예요.

부실: 뭐? 내 저녀석을, 저녀석이 거기 숨어있었던  
구나. 나오지 못하겠니.(부지깽이로 내려치려한  
다.)

어머니: (부엌에서 나오며) 에그, 내 이마빼기 터지  
겠다.

부실: 어머니, 안됐어요.

달천: 이녀석!

차돌: (방문으로 나와 달아빠며)어머니가 그러신다  
구 내가 야학에 못나갈것 같애요.

부실: 아니. 이녀석이 (부지깽이로 때리려한다.)

△ 차돌 달아난다.

부실: 차돌아!

△ 어머니 중얼거리며 채를 들고 나간다.

부실: 애 차돌아! … 아주머니, 저녀석을 어떻게 하  
면 좋겠수?

달수: (생각끝에) 아주머니, 장가를 보내시우.  
 부실: 아니, 장가가요?  
 달수: 색시를 보게 되면 《이젠 내가 저걸 먹여 살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험이 든 다우.  
 달천: 옳수다. 옳아요.

△ 모두 웃는다.

부실: 참, 아주머니, 저 개울건너 돌배나무집에서 그 집 둘째딸과 우리 차돌이녀석하구 혼사를 맺었으면 합디다.

조씨: 애개, 그 집 둘째딸이 아마 나이가 썩 우겠는데?

부실: 도제 여섯살우밖에 안돼요.

조씨: 여섯살우밖에 안되다니? 지금 젊은이들은 색시가 저보다 아래래야 좋아한다는데.

달수: 모르는 소리, 너편네가 우가 왜야 사내들이 사랑을 받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열살이나 우였구,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여덟살이나 우였어.(달천에게) 그랬지?

달천: 그렇잖구요.

부실: 그것 보시우.

달수: 가만, 이거 무슨 탄내가 난다. (냄새를 맡는다.)

부실: 형님? 애개 가마에 강냉이를 얹혀놓았는데 다 탔겠다. (급히 나간다.)

△ 모두 웃는다.

△ 이때 어머니 급히 들어온다.

어머니: 애 애어미야, 애어미야. 저 아래마을 박서방네 집에 북간도에서 사는 조카며늘애가 왔다더라. 그 집엘 좀 가봐라. 혹시 우리 봉녀 소식을 듣게 되겠는지 알겠느냐.

조씨: 그래요? 내 지금 곧 가겠어요. (나가다말고)

어머니: 어서 가봐라.

조씨: 여보, 저기 야학선생이 또 옵니다.

달수: 야, 소힘줄보다 더 질긴 사람이로구나. 여보, 내가 없다구 하우. (방으로 들어간다.)

조씨: 여보, 그래두 우리 까막눈들의 눈을 띄워주자구 외지에서 와서 교생을 하는데...

달수: 닥치라구.

△ 어머니 부엌으로 들어간다.

△ 이윽고 공책을 든 야학선생이 들어온다.

선생: 안녕들 하십니까?

조씨: 어서 오시우.

선생: 이 덕에선 벌써 조가울을 시작하셨군요.

조씨: 먹을게 떨어져서요.

선생: 그래요. 그런데 아저씨 어델 가셨는가요.

조씨: 저...

선생: 발에서 아직 안들어오신 모양이군요. (공책을 주며) 자, 이건 아주머니 공책이구 그러구 이진 달수아저씨겁니다. (연필도 두자루 꺼내준다.)

조씨: 아니 연필까지 다?

선생: 오늘은 두분이 다 야학에 나오셔야겠습니다.

조씨: 정말 선생님의 성의를 생각하면...

선생: (달천에게) 요즘은 봉순학생까지 야학에 안내 보내시는데 오늘은 꼭 아저씨가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조씨: 나가지요.

달수: (방문을 콧 열고) 어델 나가?

△ 야학선생 와들 놀란다.

선생: 아저씨두 계셨구만요.

어머니: (부엌문을 열고) 아니, 넌 아직두 안갔느냐?

조씨: 예, 지금 가요. (급히 나간다.)

선생: 아저씨.

△ 달수 다시 문을 닫는다.

달수: (방안에서)선생, 글이라는거야 예로부터 량반들이 과거급제해서 벼슬살이하자고 배운것인데 우리같이 호미곶다리나 잡은 농사꾼이 글을 배워 뭘하겠소.

부실: 아주머니 말씀이 옳수다. 먹구살기도 힘든데 한가하게 앉아서 글이나 배우구있겠소.

선생: 저 하늘에는 비행기가 뽁뽁 날고 땅우엔 기차가 뽁-칙쭉쭉하고 달리는 지금같은 개명사회에서는 말입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글을 배워야 진짜 사람구실을 할수 있습니다.

달천: 뭘, 사람구실? 원 지금이래두 내게 돈만 있으면 글은 한자 몰라두 당장 사람구실을 하겠수다. 거 운주사를 좀 보시우. 별루 배운건 없지만 돈이 많으니 주사님, 구장님 하면서 사람들이 굶신거리는데. 흥! 돈이 사람을 만들지 글이 사람을 만드는데가요?

달수: (문을 열고 나오며)다 틀렸네. 돈이나 글은 사람을 만들지 못해. 일이 사람을 만들지 일이!

△ 마을사람 일부 들어온다.

선생: 물론 사람은 근면해야지요. 그러나 나라가 없고 지주, 자본가들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에서는 아무리 근면해두 사람구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아저씨 공부해서 이 세상물정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달수: 뭘 세상물정? 아 내가 세상물정을 몰라서?

달천: 선생, 세상물정으로 말하면 이 동네에서 우리 형님만큼 아는 사람은 없수다.

동네령감: 그렇지 않구.

달수: 선생, (홍내를 내며) 황새가 왜 이렇게 한다  
리만 들구 서있는지 아시우?

선생: 예?

달수: 모르겠지요. 두다리를 다 들면 넘어질테니  
까 한다리만 들고 서있는거라우.

선생: 허허...

달수: 우수경칩엔 발을 갈구. 청제비가 지지배배  
찾아오면 씨를 뿌리구 개구리가 빠그쿠빠그쿠  
여물게 울면 김을 매구요, 기러기떼 날아오면  
가을걸이라.

동네평감: 그렇지.

달수: 아 내가 이런 리치를 몰라 야학에 나간단  
말이우?

농민: 저 형님은 정말 모르는게 없어요.

달수: 세상리치를 배우구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나한테 보내시우.

선생: (어이없이 웃으며)아저씨, 내 그럼 한가지  
물겠습니다. 아저씨 한평생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시는데 왜 가난한 살림에서 벗어나지 못  
합니까?

달수: 아, 그거야 팔자탓이지.

선생: 아닙니다. (마을사람들에게) 아닙니다. 그것  
은 팔자탓이 아니라 이 세상탓입니다. 그러니  
우린 일을 하면서두 세상리치를 배워 빼앗긴  
나라를 되찾구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달수: 흥, 흥범도의병장은 제 이름석자 쓸줄 몰랐  
지만 나라를 위해 잘만 싸웠다고 합니다.

선생: 그분이 글을 배웠더라면 아마 더 잘 싸웠  
을겁니다.

달수: 선생, 선생두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캐다가  
는 우리 사위녀석처럼 콩밥신세를 면치 못할  
거웁니다.

선생: 예?

달수: 선생, 내 이야길 좀 들어보시우. 사실 우리  
허씨가문엔 대대로 내려오면서 글공부 한 사  
람이 한명두 없었소. 그래 유식한 사람을 한  
명 가졌으면 하는것이 소원이었지. 그래 우리  
봉넬 그런 사람에게 시집보내질 않았겠소. 그  
런데 사위녀석은 그런것두 모르구 무슨 주의  
요 운동이요 하고 돌아치다가 북간도에서 끝  
내 왜놈들에게 붙잡혀 감옥신세가 되었소. 그  
래 딸년을 그곳으로 보냈는데 아직 기별 한장  
없으니... 그러니 이 내게 그 글공부에 대해  
다시는 꺼내지마시우.

△ 이때 김로인이 들어온다.

김로인: 야, 다리 부러진 노루 한꿩에 모인다더니  
어쩌면 요렇게 까박눈들이 한데 모였나.

달수: 까박눈이 뭐 형님더러 편지 한장 읽어달랬  
소?

김로인: 임자두 그런 소리 듣기 싫거든 야학에  
나오라구.

달수: 거 편안한 소리 그만하슈. 난 그럴 시간이 있  
으면 집에서 새끼 한발이래두 더 꼬겠수다. 글  
에서 밥이 나오우 떡이 나오우?

달천: 원 술이래두 한잔 나온다면 몰라두.

김로인: 원, 이런 왕고집쟁이들같으니라구.

△ 김로인은 나가다 공책을 떨군다.

달수: 형님 이게 뭐요! 이게? (공책에 매달린 연필  
공다리를 흔들며.)

김로인: 인주게. 저런, 공책을 거꾸로 든 꼴 좀 보  
시우. 이게 바루 야학에서 배운 창가야. 한번  
들어보겠나. 선생님.

선생: 어서 부르십시오.

김로인: (노래한다.)

이 세상에 농토가 생겨달적엔  
천만사람 위함이라 하여왔건만  
땅을 가진 지주놈들 잘도 사는데  
땅 못가진 농군들은 죽도 못먹네

△ 사람들이 모여들어 박수를 친다.

달수: 하하... 가관이군. 박수무당 째떡먹겠수다.

김로인: 잘 부르지?

달천: 명창이웨다.

△ 모두 웃는다.

김로인: 선생님, 어서 가십시오.

선생: 예.

△ 마을사람들 나가며 노래를 부른다.,

선생: 아저씨,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비록 잘먹고  
잘 입지는 못해도 희망찬 야학의 노래를 부르면  
서 배움터로 가고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  
까? 사람은 글을 배워야 지각이 들구 지각이  
들어야 체구실을 할수 있습니다. 먹은 소가 힘  
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저씨두  
꼭 야학에 나오십시오. (나간다.)

달천: 글을 배워야 지각이 들구 지각이 들어야 체  
구실을 한다. 먹은 소 힘쓴다. 형님, 그 야학선  
생이 바른소릴 하는것 같은데요.

달수: 아직 어려. 이 허달수와 맞서자면 간장을 한  
여라문동이 더 먹구와야 될걸.

달천: 형님도 참, 에이구, 가서 조가울차비를 해 야  
겠군.

달수: 여보게. 봉순이년 야학에 못나가도록 꼭 붙들  
어두게.

달천: 걱정 마시우. (나간다.)

△이윽고 조씨 황급히 들어선다.

조씨: 여보 령감,(눈물이 앞선다.) 이 일을 어쩌면  
중수?

달수: 쿨쩍거리지만 말구 말을 해야 알지.

어머니: (부엌에서 나오며)아니, 왜 그러느냐?

조씨: 어머니, 북간도에 큰 물란리가 나서 수백채  
나 되는 집들이 물에 떠내려가구 많은 사람  
이 잘못됐대요.

어머니: 뭐라구?

조씨: 그러니 우리 봉녀두... 봉녀야!

어머니: 칠성님두 무심하구나. 그 애가 편지 한장  
없는걸보니 잘못된것이 분명하다.

조씨: (달수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중수?

달수: 어떻게 하긴, 그렇게 앉아 닭똥같은 눈물이  
나 흘린다구 기별이 올상실소. 찾아갈 생각을  
해야지.

조씨: 그 먼델요?

달수: 자식을 위한 길인데 천린들 마다하겠소.

조씨: 온 집안을 다 털어야 먼지밖에 나올게 없  
는데 무얼 가지구 떠나겠소?

달수: (생각끝에) 그렇지! 이 허달수가 아무리 가  
난한들 제 외동딸에게 쥐어줄거야 없을라구.

조씨: 예?

달수: 그 농작필에 간수해둔 응답을 꺼내오라구.

조씨: (무릎을 치며) 참, 응답이 있지. (달려 들어  
간다.)

어머니: 뭐라구?

달수: 응답이요.

어머니: 애야, 그 응답 값이 얼마나 나가느냐?

달수: 적어도 15원은 나갈거예요.

어머니: 원 저런, 송아지 한마리값이로구나.

△ 조씨 응답을 가지고 나온다.

달수: 그런데 이걸 어디다 판다. 옳지, 봉순이 애  
비를 읍거리 한약방에 보내면 한 이원은 더  
받아낼게야. 그 사람은 이런덴 물계가 밝거  
든.

조씨: 여보, 혹시 적은이가 그 돈으루...

달수: 왜 투전을 할것 같아서?

조씨: 난 꼭 범에게 고기덩이를 말기는것 같아서.

달수: 그 사람이 이따금 투전목은 좀 잡지만 인  
정이 있구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요. 아무렴  
제 형수 로자에 손을 대겠소?

조씨: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수.

달수: 자, 가서 오늘저녁에 늦어지면 주막집에서  
자구오라고 하오.

조씨: 예. (팔을 저으며 나간다.)

달수: 여보, 조가울은 래일 우리가 해줄테니 걱정  
말라구 하오. 허허, 당장 딸네 집엘 찾아가는  
것 같군.

△ 달수와 어머니 서로 마주보며 웃을 때 중간  
막이 닫힌다.

△ 달천 중간막앞으로 나온다.

달천: 이놈의 응답이 날 살려주는구나. 꿈자리도 좋  
은데 오늘 한판 좌뵈야지. 아주머니 로자도 보  
태주고 나두 한몫 보구.

△ 달천의 움직임과 함께 중간막이 열린다.

## 제2장

때 전장에서 다음날

곳 마을 행길가에 있는 달천의 밭머리

무대 나지막한 언덕우에는 큰 느티나무가 서있는데  
그 너머로는 조밭이 펼쳐졌다.

무대 밝아지면

△ 아침이 좀 지났을무렵이다.

△ 달수 가을한 조단을 들고나와 밭머리에 쌓더니  
수건으로 땀을 씻는다.

달수: 하, 이 사람이 늦어진다.

△ 지게 진 농민이 지나간다.

달수: 거 키다리 춘삼이 아닌가?

농민: 예, 아니 형님이 어떻게 여기에 나왔수?

달수: 우리 봉순이네 조밭가을을 하느라구.

농민: 정말 동생생각이 지극하외다.

달수: 임자 읍에 갔다오나?

농민: 나무 한집 팔고오는길이웨다.

달수: 우리 달천일 못봤나?

농민: 가만, 주막집에서 막걸리추렴을 하고있습디  
다.

달수: 그래?

농민: 인차 오겠지요. (나간다.)

달수: 음 응답을 팔긴 팔았구나. 탁배기 한사발에  
오전이니 열사발을 들이켰다 해두 50전밖에 더  
썼을가.

△ 이때 처녀애들 노래를 부르며 지나간다.

처녀들: 캄캄한 야밤에도 대낮처럼 보고요.

처녀2: 봉순언니, 어제 왜 야학에 안나왔어요. 우리  
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처녀3: 오늘은 꼭 나와야 해요.

달수: 오늘두 안나간다.

△ 처녀애들 달아난다.

△ 봉순 조단을 들고와 처녀애들 나간쪽을 바라본  
다.

달수: 비둘기마음은 콩밭에만 가있다더니 네 마음은 그저 야학에만 가있구나.

봉순: (한숨)

달수: 그 한숨소리에 땅이 꺼지겠다. 야학에 갈 생각은 아예 말아.

봉순: 야학에 안나가면 콩을 먹어요.

달수: 콩을 먹으면 좋지.

봉순: 먹는 콩이 아니라 이름밑에 작은 동그라미를 매긴단말이에요.

달수: 작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달구지바퀴만큼 큰 동그라미라도 매길테면 매기래.

농사군은 그저 이렇게 비지땀을 흘려야 하는 게야. 이제 저렇게들 앉아서 입방아들만 찼다가는 죽물도 못먹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다》라구 일러오는게다.

△ 야학선생과 차돌 닷을 들고 들어온다.

선생: 농사가 천하지대본이라면 학업은 인생지대본이라고 할수 있지요.

달수: 아니, 야학선생이 어떻게...

선생: 일손이 모자랄것 같아서 품을 좀 팔가해서 왔습시다.

달수: 제 오륙이 성한데 품은 무엇하러 사겠소. 우린 소용 없수다.

선생: 그럼 품값은 받지 않고 그일을 제껴 끝내 드릴테니 오늘은 저 봉순학생을 야학에 보내 야겠습시다. 자, 차돌이. (발으로 내려간다.)

달수: 선생! 우리 봉순인 야학에 안나갈테니 헛품을 팔지 마시우, 선생.

△ 참새들 우짖는다.

달수: 후여, 이놈의 참새새끼들 저 지주네 고간에 나 가았아라. 후여. (나간다.)

차돌: 봉순이, 인쥐, 어서. (봉순이의 닷을 빼앗는다.) 오늘은 야학에 꼭 나와야 해.

봉순: 큰아버지가 우리 조발가을까지 해주시면서 못나가게 하는데 어떻게 나가겠어.

차돌: 우리가 대신 일해주면 될게 아니야.

봉순: 야참, 아이 어쩌나.

차돌: 봉순인 정말 답답해. 그렇게 부모들의 눈치만 살피다간 야학에서 아예 쫓겨나.

봉순: 아니, 뭐 쫓겨난다구? 내가 야학에서 쫓겨나면 자긴 좋겠어.

차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봉순: 사내들은 그저 빈말뿐이라니까. 야학을 졸업할 때까지 나를 도와주겠다구 하구선.

차돌: 나도 안타까워서 그래. 내 아무렴 봉순일 내버리구 나혼자 공부할가.

봉순: 저 이것봐. 어제 뭘 배웠어?

차돌: 어제? 음,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다시말해서 사람의 조상에 대해서 배웠어.

△ 이때 달수 들어온다.

봉순: 사람의 조상?

차돌: 응, 어디 맞혀봐.

봉순: 그게 뭘가?

차돌: 사람의 조상은 류인원이라는건데 쉽게 말해서 원숭이비슷하게 생긴...

달수: (참지 못하고) 뭐? 그럼 사람의 조상이 쯔내 비란말이나?

차돌: 예, 처음엔 네발로 걸다가 오랜 세월이 흘러 두발로 걸게 되면서...

달수: 예끼, 이놈! 네발로 걸어... 이것들아, 우리 조상들이 땅속에서 울겠다. 야학에서 잘들은 가르친다.

차돌: 아니, 그럼...

달수: 사람은 날 때부터 사람이야.

차돌: 그런게 아닙니다.

달수: 썩 사라지지 못해.

△ 차돌과 봉순 발아래로 내려간다.

달수: 사람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쯔내비가 조상이라니, 저너석 허파에 바람이 든걸보니 장가를 빨리 보내야겠군.

△ 조씨 급히 들어온다.

조씨: (기쁨에 젖어) 여보, 여보.

달수: 왜?

조씨: 여보, 저 하늘이 우릴 도와주는가봐요.

달수: 응?

조씨: 글썽 곱단이 어머니가 장에 갔다 와서 그러는데 적은이가 글썽 웅담값을 5원이나 더 받았대요.

달수: 5원씩이나?

조씨: 예.

달수: 이 허달수의 생각이 빗나갈수가 없지.

조씨: 호호.

달수: 그런데 뭐 범아가리에 고기덩이를 넣은것 같다구?

조씨: 정말 의심이 병이지요. 여보! 글썽 적은이가 돈을 받아지구 한약방을 나서는데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투전군들이 달려들더라지 않소.

달수: 그래서?

조씨: 그러자 적은인 《내 아무리 투전에 환장을 했기로서니 제 형님께 로자에 손을 대겠소? 더 보태주지 못할망정...》...그러면서 팔을 이렇게 뿌리쳤대요.

달수: 이렇게?... (감동되어) 달천이 이사람, 장하네. 장해.

조씨: 암, 장하구말구요. 여보, 어떻게 하든 울가을엔 우리 맞춤형 과부를 하나 얻어줍시다.

달수: 그러자구요.

조씨: 그리구 그 돈에서 봉녀네 녹거리 이불감을 한감 끊을가 해요.

달수: 잔치때두 못해주었는데 눈을 꼭 감구 해줍시다.

조씨: 그리구 색동옷두 한벌 해줍시다.

달수: 아니, 색동옷이라니 ? 애두 없는데...

조씨: 원 령감두, 아 그 애가 떠날 때 녀달이나 되질 않았댔소.

달수: (손가락을 꼽아보며) 옳지, 그러니 지금은 해산했겠구려. 여보, 이제 당신두 할머니란 말을 듣게 됐구려.

조씨: 여보, 당신두요. 할아버지! 호호.

△ 소리 《차돌이 빨리 끝내자구.》

달수: 여보, 저것 보우. 봉순일 야학에 끌어내려구 야학선생이 극성스럽게 가을을 하고있는걸...

조씨: 에이구, 저렇게 고마울데라구야. 선생님!

△ 달수, 조씨 발으로 내려간다.

△ 이때 윤지주가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 뒤에 술취한 달천이 매달려온다.

달천: 주사님, 주사님!

지주: (자전거에서 내리며) 자 이거 정말 찰거마리처럼 달라붙는다.

달천: 저 주사님, 제발 그댕 마름이 내 돈 따먹은 걸 돌려주도록 해주시우.

지주: 참 답답하구만, 마름 그 사람이 따먹은 돈을 내가 어떻게 돌려주라구 하겠나. 투전판에서 개평은 있어두 먹은 돈 돌려주는 법은 없어.

달천: 사실 그 돈은 우리 아주머니가 로자로 쓸 돈인데 이 미련한놈이 그만...

지주: 내 그러기에 돈을 꾸어줄테니 임자네 봉순이년을 우리 집에 몇달 들여보내라질 않나. 가난한 살림에 입두 하나 덜구 좀중아.

달천: 그렇지만 그애 없이 내 혼자 어떻게 살겠습니까? 농사두 집살림두 다 그 애가 하는데요.

지주: 그렇게 바쁜년이 야학엔 왜 나가나?

달천: 그거야 글을 배우자구.

지주: 말은 좋다. 글을 배우자는것들이 모여앉아서 세상이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하구 시비들만 하구있나.

달천: 시비요?

지주: 임자두 들었을테지. 서분이 할아버지가 불렀다는 뭐 지주는 잘사는데 농군은 못산다는 창가말일세.

달천: 전 못들었는데요.

지주: 못들었어? 내 마을의 구장으로서 그것들

을 불러다 혼쌀을 내줄테야. 내 오늘 나까무라 주재소장님의 승인을 받았어. 그러니 봉순이년 야학바람에 경찰서 신세지기전에 우리 집에 보내게. (나간다.)

달천: 뭐, 봉순일 집에 보내라구. 그렇게 못한다. 못해. 에이 더럽다. (팔랭이를 흔들며) 돈 20원이 요걸 하나 남겼구나. 요놈의 팔랭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죽자하니 무섭구, 살자하니 난처하구나.

△ 조씨 나와 달천을 발견한다.

조씨: 여보, 적은이가 왔수다.

달수: 뭐라구?

조씨: 적은이가 왔어요.

△ 달천 기겁하여 비석뒤에 숨는다.

△ 달수 나온다.

달수: 어디 있소?

조씨: (언덕에서 내려오며) 방금 여기 있었는데 어딜 갔을가.

달수: (비석앞으로 다가간다.) 저 탁배기냄새가 난다.

△ 달천 비석을 사이에 두고 숨박꼭질을 하다 달수의 눈에 띄운다.

달수: 여기 있군! 이사람 달천이.

달천: 아이구, 형님이... 아 아주머니 밤새 편안하셨수?

달수: 자네네 조발가을은 다 했네.

달천: 정말 수고들 하셨구만요.

달수: 수곤 무슨 수고. 자네야말로 진짜 수꼴 하네.

조씨: 야학선생까지 저렇게 도와나섰다우.

달천: 그래요? (팔꼭질을 하고) 형님! 그런데 난 이렇게 한잔했수다.

달수: 아 해야지. 5원씩이나 더 받아냈는데 고까짓 술 몇잔이 대순가.

달천: 아주머니, 요거요. (팔랭이를 흔들어보인다.)

조씨: 아니, 그게 웬 팔랭이요?

달천: 우리 봉녀가 아들이든 딸이든 낳았겠는데 내 그래서...

조씨: 정말 적은인 생각두 깊지. 여보!

△ 조씨 팔랭이를 받아 흔들어보며 좋아한다.

달천: 저 그런데 아주머니, 한 이틀후에 떠나시우.

조씨: 왜?

달천: 내 그 돈을 곱으로 불쿠어드릴테니.

조씨: 그 돈이면 되겠는데, 불쿠지 않아두.

달천: 그렇게 해주시우. 그레두 명색이 삼촌인데 나두 봉녀한테 무얼 좀 보내야 하지 않겠나요.

달수: (지금껏 동정을 살피다가) 이 사람 달천이, 자네 혹시 그 돈을 어디 판데 쓴 건 아닌가?

달천: 예? 역시 우리 형님이 속기가 빠르시다니 까. 내 사실 그 돈을 쓰리맞힐가봐 저 읍거리 장국밥집령감에게 말렸수다.

달수: 아니, 그 령감이야 얼마전에 죽질 않았나?

달천: 아참, 죽었지. 그 령감이 아니라 그집 마누라에게 말렸지요.

조씨: 그집 마누라야 령감이 죽자 인차 아들네 집으로 갔는데...

달천: 가만가만 내가 누구에게 주었더라.

달수: (홍분을 누르며) 약장사처럼 이리저리 둘러대지 말구 바른대루 말하게, 바른대루.

달천: 아이구. (주저앉는다.)

달수: (짜리채를 뿔아들고) 이걸 보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달천: 예.

달수: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게, 어서.

달천: 예.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며) 형님, 차라리 날 죽여주시우. 그렇지 않아두 난 새끼오리루 목을 매려구 했수다.

달수: 그래 어떻게 했나?

달천: 저...

달수: 어떻게 했어? 못대겠어? 좋다,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며) 너같은놈을 믿구 보냈던 내가 어리석었지, (자기 종아리를 내려친다.)

△ 야학선생과 봉순, 차돌 급히 나온다.

조씨: 여보!

봉순: 큰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달수: 저리 비켜라.

달천: 형님, 다 말하겠수다.

선생: (짜리채를 빼앗으며) 아저씨, 이러지 마십시오.

달천: 형님, 사실은 아주머니로자를 더 보태주구 나두 늙은 소 한마리 얻어볼가 해서 투전목을 잡았다가 그만 거덜이 났수다.

조씨: 에이구. (팔랭이를 떨구고 주저앉는다.)

달수: 농사군이야 손에 쟁기를 잡아야지 투전목을 잡아, 이젠 딸네 집엔 다 갓군, 다 갓어.

조씨: 적은이두 참.

△ 달수 조씨 밭으로 내려간다.

봉순: 아버지, 아버지인 어찌자구 자꾸만 그러세요. 큰아버지랑 선생님이 우리 밭일까지 도와주시면서 애를 쓰는데 아버지 왜 그걸 모르세요. 예? 아버지!

선생: 차돌학생, 먼저 내려가라구.

차돌: 예, 봉순이 어서 가.

선생: 봉순학생.

봉순: 아버지. (나간다.)

△ 차돌 봉순을 데리고 나간다.

△ 락엽이 떨어진다.

선생: (달천에게 다가오며) 아저씨가 아주머니도 없이 구차한 살림을 해가시자니 피로움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두 마시구 때로는 투전도 하시겠지요. 허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 피로움을 풀수가 없습니다. 아저씨 돈만 있으면 사람구실을 할수 있다구 하셨는데 사실상 돈이 사람을 만드는것이 아니라 참된 뜻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니 이 손에 투전목을 잡을것이 아니라 연필을 잡구 글을 배워야 합니다. 한자한자 배우면 지난날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것두 깨닫게 됩니다.

달천: 이놈은 량심도 도리도 없는 너절한놈이웨다. 남의 돈을 탐내다가 제 아주머니 로자까지 잃었으니.

선생: 아저씨,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쳤으면 됐습니다. 자 어서 내려가십시다.

달천: 그런데 우리 아주머니가 나때문에 봉녀한테 못가게 됐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수.

선생: 그 먼곳에 고생스럽게 가는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소식을 알아봅시다.

달천: 소식을요? 그 넓은 간도천지에 어디서 사는 줄 알구.

선생: 아무리 넓은 땅이라두 사람이 사는 고장이면 정이 흐르기 마련이지요. 그쪽에 내 친구들이 몇몇 있길래 달수아저씨 따님의 소식을 좀 알아봐달라구 내 얼마전에 편지를 했습니다.

달천: 선생, 정말 면목이 없수다. 우릴 생각해서 가을을 해주시구 봉녀소식까지 알아내자구 애를 쓰시니 정말 고맙수다.

선생: 아저씨, 어서 내려가십시오.

△ 봉순 나와 서있다.

△ 선생 나간다.

봉순: 아버지!

달천: 봉순아! 내 다시 투전목을 잡으면 이놈의 두 손목을 그저...

봉순: 아버지, 어머니!

달천: 봉순아!

봉순: 아버지, 어서 가시자요.

달천: (팔랭이를 보며)딸랑아, 이 못난놈때문에 너까지 구박을 받는구나.

△ 달수 나온다.

달천: 내 사람구실을 할테다. 속썩는 우리 형님을 생각해서라도 내 꼭 사람구실을 하겠어. (천천히

나간다.)

△ 봉순 밥그릇을 들고 달천과 함께 나간다.

**달수:** 으름장을 댔으니 이제야 정신을 차린 모양이지...

**조씨:** (나오며) 아니, 왜 이러구 섰수.

**달수:** 여보, 웬담은 떼웠지만 사람구실은 할것 같소.

**조씨:** 예?

**달수:** 속썩은 형님을 생각해서라도 이젠 사람구실을 해야겠다면서 눈물이 글썽해서 다짐하던 말이야.

**조씨:** 그래요.

**달수:** 사람은 그저 저렇게 다스러야 하는거야.

**조씨:** 에이구, 그런데 봉너한텐 무얼 가지구 가겠소.

**달수:** 별수 있소. 없는놈은 있는놈에게 찾아가기 마련이라구 아무래도 윤주사에게 찾아가 머리를 숙여야지.

**조씨:** 그런데 그 윤주사가 빗문서를 가지구 무슨 통간을 부린다는데 그러다가 혹시.

**달수:** 뭐 내가 윤주사에게 속아? 나하구 30년동안 헛살았군. 귀신은 속여두 난 못속여요.

△ 달수 웃을 때 무대 어두워진다.

## 제3장

**때** 전장에서 며칠후 한낮

**곳** 윤지주네 집

**무대** 대청마루가 달린 큰 기와집인데 산골티가 나고 시대에 뒤떨어진 감을 준다. 담장에는 장독들과 꽃화분 몇개가 놓여있다.

무대 밝아지면

△ 지주 자전거바퀴에 바람을 넣고있다.

△ 지주처 부엌에서 나온다.

**지주처:** 여보, 여보. 마름은 어딜 갔수?

**지주:** 그 야학선생놈과 서분이 할애비를 끌어들라고 보냈소.

**지주처:** 내가 이 집 식모가. 어멈은 왜 집에 보내가지구. 오만가지 일을 내가 다 해야겠으니 병인들 어디 고쳐보겠수.

**지주:** 또 양양거린다.

**지주처:** 아이구 쏜다. (머리를 싸짖다.)

**지주:** 이것봐, 내 어제두 임자 신경통때문에 그 소문난 백발수염쟁이 한의를 찾아가 의논을 했어요.

**지주처:** 거짓말.

**지주:** 거짓말이면 내 생벼락 맞겠어.

**지주처:** 그래 그 한의가 뭐라구 했어요?

**지주:** 온천치료를 하는게 좋겠다더군.

**지주처:** 온천?

**지주:** 어디가 좋을가. 주을온천, 아무튼 바람두 쏘 일점 한번 갔다오지.

**지주처:** 내가 가면 당신시중을 누가 들구! 어멈두 집에 가구 없는데.

**지주:** 그렇게 살뜰하다구야. 아 소작인들이 잔뜩 되는데 부엌일 시킬년이 없을라구.

**지주처:** 당신 혹시 봉순이년을 데려다 부엌일을 시키려는게 아니야.

**지주:** 그렇게두 잔 걱정이 많다구야. (이마를 툭 때린다.)

△ 이때 빈 지계를 진 차돌이 들어오다 이 광경을 보고 킁킁거린다.

△ 윤지주와 지주처 아닌보살한다.

**지주:** 어힘.

**차돌:** 나무를 해다가 저 뒤마당에 부러났어요. 그럼 전...(나가려 한다.)

**지주:** 해왔으면 패놉야지. 저 헛간에 도끼가 있으니 다 패놉라.

**차돌:** 패까지요? 그럼 샅전을 내야 합니다.

**지주:** 뭐 샅전? 이놈, 너 누구의 땅을 부쳐먹구 사느냐? 응!

**차돌:** 아, 그러기에 소작료를 물지 않나요. 그러니 나두 샅전을 받아야지요.

**지주처:** 너 뉘앞에서 대꾸질이냐, 대꾸질이.

**차돌:** 그렇게 공짜가 좋으면 머슴을 둘것이지.

**지주:** 예끼 이놈.

△ 윤지주가 지팽이로 내려치려 하자 차돌 집뒤로 달아난다.

**지주:** 저너석두 야학에 다니더니 이마빼기에 뿔이 났는가. 찍하면 들이받으려구 하거든.

**지주처:** 정말 야단이에요. 이젠 무슨 일을 좀 시키자구 해두 저렇게 사리를 따지며 샅전을 받아 내려구 하니. 아, 글썽 저것들은 이젠 나를 봐두 인사두 제대로 안한다니까요. 염소새끼 나 그네 쳐다보듯 눈알만 데룩거리면서... 에그, 또 띠끔띠끔 쏜다.

**지주:** 그놈들이 그렇게 나오는게 다 야학때문이야. 농군들이란 그저 무식하고 몽매해야 부러먹기 쉬운데.

**지주처:** 그러기에 그놈의 야학을 꼭 없애버려야 해요.

**지주:** 췌, 두고보라구. 내 이제 단서를 잡아내서 그 야학선생놈을 감옥귀신 만드레니.

**지주처:** 그래 나까무라소장님이 도와주겠대요?

**지주:** 아무렴, 내 공연히 그 아까운 돈을 찢려주었을가.

△ 이때 《제십니까?》 하는 소리가 들린다.

**지주:** 음, 그 야학선생놈과 그령감이 왔는가보군. (위엄있게) 들어오게.



△ 그러나 달수만이 들어온다.  
△ 달수 윤치주에게 인사한다.

지주: 아니 달수 임자가 어떻게?  
달수: 저 주사님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지주: 달천이놈이 우리 마름한테 떼운 돈을 찾아달라고 왔나?  
지주처: 달천이놈이 투전하다 떼운 돈을 구장보구 찾아달래?  
달수: 저 그런게 아니라 주사님에게서 빚을 좀 내다 쓸가해서요.  
지주처: 돈?  
달수: 우리 어머니가 봉녀때문에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어제부턴 자리에 누웠습니다.  
지주: 하, 그것 참, 안됐구만. (방백) 봉순이년을 끌어오자면 저놈부터 손에 넣어야겠다. 그래 얼마면 되겠나?  
달수: 한 십원만.  
지주처: 아니?  
지주: (자기 처를 제지시키며) 어려운 때 이웃간의 정이란 말이 있지 않소. (돈을 꺼낸다.) 자, 받게.  
달수: 정말 고맙수다.  
지주처: (아니깝게 윤치주를 바라보며 부엌으로 들어간다.)  
지주: 그래 언제까지 물겠나.  
달수: 마당질이 끝나면 제격 물지요.  
지주: 좋아, 그럼 내 방에 들어가 계약서를 써가지고 나오지.

△ 이때 《제십니까?》 하면서 야학선생과 김로인 들어온다.

지주: 구장이 호출하면 인차 올게지 이제야 오나? 임자들은 제서 좀 기다리게. (방안으로 들어간다.)  
선생: 아저씨 이야길 들었습니다. 그래 돈을 꾸셨는가요?  
달수: 꾸었습니다.  
선생: 저 윤치주가 계약서를 가지고 작간을 많이 한다는데 그러다 혹시.  
달수: 너무 걱정하지 마시우.  
선생: 물론 어련하겠습니까만(계약서를 꺼내며) 아주머니의 부탁도 있구 해서 그러는데 제가 써드리면 어떨가요?  
달수: 사람을 보구 말하슈. 날 생각해주는건 고맙소만 나두 다 생각이 있소.  
김로인: 무슨 고집이 그리 센가? 일자무식인 형편에.  
달수: 원 형님두.  
김로인: 임자두 알지? 내가 그전에 글을 몰라서 돈 3원을 꺾쓰고 저놈이 30원이라고 쓴 빚 문서에 지장을 누른 죄로 평생 고생한걸.  
달수: 형님이 어수룩하니 속지, 눈알이 바루 배긴 다음이야 속긴 왜 속아요.

△ 윤치주 방안에서 나온다.

지주: (달수에게) 자네 게 좀 있게. (야학선생에게) 그래 임자들은 감옥귀신이 되고싶어서들 그러나?  
선생: 예?  
지주: 야학을 하겠으면 그저 글이나 읽고 쓰는것이나 배워주면 되지 무엇때문에 불온사상을 선전하나? 응?  
선생: 불온사상이라니요? 난 관청에서 승인한 교과서를 가지고 배워주었을뿐인데요.  
지주: 거짓말 말라구. 이 윤치흥이가 호락호락한줄 알아? 지금 나까무라소장님두 임자들을 단단히 버르고있어.  
김로인: 우린 잘못된게 없는데요.  
지주: 잘못된게 없다는 령감이 그따위 나쁜 창가를 부르며 돌아쳐.  
김로인: 나쁜 창가라니요.  
지주: 이 달수네 집 마당에서 불렀다는것말이야. 지주들이 어찌구 농군들이 어찌구 하는것말일세. 달수, 임자두 들었지.  
달수: 저...  
김로인: 예 생각합니다. 허달수 저 사람이 글공부 싫어하길래 야학에 나오라구 한마디 불렀수다.  
지주: 좋아, 바루 그 창가를 불러보란말이야.  
김로인: 예? 그런데 전 목소리가 나빠서...  
지주: 목소리나 듣자는게 아니야.  
선생: 한번 불러보십시오.  
김로인: (기침을 하고 노래를 부른다.)

하나이라면 하나이지 둘은 아니고  
둘이라면 둘이지 셋은 아니지  
셋이라면 셋이지 넷은 아니고

△ 담장밖에서 들여다보던 마을사람들이 웃는다.

지주: 그만, 그놈의 창가 끝이 있겠나?  
김로인: 수자가 끝이 없듯이 창가두 끝이 없지요.  
다섯이라면 다섯이지 여섯은 아니지.  
지주: 그만하란말이야.  
김로인: 예.  
지주: 달수, 그래 임자네 집에서 불렀다는 그 창가가 맞나.  
달수: 저...  
지주: 거짓말을 했다간 임자두 재미없어.  
달수: 저, 맞수다.  
지주: 맞는단말이지.  
선생: 주사님, 이젠 뵙니까? 여긴 경찰서가 아닌것 같은데요.  
지주: 난 이 마을 구장으로서 응당히...  
선생: 구장이면야 관청에서 승인한 야학사업을 응당 도와나서야지 형사처럼 따지기만 하면 뵙니까?  
지주: 뭐, 형사?  
선생: 구장님, 엇그제 《광명신보》를 보셨습니까? 강원도 산골 어느 마을 구장이 야학사업을 방해하다가 큰 봉변을 당했다는 기사가 제 2면에 이

만큼 낫더군요.

구장님이야 그렇게 돼서야 안되지요. 신문에  
날바에야 이렇게 나야지요.

《삼치골구장 윤치홍씨는 농촌계몽운동에 큰  
역할을 하는 야학사업을 돕기 위해 발벗고나  
섰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번 추석날에  
운동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구장님을 우리 야  
학후원회 회장으로 내세울가 합니다. 그러니  
돈을 좀 회사하시고 또 연설도 해주셔야 하겠  
습니다.

지주: 뭐, 내가 연설을 해?

선생: 예, 꼭 부탁드립니다. 로인님, 우린 어서 가십  
시다. 저 그럼... (나간다.)

담장밖에 있는 청년: 할아버진 노래를 참 잘 부  
르시는데요.

김로인: 허참, 수자풀이를 채 못하구 가네.

△ 담장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웃는다.

△ 야학선생과 김로인 나간다.

지주: 이놈들! (사냥총을 들고 담장밖 사람들을  
쫓아버린다.) 아니 저것들이! 좋다, 내 야학에  
다니는것들의 땅은 몽땅 땔테다.

달수: 아니, 땅을 떼다니요.

지주: 농사를 착실히 지을 생각은 하지 않구 저  
렇게 건들거리며 돌아치는데 내 가만있겠나?

달수: 땅을 떼면 우리 농군들은 다 굶어죽습니다.  
그러니 주사님께서...

지주: 임자처럼 그렇게 채심을 하구 농사를 착실  
히 지으면야 내 왜 그러겠나.

달수: 오늘 구장님이 한마디 했으니 정신들을 차  
리겠지요.

지주: (계약서를 꺼내며) 하긴 나두 화김에 그런  
건데 내 좀 생각해보겠네.

달수: 그럼 전 그렇게 알고 갑니다. (기뻐서 가려  
고 한다.)

지주: 어델 가? 자, 이렇게 계약서를 썼으니 여  
기다 손도장을 찍게.

△ 윤지주 달수에게 계약서를 준다.

달수: (계약서를 돌려주며) 미안하지만 이렇게 해  
선 안되겠습니다.

지주: 안되다니?

달수: 수고스러운데루 내가 부르는대루 써주시오.  
지주: 날 믿지 못해서 그러나?

달수: 그런데 아니라 그저 틀림없이 하자는게 지  
요.

지주: 좋아, 그럼 자네가 부르는대루 다시 씀세.  
(종이와 만년필을 꺼내고)

자, 그럼 어서 부르게. 그대로 적어넣을테니...  
계약서라.

달수: (손가락을 꼽아가며 부른다.) 나는 윤주사에  
게서 돈 십원을 꾸고

지주: (받아쓰며) 돈 십원을 꾸고

달수: 그 돈을 마당질한 다음에 물기로 한다.

지주: 아니, 임자 뭘 그러구있다.

달수: (손을 비비며)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제가 부  
르는대루 적었나요?

지주: 여부가 있다. 농민 허달수라. 여기다 손도장  
을 찍게.

달수: 나두 좀 봐야지요.

지주: 아니, 자네 글을 아나? (겹에 질린다.)

달수: 그래두. (글자수를 세여보고) 아니 여긴 왜 스  
물여섯잔가요. 난 스물아홉자를 불렀는데.

지주: 스물아홉자? 아니, 그럼 자기가 부른 글자수  
까지도 다 외우구있다? 임잔 정말 머리가 좋구  
만.

달수: (방백) 나한테만은 작간을 못해.

지주: 가만, 무슨 글자가 빠졌을가.

달수: 그럴것 없이 내가 다시 부를테니 맞혀나보시  
우.

지주: 뭐 다시 불러?

달수: 나는 윤주사에게서 돈 십원을 꾸고 그 돈 을  
마당질한 다음에 물기로 한다.

지주: 옳지, 《그 돈을》 요 세글자가 빠졌됐구만. 임  
잔 정말 군수자리에 올려앉혀두 되겠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게.

달수: (글자수를 세여보고) 됐수다.

지주: 자, 그럼 여기 이름밑에 손도장을 찍게.

△ 달수 손도장을 찍는다.

지주: 허, 계약서 한장 쓰는데 진땀이 다 나는군.

달수: 피차 일반이웨다. 그럼 전 갑니다.

지주: 잘 가게.

달수: 예.

지주: 이놈아, 네가 나한테 속지 않고 견딜상실이나.  
뭐, 스물아홉자라구? 그럼 어디 스물아홉자의  
글을 들어봐라.

《나는 윤주사에게서 돈 10원을 꾸고 그대신 봉  
순이를 부엌살이로 보낸다.》 하하...

△ 조금전부터 나와서있던 지주처 나선다.

지주처: 뭐, 봉순이년을 부엌살이로 데려와?

지주: 응? (당황한다.)

지주처: 응, 그래서 날더러 온천에 가라구 살살 꼬  
였구나.

지주: 아니, 여보.

지주처: 날 멀리 쫓아버리구 고년을 데려다 재미보  
자구? (대접의 물을 끼얹는다.)

지주: 아니야.

지주처: 뭐가 아니야. (계약서를 뺏는다.)

지주: 10원이 날아간다, 10원이.

지주처: 천원이라두 다 날아가라. (계약서를 막 구  
겨서 뺏개진다.)

지주: 아니 이게 미치지 않았어. (단장을 들고 때리  
려 한다.)

지주처: (내뺨다.)

△ 지주 따라들어간다.

△ 싸우는 소동.

△조금전부터 장작을 안고나와 흥미있게 구경하고 서있던 차돌 얼른 계약서를 집어든다.

**차돌:** 더러운놈들, 제 밋에 제가 걸렸구나.

△ 차돌의 움직임과 함께 무대는 홀러 다음장으로 변한다.

## 제4장

**때** 그날밤

**곳** 개울가

**무대** 버들가지가 늘어긴 개울가에 작은 나무다리가 건너갔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산마루에 걸렸는데 그 빛을 받은 개울물은 은빛으로 설레인다.

무대 밝아지면

△ 야학쪽에서 처녀들의 노래소리가 들린다.

△ 차돌 나오더니 잔디위에 앉아 계약서를 읽고 있다.

**차돌:** 야, 선생님이 어델 가셨을가?

△ 이때 봉순 책보를 끼고 나온다.

**봉순:** (차돌을 발견하고) 아니, 왜 거기에 앉았어?

**차돌:** 봉순이 큰어머니가 정말 복간도로 떠나가신대?

**봉순:** 응, 큰아버지가 오늘 운주사네 집에서 돈을 꾸어왔으니까 래일은 떠나가실게야. 왜 그래?

**차돌:** 이제 선생님이 오시면 봉순이에게도 다 말해주겠어.

**봉순:** (계약서를 발견하고) 아니 그게 뭐야? 어서 좀 보여줘. 어서!

**차돌:** 이거 (계약서를 들며) 아무것도 아니야.

**봉순:** 음, 그건 저기 강건너 돌배나무집 둘째딸에게서 온 쪽지편지가 아니야?

**차돌:** 뭐 편지? 하하하, 잘두 안다. 봉순이, 우린 야학에서 새것을 배운 청년학도들이야. 내가 아무렴 젊은 풍습에 빠져 나보다 나이가 우린 처녀에게 장가를 들가?

**봉순:** 정말?

**차돌:** 그럼.

**봉순:** 우린 아직 나이두 어리구 공부두 많이 해야겠는데 우리 부모들은 왜 우리 마음을 그렇게두 몰라주실가.

**차돌:** 난 우리 나라가 독립된 다음에 장가를 갈테야. 봉순인?

**봉순:** 나두.

**차돌:** 그래?

△ 기러기떼 날아간다.

**차돌:** 야, 기러기. (큰소리로) 기력아!

△ 음악이 흐른다.

**봉순:** 우리 나라가 정말 독립될가?

**차돌:** 되지 않구. 이제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우면 삼치끝이 눈을 뜨고 나중엔 온 나라가 눈을 떠서 힘을 합치면 빼앗긴 나라를 꼭 다시 찾게 될게야.

**봉순:** 그렇게만 되면 어떤 세상이 될가?

**차돌:**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던. 그땐 왜놈두 지주, 자본가두 없는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구.

**봉순:** 그날이 빨리 왔으면... 그때 차돌인 무얼 하겠어?

**차돌:** 나? 뭘할가? 난말이야 애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겠어.

**봉순:** 선생? 야!

**차돌:** 봉순인?

**봉순:** 나두.

**차돌:** 그럼 우리 약속을 하자구. 나라가 독립되는 그날까지 먼눈을 팔지 말구 부지런히 공부 하자겄.

**봉순:** 좋아.

**차돌:** 자, 그럼 약속한다.

**봉순:** 약속한다. 하하.

△ 차돌 봉순이의 손을 굳게 잡는다.

△ 조금전부터 삼단을 들고 나와서있던 달수 아연해진다.

**달수:** 뭐? 약속?

**차돌:** 예, 야학에서 배운것을 얘기하다가...

**달수:** 야학에서 그렇게 하했다고?... 예끼이!

△ 차돌과 봉순 기겁하여 달아난다.

**달수:** 음! 너희들이 그래서 기를 쓰고 야학에 다녔구나. 이거 동네가 야단났군.

△ 이때 부실 나온다.

**부실:** 아니 그게 봉녀 아버지 아니시우? 집의 형님이 래일 봉녀한테 떠나겠는데 이 밤중에 여긴 왜 앉아계시우.

**달수:** 그래서 신이나 한 뒤컬레 삼아보낼려구 삼을 얻으러 나왔다가 내 별꼴을 다 봤소.

**부실:** 예?

**달수:** 그런데 아주머닌 왜 나오셨수?

**부실:** 당장 마당질을 해야겠는데 가마니두 짜야지,

새끼두 꺾어야지, 고양이 손발두 빌려야 할 이 바쁜 철에 우리녀석이 야학에 나갔다가 들어와야지요. 그래서 지금 찾아나오는길입니다.

달수: 이자 방금 압전하게 잡니다.

부실: 그래요? 그녀석이 지름길로 갔구나. 난 큰길로 왔는데.

달수: 아주머니, 강건너 돌배나무집엔 가봤소?

부실: 요새 일이 바빠서 못갔습니다.

달수: 그만두시우.

부실: 아니 왜요?

달수: 아무래두 앞뒤집이 사돈을 맺어야 할것 같다.

부실: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시우? (생각끝에) 아니, 그럼 우리 차돌이녀석이 그 집 봉순이와?

달수: 봉순이 애비를 만나 의논해봐야겠군.

부실: 참, 아주머니, 그런데 봉순 아버지가 야학에 다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달수: 뭐요? 그 사람이 전번에 나한테 혼쌀이 난 다음부터 눈싸맨 당나귀처럼 수격수격 일만해요.

부실: 그래요?... 아주머니! 저기 오는게 봉순이 아버지가 아닌가요?

△ 이때 공책을 낀 달천 중얼거리며 나온다.

달천: 농민은 왜 못사는가? 왜 못사는가?

달수: (큰소리로) 못살긴 왜 못살아.

달천: 아이구, 형님두.

달수: 그저 농사군은 죽자구나 하구 일만 하면 굶어죽진 않아.

달천: 그렇게 토론해가지군 락제를 하겠수다.

달수: 뭐 토론? 하 이 사람 안쓰던 말을 한다.

부실: 그러게요.

달수: 자네 야학에 다닌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

달천: 네? (공책이 떨어진다.)

달수: 그게 뭐야?

달천: 형님, 야학에 나가보니 정말 좋습니다. 들을 소리두 많구 배울것두 많구.

부실: 그것 보시우. 내 말이 맞지 않나.

달수: 이 사람 정말 단단히 취했군.

달천: 예, 술에 취한것보다 글공부에 취하니 정말 별맛입데다.

달수: 야, 땅을 떼우구 살것 같애?

달천: 누가 땅을 떼요? 그 운주사가요? 우리 야학선생님이 그러는데 (선생을 발견하고) 마침 저기 오셨구만... 선생님, 어데 가셨습니까?

△ 야학선생이 들어온다.

선생: 예, 읍엘 좀 갔다가... 아니 그런데 왜들 그

러십니까?

달수: 마침 잘 만났소. 선생, 지금 마을이 어떻게 돼가는지 알기나 하슈? 선생은 이 삼치꿀을 어디로 끌고가자는거요?

선생: 제가 뭐 황소라구 끌고가겠습니까. 마을사람들이 스스로 바른 길로 가는게지요.

달수: 바른 길? 그래서 동네 풍기가 이렇게 어지러워지구있소?

선생: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달수: 내 얼굴이 뜨거워서... 그건 그렇구, 글을 배워주겠거든 제 이름 석자나 쓸수 있게 배워주면 됐지 왜 그 위험한 글까지 배워주고있소?

선생: 그건 위험한 글이 아니라 참된 글입니다.

달수: 뭐라구요?

선생: 아저씨, 글공부에도 뜻이 있어야 합니다. 뜻이 없는 순수한 글공부는 아무런 가치도 없지요.

달수: 거 신통히두 내 사위녀석과 같군.

부실: 허 참.

달수: 선생, 이제 그러다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기나 하우. 운주사놈이 야학에 다니는 사람들의 땅을 몽땅 떼겠다고 했단말ियो.

선생: 예?

달수: 내 그렇다구 야학을 아예 그만두라는건 아니요. 정 하겠거든 총각애들이나 데려다 할게지 말같은 처녀들과 아낙네들은 왜 끌어내면서 야단ियो?

선생: 아저씨.

달천: (참지 못해 나서며) 선생님, 거 우리 형님이 배운게 없구 든게 없어서 그러는데 내가 잘 깨우쳐주겠수다.

달수: (어이가 없어) 뭐? 네가 날 깨우쳐? 내가 너처럼 술을 마시더냐? 투전을 하더냐?

선생: 하, 이러시다간 형제간에 싸우겠습니까.

부실: (달수를 막아나서며) 아주머니, 저리 좀 비키시우. (달천에게) 아니, 형님이 야학선생에게 말씀하시는데 봉순이 아버지 왜 찢겨 끼어들면서 그러시우.

달천: 뭐, 찢겨? 아주머니, 차돌이가 야학에 다니면 응당 야학편을 들어야지 이럴 법이 어데있소?

부실: 뭐라구요?

△ 조금전 들어와있던 차돌과 봉순 그들에게 다가온다.

차돌: 어머니!

부실:(뿌리친다.)

달천: 아니 차돌이 보군 왜 그러슈?

봉순: 아버지!

달천: 봐라, 차돌인 우리 야학급장이웨다.

부실: 아니 내 아들 가지구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यो.

달수: 야, 이거 동네싸움이 붙는구나.  
부실: 밤낮 뒤끝방에 박혀서 투전놀음만 벌리던 사람이 되려 형님을 기갈하려고들어요? 흥... 소가 웃다가 꾸레미 터지겠수다.  
달천: 내 지난날엔 잘못 살아왔지만 아주머닌 거 고쳐야 해요.  
부실: 내가 뭘 고쳐요?  
달천: 그리구 형님두요.  
달수: 내가 뭘 고쳐?  
달천: 내친김에 툭 터놓고 얘길 합시다.  
달수: 하자. (마주앉는다.)  
달천: 형님은 거 뭐드라, 그 봉봉...  
김로인: 봉건.  
달천: 응, 그 봉건 고쳐야 해요.  
달수: 뭐 봉건. (달천의 이마빼기를 밀며) 야, 봉건이 뭐 말라죽은 귀신이나.  
달천: 형님은 거 모르면서 아는데하는 그 체병을 고쳐야 해요.  
달수: 체병, 난 너희들이 땅때우구 굶어죽을가봐 그런다.  
선생: 아저씨, 윤지주가 제 마음대로 땅을 떼지 못합니다.  
달수: 이 삼치골이 선생의 땅이요? 주인이 떼면 떼는거지.  
선생: 아저씨, 저 윤지주놈이 땅을 떼겠다구 으름장을 놓으면말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네놈의 땅은 안부친다.》 하구 일심동체가 돼서 《와》 하고 들구일어나면 제깃놈이 어디 가서 그 많은 작인을 한달한시에 데려오겠어요.  
일동: 옳수다.  
달천: 형님, 지난날엔 우리가 아는데 없어서 지주놈에게 속히우구 벌벌 떨면서 구박만 받구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선 안됩니다.  
김로인: 옳은 말일세. 여보게 달수, 한뎀 임자가 달천일 깨우쳤지만 이젠 달천이가 임자를 깨우치게 됐구만. 하하...  
달수: 뭐라구요? 이제 땅을 떼우구 죽는다 산다 하구 눈물이나 짜지들 말라구. 선생두 이제 후회하지 마시우. (나간다.)  
김로인: 저런 담벽이라구야. 흑때러 왔다가 흑 불이구 가는구나.  
달수: 뭐라구요? (덤벼들듯 내려오더니 삼단을 들고 나간다.)  
우리 로친을 떠내보내구 다시 봅시다.  
김로인: 나중에 보자는건 무섭지 않다, 원.

△ 달수와 부실 나간다.

차돌: 선생님, 어딜 갔었습니까? 정말 기다렸습니다.  
선생: 읍에 갔다 좀 늦었소.  
차돌: (계약서를 주며) 이 계약서를 좀 보십시오.  
선생: (읽어보고) 음, 로인님, 이걸 좀 보십시오.

돈 10원대신에 봉순이를 부엌살이로 데려간다고 썼구만요.

김로인: (계약서를 읽고) 아니 이놈이... 죽일놈같은 나라구. (선생에게로 다가가서) 우리가 지주집에서 그만큼 타일렸건만... 나두 다 생각이 있다구 왕고집을 부리더니 끝내 속아넘어갔구만요.

선생: 그 계약서를 잘 간수해두십시오.

김로인: 알겠수다.

△ 흐름막이 지나간다.

△ 그들 막앞으로 나온다.

선생: 로인님, 우리가 달수아저씨를 잘 도와주어야겠습니다.

김로인: 암, 그래야지.

△ 그들 이야기를 나누며 나간다.

-무대 어두워진다-

## 제5장

때 전장에서 이틀후

곳 달수네 집

무대 1장과 같다.

무대 밝아지면 아침이 지났을무렵

△ 나들이차림을 한 조씨 부엌에서 나와 토방우에 놓인 보따리에 떡꾸레미를 넣고 다시 꾸린다.

조씨: 아니 이 령감이 어딜 갔나? 빨리 떠나야겠는데...

△ 조씨 안으로 들어간다.

△ 이때 양복입은 만복이 두리번거리며 들어온다.

만복: 이 동네가 틀림없는것 같은데... (집앞으로 내려오며) 가만, 그 아저씨 이름이 뭐라더라? 김... 김 뭐라구 했는데. 옳지, 그 전라도친구가 적어준게 있지. (주머니에서 종이쪽지를 찾아내고) 여기에 있구나! (쪽지를 보며) 빌어먹을, 글을 모르니 뭐라구 썼는지 알수가 있다. 젊은놈이 창피하게 이걸 내뭇수도 없구... 예라, 그저 김서방이라구 해두 알겠지.

△ 이때 처녀들 웃으며 들어온다. 만복을 발견하고 어색해한다.

만복: 저, 아가씨들, 미안하지만 말 좀 물읍시다.

△ 처녀들 얼굴을 붉히며 외면한다.

처녀1: 뭔데요?

만복: 여기가 삼치골이지요?

처녀1: 네.

만복: 이 동네에 김서방이 살겠는데 어느 집인지 모르겠소?

처녀1: 김서방이요? 이 동네엔 김가성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요.

만복: 그래요? 그 아저씨의 이름이 김 뭔데...

처녀2: (처녀3에게) 김 뭔데? 뭔데라는 사람은 없지?

만복: 아니, 아니, 성은 김간데 이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쪽지를 주머니에서 꺼내며) 참, 내가 이름을 여기서 적어놨는데, 이 사람입니다. 그만 안경을 두고와서...

처녀2: (받아본다.)

△ 처녀1, 3도 함께 본다.

처녀2: 어디 흘려써서 알겠니?

처녀3: 김... 이게 김달랑이가 아니야?

처녀2: 김달랑?

처녀1: 너무 흘려써서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복: 살림이 구차해서 겨울이 오면 이따금 목재소에 돈벌이 오는 집인데... 저 그 집에 얹전이라는 딸두 있구요.

처녀3: 그럼 저 아래마을에 사는 얹전이네가 아니야?

처녀2: 가넌 이사를 갔지.

만복: 예? 얹전씨가 시집을 갔다구요? 언제 갔습니까?

△ 처녀들 웃는다.

처녀1: 저, 시집이 아니라 이사를 갔습니다.

만복: 네? 이사요? 그런걸 난 또. 저, 어디로 갔습니까?

처녀1: 저기 돌각담이 보이지요. 그 집에 가서 물으면 알수 있을거예요.

만복: 고맙수다. (짐을 들고 나간다.)

△ 처녀들 참았던 웃음을 터뜨린다.

처녀3: 저 사람 정말 별나다야. 양복쟁이가 글을 모르다니.

처녀2: 안경을 두고 왔다질 않니...

처녀1: 요 새침데기가 그 양복쟁이한테 반한게 아니야?

처녀2: 너 정말. (달려든다.)

△ 처녀들 웃으며 달려나간다.

△ 꿀병을 든 달수 들어온다.

달수: (처녀들에게) 조잘대긴 젼장. (마당에 내려서며) 여보!

△ 조씨 나들이차림으로 나온다.

조씨: 그건 뭐요?

달수: 꿀이요. 산후에 이게 좋다기에 내 한병 얻어왔소.

조씨: (꿀병을 받으며) 이걸 봉녀가 먹게나 되겠는지?

달수: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조씨: 자꾸만 걱정이 돼서 그래요.

달수: 먼길 떠나면서 그런 새망없는 생각을 하면 못씨요.

조씨: 그러지 말자구 하면서두...

달수: 그런데 봉순이넌 아직 안왔소? 당신을 좀 바래주라고 했는데.

조씨: 야학을 크게 고쳐짓는다면서 읍에 모다구를 사려 보냈답니다.

달수: 야학을 고쳐져?

조씨: 추석날 장군들처럼 야학생들이 자꾸만 붙어서 이젠 집이 좁아졌다나봐요.

달수: 모를 일이다... (토방에 앉으며) 망할년. 편지라도 한장 보냈으면 웅담이요, 계약서요 하구 이렇게 부산을 피우지 않지.

조씨: 그런데 여보, 그 계약서인지 뭇지 얹만 생각해두 게름직해요.

달수: 당신이 뭇 안다구 그래. 스물아홉자에 대한 내막을 알기나 해.

조씨: 스물아홉자요?

달수: 임자같이 무식한 사람은 생각두 못해.

어머니: 아니 왜 아직 꾸물거리구있는거냐.

조씨: 이제 떠나겠어요.

어머니: (방문을 열고) 가거든 잊지 말구 전해라. 이 늙은게 눈감기전에 꼭 한번 왔다가란다구.

조씨: 네, 어머니, 몸조심하세요.

△ 이때 석유장사가 들어온다.

석유장사: 오늘은 이 댁 주인들이 다 계시는것 같군요. (조씨의 짐을 보고) 아니 어디루 가시려는가요?

달수: 예, 우리 로친이 딸네 집엘 좀...

석유장사: 음, 그 편지를 받아보시구?!... 며칠전에 이 댁에 오는 편지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달수: 편지요?

석유장사: 아니 아직 받지 못하셨습니다. 북간도에 사는 따님이 인원에 보내온건데.

달수: 아니, 북간도에 사는 우리 딸에게서요?

조씨: 우리 봉녀한테서요?

달수: 그게 틀림없는가요?

석유장사: 예, 늙으신 어머니께 드렸는데...

달수: (생각난듯) 저 깨알같이 박아쓴건데 봉투에 넣지 않은?

석유장사: 예, 봉투에 넣지 않은 편지지요.

달수: (달려가 방문을 열고 문짝을 가리키며) 이게

그 편지가 아닌가요?

석유장사: (다가가서) 이거 꺼꾸로 붙여놔서 어디 알겠소. (머리를 꺼꾸로 하고 본다.) 음! 바루 이 편지외다.

달수: 아이쿠. (이마를 친다.)

석유장사: 그런데 이거 어떻게... 아, 저 할머니가... 하하, 저렇게 붙어있는것만 해두 다행이외다.

△ 이때 배사공 지나간다.

배사공: 석유장사, 먹장구름이 밀려오는데 뭘 꾸물거리구있나. 빨리 강을 건느세.

석유장사: 아이쿠, 같이 갑시다. (나가려다.)

달수: 선자리에서 가시는군.

석유장사: 다음번에 또 들리지요. 편안히 계시우.

달수: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 석유장사 흥얼거리며 나간다.

조씨: (문짝을 쓸며) 봉녀야, 네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온것두 모르구.

△ 조씨 문짝에서 편지를 떼내려 한다.

달수: 하, 그러다 편지 찢겠다. 여보, 어서 식칼을 가져오우... 음, 어머니가 마침 주무시는군!

△ 달수 문짝을 통채로 떼낸다.

달수: 망할년, 우리가 네 소식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기나 하느냐. (문짝을 어루만진다.)

△ 조씨 식칼을 들고 급히 나온다.

조씨: 여보.

△ 달수 종이를 떼내려고 한다.

조씨: 좀 조심조심 하슈. 그러다 편지 찢겠수다.

△ 달수 손을 떨며 조심스럽게 편지를 베여낸다.

어머니소리: 아니, 문짝은 왜 떼가지고 야단들이냐. 난 몸살나서 이불을 덮고있는데.

조씨: 어머니, 봉녀한테서 소식이 왔어요.

어머니: (문을 열며) 뭣이 왔대구?

달수: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이며) 봉녀한테서 이렇게 편지가 왔수다.

어머니: (이마에 동여뒀던 천을 풀어버리며) 우리 봉녀한테서? 칠성님이 보살폈구나. 그래 뭐라구 왔니? 별고없이 잘 있다더냐?

달수: 잘 있기에 이렇게 편지가 왔지요.

조씨: 여보, 읽어보지두 았구 어떻게 아우. 무슨

불상사라두 생겼는지!

달수: 아뿔싸, 석유장사더러 봐달라구 할걸.

조씨: 벌써 강을 건너갔겠수다.

어머니: 아니 왜들 그러느냐. 우리 봉녀가 어떻게 되었다더냐.

조씨: 어머니, 우리두 아직 편지를 못봤어요.

어머니: 왜 못봐?

조씨: 글을 알아야 보지요. (뒤적거린다.)

어머니: 에이구, 이 못난것들, 제 딸자식한테서 온 편지두 하나 못본단말이나.

달수: 어머니, 좀 가만계시우.

조씨: 가만있으면 글을 배워가지구 읽겠소.

달수: 자 이런. (편지를 빙빙 돌리기만 한다.)

조씨: 아이구, 답답해라. 왜 편지를 망썩돌리듯 빙빙 돌리기만 하슈! (편지를 가로채여 안타까운듯 뒤적거린다.)

달수: 차차... 도깨비 기와장 뒤지듯 벌컥벌컥 들추긴 제길. ...

조씨: 봉순이한테 가봐야겠수다.

달수: 그 애는 읍에 갔다고 하지 았았소.

조씨: 그럼 야학선생한테 가서 읽어달라구 합세다.

달수: 점점 한다는 소리가.

조씨: 그러게 야학에 다녔으면 이런 답답한 일은 없지요.

달수: 가만있소. 내가 래일 읍에 나가서 봐달라구 하겠소.

조씨: 그것두 말이라구 하슈? 차라리 밤송이를 끼구있는게 낫지. 그 편지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지두 못하구 밤을 새겠단말이요.

어머니: 너희들이 이 에미 간말라 죽는걸 보고싶은 모양이구나.

달수: 어머니, 몸두 편치 았으신데 좀 가만히 계시요.

조씨: 차라리 큰길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봐달라구 하겠수다.

어머니: 그게 좋겠다.

달수: 내가 나가자. (편지를 빼앗아들고 나간다.)

조씨: 여보, 같이 갑세다. (뒤따른다.)

△ 이때 방창이 열린다.

제 혼자만 안다고 으르더니  
어둠속을 헤매며 땀흘리네  
야학방 곁에 두고 오리 십리  
길가던 사람에게 굶신굶신  
삼치꿀 저 아저씨 글동냥 하네

체병이 큰 병인줄 몰랐을가  
깊은 한숨 쉬어도 소용이 없네  
앞산의 빼꾸기도 빼꼭빼꼭  
령감님 한심하다 빼꼭빼꼭  
까막눈이 불쌍하다 동정을 하네

△ 그들의 움직임과 함께 방창이 울리며 무대는

흘러 큰 행길로 변한다.

△ 이때 명주바지저고리를 입은 사나이가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데 의사가 따르고있다. 달수가 의사에게 편지를 보이며 사정한다. 의사가 편지를 받으려 하자 가방을 든 사나이가 회중시계를 보이며 뭐라구 말하더니 의사를 앞세우고 나간다.

△ 사람을 태운 인력거가 분주히 가고있다. 편지를 든 달수가 마주 달려오며 두손을 들더니 인력거우에 탄 사람에게 편지를 보이며 간청한다. 인력거우에 탄 사람은 시끄럽다는듯 개화장으로 밀쳐버린다. 달수는 벌렁 넘어지고 인력거는 떠난다. 뒤로 들어온 조씨가 달수를 일으킨다. 달수는 인력거가 나간쪽을 향해 주먹질한다.

△ 달수와 조씨 실망하여 맥없이 움직일 때 무대는 흘러 다시 달수네 집으로 변한다.

△ 흰 두루마기를 입고 중절모를 쓴 소경이 지팡이를 더듬으며 들어온다.

소경: 가만, 여기 어디 삼치골 박우물이 하나 있겠는데... (귀를 기울이고) 졸졸졸. 옹지, 제대루 찾아왔구만.

(손더듬으로 우물을 확인하고) 음, 여기 바가지도 있구나.

(히죽이 웃더니 물을 떠마신다.) 어! 물맛 참 좋다.

△ 까치가 지붕우에서 운다.

소경: 오냐, 너무 반가와말아. 난 저기 가재골에 가서 목을 나그네다. ... 었어진김에 쉬여간다구 담배나 한대 태우구 가자! (담배를 붙여문다.)

(우리가 운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해가 쨍쨍하더니 무슨놈의 날씨가 찌뿌둥한게 한소나기 부으려나. (우뢰소리)

△ 이때 어깨가 처진 달수와 조씨가 들어온다.

조씨: (소경을 발견하고)여보...

달수: 허, 이런 선비를 옆에 두고 공연히 헤맸군. (헛기침을 하고 소경에게 다가간다.)이거 초면에 안됐습니다면 이걸 좀 봐주실수 없을까요? (편지를 내어민다.)

소경: 예, 뭐데요?

달수: 집 나간 딸에게서 온 편진데 글을 몰라서...

소경: 예, 그러니 그 편지를 저더러 읽어달라 그 말씀인가요?

달수: 예.

소경: 하, 사람을 잘못 봤소이다.

달수: 잘못 보다니요?

소경: (돌아서며) 전 앞못보는 소경이외다.

달수: (놀라며) 예?! 이거 안됐수다.

소경: 로인님, 편지를 못봐드려 제가 오히려 죄송하웨다.

△ 달수 소경을 부축해준다.

소경: (담배불을 끄고 일어서며) 이 길이 가재골로 가는 길이 틀림없지요?

달수: 예, 이 길을 타구 가시다가 고개 하나를 넘어 왼쪽으로 빠지면 됩니다.

소경: 고맙쥬다. (지팡이를 더듬으며 나간다.)

달수: 아, 넘어지겠수다.

소경: 괜찮습니다. (중얼거리며 나간다.)

달수: (동정어린 어조로) 음, 아깝다. 신수가 멀쩡한 사람이 앞을 못보는군. 쫓쫓...

조씨: 아이구, 쪽박든 거지가 차루든 거지를 나무람한다더니...

달수: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조씨: 눈뜨고도 못보는 주제에 눈먼 소경을 동정하니말이웨다.

달수: 음, (말문이 막혀 언덕으로 오르려다가) 가만, 저기 양복입은 젊은이가 오는구만.

조씨: (달려가본다.)

달수: 이번엔 당신이 좀 봐달라구 하오. (편지를 준다.) 어서.

조씨: 이번엔 또 병어리를 맞다드는데 아니요.

△ 잠시후 만복이가 두리번거리며 나온다.

조씨: 저, 젊은 량반!

만복: 예? 절 찾았습니까?

조씨: 바쁜길이 아니면 부탁 좀 합세다.

만복: 무슨 일인데요. 어서 말씀하십시오.

조씨: 저, 우리 딸이 먼 복간도루 시집을 갔다우.

만복: 예.

조씨: 그런데 반년이 넘도록 소식에 없다가 글썽 오늘에야...

달수: 야, 말두 많다. (조씨에게서 편지를 빼앗아주며) 저, 미안하지만 이 편지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복: 편, 편지요?

달수: 예, 수고스러운대루... 좀... (편지를 준다.)

만복: (편지를 받아들고 난처해하며) 자, 이거 남의 편지를 함부로...

달수: 남의 편지라니요? 일없습니다. 역시 공부한 사람은 레절도 바르거든.

조씨: 우리가 이제야 귀인을 만났수다.

만복: (방백) 자, 이거 젊은놈이 창피하게 글을 모른 다구두 할수 없구. 저, 사실 난 편지를...

달수: (편지를 주며) 자, 젊은이에게 온 편지로 아시 구 어서 읽어주시우.

만복: 허, 이거 점점...



△ 조씨 프락에 멍석을 편다.

조씨: 여기 좀 편히 앉아서.

만복: 아니, 여기두 좋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며 동정을 살핀다.)

조씨: 여보, 우린 저기 앉아서 들읍시다.

달수: 그러자구.

△ 달수와 조씨 토방에 나란히 앉는다.

만복: (방백) 이거 정말 범의 꼬리를 잡은 격인데.

달수: 좀 크게 읽어주시우.

조씨: 크게 읽어주시우.

만복: 예? 예.(돌아서며) 남의 사정은 모르구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젊은놈이 글을 모른다고 할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한다?

조씨: (달수에게) 지금 저 젊은이가 편지를 읽는 거요?

달수: 보채지 말라구요. 분별있는 사람이라 기쁜 소식인지 슬픈 소식인지 속으로 먼저 읽어보구 우리한테 크게 읽어주자는거야.

조씨: 예. (머리를 끄덕인다.)

만복: 이렇게 노상 들구만있을수도 없구. 어떻게 피할순 없을가? (달수에게) 저, 편지를 조금 있다 읽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달수: (놀라며) 아니, 왜 그러십니까?

만복: 내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 상동마을에 제격 갔다와서 꼭 읽어드리겠습니다.

달수: 사정이 그렇다면 왔다갔다 할것없이 내가 따라갈테니 거기 가서 읽어주시우.

조씨: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만복: 가만, 이러지들 마십시오. (방백) 아이구 야, 도망칠수도 없구나.

달수: 예?

만복: 아, 아닙니다.

달수: 그럼 제격 읽어주시우. 부탁입니다.

조씨: 이 은혜를 잊지 않을테니 빨리 좀 읽어주시우.

△ 그들 한편에 가서 다시 앉는다.

만복: (편지를 보다가 기가 막혀 가슴을 친다.) 야, 제 나라 글도 볼줄 모르는 까막눈이 되다니. ... 아이구, 내 팔자야.

조씨: (달수에게) 아니 팔자가 어떻게 됐다우?

달수: 뭐? (만복을 본다.)

만복: (제 설움에 한숨을 쉰다.)

조씨: 한숨까지 쉬는걸 보니... 응? 우는게 아니요?

달수: 운다구?

만복: 아버지, 날 왜 이 꼴루 만들고 가셨나요. (눈물을 흘린다.)

조씨: 뭐라구 찢기에 저러누?

만복: 이 피로운 사연을 그대루 말할수도 없구.

달수: 여보시오, 그대로 말해주시우. 그대루!

만복: 저, 사실은... (말하려다가 그만 돌아서 운다.)

조씨: 아니, 그럼 우리 봉녀가? 아이구, 봉녀야! (갑자기 통곡한다.)

달수: 이날이때껏 소식 한장 없더니... 내 무슨 일이 날줄 알았다. (운다.)

△ 이때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온다.

어머니: 아니, 왜들 그러느냐? 왜들 그래?

조씨: 아이구, 어머니, 봉녀가 잘못됐대요. 애고고 ...

어머니: 뭐라구? (멍석우에 주저앉으며) 우리 봉녀가 잘못되다니. 이이구, 칠성님두 무심하구나. 어이구.

△ 저마다 자기 식으로 운다.

△ 만복 당황하여 어쩔줄 모른다.

만복: 이러지를 마십시오. 야, 이거.

조씨: (울면서) 먹을것두 못먹구...

어머니: 입을것두 못입구.

달수: 타향에서 잘못되다니, 어이구. (땅을 친다.)

△ 부실 눈이 등그래서 들어온다.

△ 만복 부실이를 보자 더욱 당황하여 편지를 놓고 짐도 못가진채 슬그머니 달아난다.

부실: 형님, 왜들 이러시우?

조씨: 나두 모르겠네. 아이구, 봉녀야!

부실: (자기도 갑자기 통곡한다.) 에이구나!

△ 일동 다시 우는데 어머니가 기겁을 했는지 토방에 쓰러진다.

부실: (달려가 부축하며) 어머니, 어머니... (주물러 준다.)

달수: 어머니, 어머니.

△ 달수 바빠 우물에 가서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온다.

△ 이때 야학선생을 비롯한 야학생들과 마을사람들 일하던 차림으로 들어온다.

김로인: 아니 이거 왜들 이러나.

조씨: 우리 딸이 잘못됐수다.

김로인: 무슨 기별이라두 왔나요?

조씨: 저 편지가...

김로인: 편지?

선생: (편지를 집어들고) 허봉녀라. 따님이지요?

조씨: 예,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외다 (다시 운다.)

부실: 예그나. (당달아운다.)

김로인: 아, 가만들있으라구.

선생: 그런데 이 편지를 누가 봤습니까?  
 조씨: 저, 젊은이가...  
 김로인: 젊은이라니?  
 조씨: (없어진것을 발견하고) 방금 있었는데 어딜 갔나?  
 달수: 뭐가 좋아서 초상난 집에 오래 있겠소.  
 김로인: 아니, 그런데 편지가 왜 이 모양인가. 까마귀가 뜯어먹은것처럼.  
 조씨: 저, 사실은 그게 못쓰는 종인가 해서 저 창구멍을 막았댔수다.  
 선생: 음, 무슨 곡절이 있었군요. 봉순학생, 이 편지를 읽어드리시오.  
 봉순: 제가요?  
 김로인: 어서 읽어보려무나.  
 봉순: 그런데 앞에는 다 찢어져서...  
 달천: 보나마나 처음에야 《기체후 일향만강하옵니까?》 하구 썼겠지. 어서 크게 읽어라.  
 봉순: (편지를 받아 읽는다.) 《부도님결을 떠나 반년이 넘도록 소식 한장 전하지 못한 이 딸자식을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도 근심하시던 그이가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무사히 나왔습니다.》  
 달천: 형님, 어머니- 조카사위가 감옥에서 나왔대요. (어머니를 데려다 앉힌다.)

△ 일동 설레인다.

달수: 그래 그다음은 뭐라구 썼니?  
 김로인: 뭐라구 썼는지 보라구 줘라.  
 달수: 형님두 참.  
 봉순: (웃으며 편지를 선생에게 준다.)  
 선생: (편지를 차돌에게 주며) 차돌학생, 읽으시오.

△ 차돌 읽는다.

차돌: 예. 《그래서 우린 지금 오가자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이는 지금도 굴함없이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한몸바쳐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 아저씨, 아저씨 정말 훌륭한 사위를 두셨습니다.  
 차돌: 《그래서 전 그이를 돕자고 결심하고 야학에 다닙니다. 야학은 참 좋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야학에 다니시는지요?》  
 조씨: 오냐, 난 다니구싶어두 너의 아버지때문에 못나간다.  
 달수: 로친두.  
 선생: (차돌에게서 편지를 받고) 여기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곁으로 가서 코

게 읽는다.) 《아버지, 어머니. 전 얼마전에 애기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조씨: 우리 봉녀가? 아니 그래 뭘 낳았다우?  
 달수: 에이구, 덤비긴.  
 선생: 《모두 떡돌갈다구들 해요.》 사내애랍니다.  
 달수: 조씨: 아들?!  
 어머니: 애들아, 하두 오래 사니 증손자두 봤구나.  
 조씨: 선생님, 세상에 이런 경사가 어디 있소.  
 부실: 이런 경사가 어디 있소. (당실거린다.)  
 동리로인: 허달수네 집 경사로다. (춤을 춘다.)

△ 모두 《경사로다》, 《좋다》 하며 웃는다.

선생: 이런 기쁜 소식이 왔는데 왜들 울었습니까?  
 조씨: 선생님, 사실은 지나가는 젊은이에게 봐달라구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봉녀가 죽었다기에...  
 달천: 저런 나쁜놈, 형님이 글을 모른다구 골려주었구만요...

△ 모두 격분하여 응성댄다.

만복: (짐을 가지고 피해나가다가) 아니, 이건 너무 합니다. 내가 언제 죽었다구 했습니까?  
 달수: 그럼 남의 편지 보구 왜 울었소?  
 조씨: 왜 울었소?  
 만복: 이왕 망신한바에 내 툭 털어놓고 말하겠수다. 사실은 앞길이 구만리같은 젊은놈이 살림이 구차해서 로동판으로 떠돌아다니며 글 한자 배우지 못해 편지 한장 봐드릴수 없는 형편이라 내 처지가 하두 가련하구 기가 막혀서 울었습니다.  
 부실: 옳아, 그러니까 형님이 지레짐작하구 울었구만요.  
 선생: 그런데 아주머닌 왜 울었습니까?  
 부실: 나야 모두 울어대니 우는 마당인가 해서 울었지요.

△ 모두 웃는다.

선생: 그것 보십시오. 모르면 그렇게 남의 풍에 놀게 됩니다.  
 만복: (달수에게) 이거 안됐습니다. 배우지 못한 탓에 그만...  
 달수: 같은 처질세. 나두 글을 모르다나니 딸에게서 온 편지를 문짝에 붙여놓고 소식 올 때만 기다렸으니.  
 김로인: (호주머니에서 계약서를 꺼내고) 그렇지, 임자는 운주사놈한테 속지 않겠다구 스물 아홉자라는걸 생각해냈네만 이걸 보라구. 그놈이 뭐라구 적어놓았다. (읽는다.) 《나는 운주사에게서 돈 10원을 꾸고 그대신 봉순이를 부엌살이로 보낸다.》

달수: 뭐라구요?

△ 모두 격분에 떠난다.

달수: (계약서를 와락 찢으며) 내가... 내가 눈뜬 소경이었구나. 눈뜬 소경!!...

달천: 형님... 봉순아!

봉순: 아버지!

달천: 이거 큰일날뻔했구나!

김로인: (심중히)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래두 모르면서 아는체하다가 바보가 되는걸세. 자칫하면 봉순이를 운주사놈한테 팔아넘길뻔하지 않았나.

달수: 선생님, 이 못난놈을 용서해주시우. 내 진작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드라면... (목메여운다.)

선생: 아저씨, 사람은 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애국심이 생기고 원쑤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게 됩니다.

달수: (조씨와 부실에게) 여보, 아주머니, 우리모두 야학에 나갑시다.

조씨, 부실: 나갑시다.

김로인: 허, 이젠 야학방이 차고넘쳐서 임자들이 올 자리가 없네.

달수: 형님, 자리가 없으면 우리 집 명석을 가지고 나가 야학마당에 앉아서라도 배워야겠수다.

△ 모두 웃는다.

선생: 여러분, 이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니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우린 배워야 합니다. 발달하지 못하면 백성도 나라도 망하고 맙니다. 우리 백성들이 개명하지 못했기때문에 남의 노예가 되어 짓밟히고 천대받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가 문명치 못한탓에 남에게 먹히우고말았습니다. 그러니 독립된 제 나라에서 진정 사람답게 살자면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 나라찾는 길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광명이고 아는것이 힘입니다.

달수: 아는것이 힘이랴! 봉녀야, 내 글을 배워 내 손으로 꼭 답장을 쓰마.

△ 종소리가 은은히 울린다.

소녀: 선생님, 야학종이 울립니다.

선생: 자, 그럼 우리모두 야학으로 가십시오.

모두: 예.

△ 방창이 열린다.

산천에 울려가는 야학의 종소리  
새날의 언덕으로 모두 부르네  
겨레여 눈을 뜨자 지식은 광명  
배우며 뜻을 합쳐 나라를 찾자

△ 그들의 움직임과 함께 야학으로 가는 행길로 변한다.

△ 태양이 눈부시게 빛을 뿌린다.

△ 모두 희망찬 걸음으로 움직일 때 막이 내린다.

-끝-

# 이 땅우의 모든 기쁨이

허수산

이른아침 문득 출근길에서  
조국의 또하나의 경사를 알리는  
방송원의 흥분된 목소리 들을 때도  
내 먼저 하는 생각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어린 소년 소녀들이  
은반우의 혜성으로  
조국의 명예를 떨쳤을 때도  
이 마음 얼마나 설레었던가  
크게 기뻐하실 수령님의 모습 그리며

아, 언제부터였던가  
이 땅우에 태어나는 모든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기전에  
아버이수령님의 기쁨으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바란것은

한평생 인민을 위하시는길에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슬픔  
한몸에 안으시면서도  
인민앞에서는 늘 밝으신 모습으로  
나서시는 우리 수령님

인민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시는  
자신의 수고로움은 다 잊으시고  
인민이 창조한 작은 기쁨 두고서는  
10년은 젊어진다고 하시는 우리 수령님

아, 이러하신 우리 수령님께  
단 한줄기 기쁨도 드리지 못한다면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보람  
그 어디에 있으랴

날을 따라  
더해만 가는 이 마음  
보이잖는곳에서  
하나의 작은 일을 해도  
수령님께 기쁨 드릴 생각  
그것으로 마음은 하냥 부풀거니

바라건대  
이 땅의 순간순간에서  
새라새로운 경사가 태어났으면  
어데신가 발전소가 조업을 앞당긴 소식  
새로운 발명을 했다는 소식

정녕  
이 땅우에  
별처럼 태어나는 모든 기쁨이여  
오직 그이께로만 향하라

인민을 위한  
힘하고 먼 혁명의 길에서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 내린 수령님께서  
더 젊어지시게  
영원히 젊어지시게

이 간절한 소원을 안은  
인생은 결코  
덧없이 흘러가지 않으리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영원히 피고피리라

## 삶의 환희

황명성

세상 산해진미를 다 모은대도  
그것과는 비기기조차 못하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그 하많은 환갑상에는

황철의 공훈용해공 안주의 영웅탄부뿐이라  
문단의 시인도 교단의 학자도  
감격에 목매여 받아안던  
사랑의 환갑상

한생 해놓은 일보다  
그길에 바쳐온 충성보다  
받아안은 은정이 너무 커서  
고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감사의 말

후덥게 불을 적시는 맑은 이슬이  
천백마디 감사의 말을 대신하는가

행복에 젖어 빛나는 그 눈빛이  
영광의 나날을 더듬어라

꽃피는 봄날의 태양처럼  
우러러 뵈웁던 그이의 영상  
미소 지으시며 다정히 손잡아주시던  
자애로운 그 손길

그 어디나 일터에 오시면  
작은 성과도 찾아 못내 기뻐하시고  
그 누구든 귀밀에 흰서리를 보시면  
이제 더 늙지 말라 간곡히 이르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품에 안아  
영광을 준 전사 그 얼마인데  
일일이 그들의 생일도 다 기억하시고

친히 환갑상까지 보내시는 그이

고마워 그 은정 고마워  
흐느끼며 환갑상을 받아안은 마음속엔  
터질듯 복받치는 삶의 환희  
다시 젊음으로 소생하는 심장의 박동소리

머리는 희였어도 생의 말년까지  
청춘의 푸른 마음 설레게 하는 사랑  
혁명대오속에 향기질은 꽃송이로  
영원히 피여주는 은혜로운 사랑

그것이 오직  
우리의 생명이기예  
그이를 모시는 길에서는  
누구나 청춘이여라!

## 조국해방과 함께

홍준성

나는 해방동이  
조국광복의 환호성을  
생의 첫 숨결로 호흡한  
나는 행복한 세대

이 땅우에 시작된  
새력사의 세월과 함께  
조국이 주는 사랑의 단젓을 물고  
생의 첫걸음 옮긴 사람

시련의 그 나날에도  
전선 멀리 불밝은 창가에서  
포성의 무서움을 모르고 푸른꿈 키운  
아, 진정 조국해방과 함께  
걸어온 내 삶의 행복한 추억이여

철없던 그 시절  
들꽃을 꺾어 안고  
전선으로 떠나는 아버지와  
동네어른들을 배려주었고

축복의 꽃보라를 줄이 벌게 쥐고  
피로써 열어준 경축의 광장으로  
기쁨만을 안고 달려갔던 세대

그때문이 아닌가  
내 생의 첫 고고성을  
기쁨으로 지켜준 그날부터

내 뛰논 그 마당가에  
꽃향기 넘치게 실어다준 사랑앞에  
내 바치는 진정이  
언제나 모자라는것만 같은 마음

내 어린시절에 미처 다 몰랐던  
값높은 사랑에  
내 한생 다 바쳐 보답하리라  
맹세도 새롭던 전호숙의 그 나날에도

바다를 밀어낸 간척지마다에서  
고향에 편지를 쓰며  
가슴실레던 그 밤에도  
조국은 크나큰 사랑의 품에  
나를 안아키웠으니

시름없는 가슴우에  
훈장메달 번쩍이며  
작은 위훈으로 자신을 위안하며  
내 그 사랑앞에  
응석부린적은 없던가

나는 해방동이  
조국해방과 함께  
행복한 세월속에 나이먹은 세대  
그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해질 마음  
언제나 시작에 있는것이여라

# 그이는 주체

데브 라즈 카르키(네팔)

누가 나에게  
그이를 잘 아는가고 물으면  
내 선뜻 대답하리  
그이를 잘 이해하고있다고  
그이는 조선인민의 정다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  
수천만 조선인민의 심장이시라고

내 그이를 만나뵙지 못했기에  
그이의 품모 익히지 못했으나  
그이의 로작 많이 읽어  
그이를 잘 안다네  
그이는  
제국주의 침략과 략탈 속에서  
천대받고 억압받던 조선인민을 구원하신  
위대한 해방자  
그이는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내 그이를 만나뵙지 못했으나  
나는 알고있다네  
그이께서는  
미제의 민족분열책동을 짓부시고계신다네  
내 말하노니  
조선의 북반부는  
통성번영하는 살기 좋은 락원이라고

내 조선에 가본적 없고  
내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가사

내 그이에 대하여 읽었고  
지도를 통하여 조선을 알았네

나는 읽었네  
수많은 렬사들의 피로 쓰여진  
위대한 조선인민의 렬사를  
위대한 조선혁명투쟁사를  
내 그이를 잘 안다네  
그이는 독립을 사랑하는  
자주성의 수호자이심을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압박받는 식민지나라 인민들의  
해방투쟁의 령도자

그이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에호적인 조선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는 주체의 상징

이것이 바로 내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하여 읽은것  
이것이 바로 내가  
조선과 그의 위대한 통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하여  
읽은것이라네

# 무포의 달밤

김재운

두만강 물소리 밀림에 젖어들고  
우등불 타오르던 무포의 그 밤  
밤하늘 둥근달 바라다보며  
너전사는 노래불렀네 사연깊은 사향가

산넘고 혈전의 고개 넘을 때  
조국을 생각하며 잠못들던 밤

기어이 밝아올 광복의 그날 그러  
너전사는 노래불렀네 잊지 못할 사향가

세월을 신고서 불길은 흘러가도  
그날의 노래소리 가슴울리네  
피로 찾은 조국을 사랑하라고  
이 밤에도 들려오는 너전사의 사향가

## 무두봉의 우등불

서봉제

누구든, 그 누구든 한겨울에 새벽창가를 마주 서게 되면 깊은 상념에 잠기거나 사색의 실머리를 이어보는 때가 있을것이다.

성에불린 새벽창가, 화려한 색깔로 장식된 그림도 아니요 그런가 하면 그 어떤 조형적미로 눈 색깔과 규칙적인듯한 선과 선, 우주와 세상만물에서도 희귀한 눈꽃무늬로 내 집 창가를 뒤덮은 아름다운 설경-

어찌 보면 령봉을 치달아 펼쳐진 천리수해갈기도 하고 그 천리수해를 한품에 거느리고 선 산악갈기도 하여 승엄한 감정으로 불러가는 이름할수 없는 눈의 세계...

나는 겨울을 사랑한다. 그것은 오동지설달의 이 산천에 태를 묻은것때문만이 아니다. 내가 사는 북관평, 이 산천에 대한 사랑이 오늘아침도 새벽잠에서 깨어난 나의 가슴에 사색의 파도를 불러일으키고있다.

...그것은 꼭 한해전이다.

흰 백포자락을 펴리며 행전을 두른 풀색의 긴 행군대오가 밤의 생눈길을 헤쳐가고있었다. 2월의 백두산정에 오르려고 삼지연광장을 떠난 새해 첫 혁명전적지답사대오인것이다. 두툼한 털모자와 휘감은 털목도리에는 온통 성애가 불리웠다.

원래 북변땅의 한밤에 밖에 나서면 별은 손끝에 닿을듯이 가깝게 내린다고들 하지만 행군대오가 다달은 무두봉에서 별무리는 발아래로 굽어보이는것만 같다.

신비한 눈바다위에 황홀한 별천지, 얼어붙은 산야가 움썹거리며 숨을 쉬는듯 긴 눈갈기를 날리며 하늘땅을 온통 파묻어버리는 백두산의 눈보라!

항일혁명투사들마냥 허리치는 생눈속을 걷고걸으며 어둠속을 헤쳐가던 답사대오가 행군을 멈춘 곳은 무두봉중턱이었다.

아, 력사의 기슭 무두봉! 여기가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눈보라치는 백두령봉에로 향하신 불멸의 자욱이 깃든곳이다.

지동치는 눈보라는 력사의 그날, 친애하는 지

도자동지의 그 빛나는 예지를 속삭여주며 하늘을 덮었던만 답사대원들의 가슴은 뜨거운 걱정으로 부풀어올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의 혁명전통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되고 해방후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더욱 풍부화되었으며 오늘 우리당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계속 발전되고있습니다.》

삼지연광장을 떠나올 때 설레며 부르던 백두밀림은 새세대의 혁명대오, 성스러운 백두의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을 품어주는듯 고요한 정적으로 감싸주고있었다.

려명을 앞둔 이 시각, 무두봉의 하늘가에 우등불이 타올랐다. 충성의 답사대원들의 마음처럼 세차게 타오르는 우등불은 백두의 하많은 사연을 전해주는듯싶다.

우리 수령님께서 만리광야를 트락처럼 걷고걸으신 혁명의 그 길우에 차거운 비를 가리울 한결 천막이 없었고 모진 눈바람 막아줄 울바자 하나 없었던 무변한 백두광야!

침침이 앞을 막던 싸움의 준령은 얼마였으며 달아오른 총구를 식히며 얼음덮인 밀림의 락엽우에 잠자리를 펴야 했던 밤은 그 얼마였으랴...

조국에로의 그 험난한 길을 신념과 의리로 가슴불태우며 이어지던 대오앞에 우등불은 그 어느 한순간이라도 꺼진적이 없었다. 지치여 쓰러지면 어깨걸고 다시 일어나 장군님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를 찾아가다가 이름모를 백두산줄기의 찬눈속에 묻히우는 시각에도 머리말에 우등불만은 피워놓았고 조국의 미래에 온기를 주는 우등불자리의 소중한 솟만은 남겨두지 않았던가.

장군님을 우려했다치던 심장의 맹세를 천리만리로 이어갈 싸움길에서 다시금 꿋꿋하게 했고 죽음의 벼랑끝에 자신을 세워보는 그런 때에도 맑은 눈가에 붉은 기폭을 뿜뿜이 새겨안을수 있게 하던 우등불! 백두산의 우등불!!

우리 태어나자 웃으며 안긴 행복의 요람, 때없

이 즐거움에 겨워 노래 부를 때 문득 가슴을 치며 안겨오는 수령님의 은덕, 온 우주를 차지한듯 싶은 당의 끝없는 사랑...

정녕 그 불빛속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우리 당중앙이 빛내여가는 조국강산의 그 모든 아름다움이 비껴있는것이다.

어찌 그뿐이라, 사납게 울부짖던 난파도를 송두리채 잠재우고 서해갑문을 일떠세운 위훈의 불길도 수도의 거리에 끝없는 대하로 흐르던 《일심단결》의 해불행진도 그날의 백두밀림에서 지펴올

린 사령부의 한점 불씨에서 이어진 불멸의 기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항일혁명투사들이 지켜온 신념의 그 우등불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따르는 주체위업완성의 성스런 길에서 더욱 열화로 타오를것이다.

참으로 무두봉에서 타오른 그날의 우등불은 그 언제 어디서나 우리 당과 운명을 같이 할 나의 심장속에 비낀 삶의 영원한 기발이었다...

## 그대에게 묻노라

김석주

남들이 그러하듯  
너도 조국을 어머니라 부르겠지  
어머니조국을 사랑한다고  
자주 말도 하겠지  
하다면 그 조국이  
오늘과 래일의 아름답찬 일을 두고  
잠못들고 생각할 때  
네가 그 생각을 얼마나 알려 했더냐

좁지 않은 땅우에  
헐치않은 큰일을 벌려  
넓혀야 할 간석지는 얼마이며  
쌓아야 할 언제는 얼마이더냐  
세워야 할 무쇠기둥  
무수한 거리와 경기장들은...

참으로 조국이  
어려운 걸음을 걸을 때  
그 짐을 덜어드리고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  
밤잠은 얼마나 못 잤으며  
땀은 얼마나 흘렸더냐  
산에 나무 한대 옮겨놓고

강변에 돌 하나 고여놓고도  
조국에 손을 내밀고  
대가와 보수를 요구한적은 없었더냐  
어머니를 위해드리고  
보수를 바라는 그런 자식처럼

조국이 베푸는 사랑앞에  
남보나 차례지는 뭉이 적으면  
얼굴을 붉히며  
더구나 투정을 부린적은 없었더냐

조국이 시련을 겪던 그런 날에  
피를 바치고 목숨을 바친  
그 사람들이 언제 무엇을 요구했더냐  
요구하기 위해 바쳤다면  
그처럼 귀중한걸 바치지 못했으리라

무엇을 바쳤는가보다  
어떻게 바쳤는가 귀중하거니  
너의 뉘 너의 량심  
조국앞에 깨끗하고 성실하라  
조국은 언제나 수천만의 아들들중에서도  
어떤 삶은 영원히 기억하기도 하며  
어떤 삶은 영영 지워버리기도 한다



시조

## 무지개는 천만리에

홍현양

### 멀고먼 길

아득한 광야  
끝없는 하늘을 날고있구나  
지는 해를 따라  
어두울줄 모르는 길을 따라  
멀고먼 나라 찾아가고있구나

눈아래엔  
은빛 구름의 바다  
순간에 솟아나는  
준령의 봉우리들  
문득 눈시울이 젖어들은  
그 어인 일인가

아, 이 머나먼 길을  
우리 수령님 가시였구나  
조국이 채더미를 헤칠 때  
이 길에 오르셨고  
친선의 꽃바다를 펼치시려  
이 하늘을 날으셨구나

뛰는 가슴  
달랠길 없어  
바라보는 광야  
새움트는 별을 지나면

흰눈 덮인 밀림의 씨비리

봄과 겨울이  
한계절에 가슴 맞대인 땅  
이 길에  
친선의 장미꽃을 피우시고  
이 길에  
친선의 꽃바다를 펼치시며  
우리 수령님 걸으셨구나

어두울줄 모르는 길  
해를 따라 날으는 길  
이 마음  
수령님 밟으신 그 길을 가기에  
따뜻한 봄하늘을 날고있구나

멀고먼 길  
멀고먼 나라  
마치 이웃처럼 갈 때에  
수령님 생각  
간절한 마음만은  
해를 따라 질줄 모르누나!

1987. 4. 18

### 봄눈송이

눈송이  
봄 눈송이  
차창가에  
날리네  
  
들너머  
저기  
봇나무숲 아득히

눈꽃이 날리네  
  
봄이 오는 평양  
꽃피는 땅을 두고  
달려가는 차창밖은  
모스크바거리  
  
아, 어이 생각하랴

봄날에 눈송이  
조선의 벼들을 맞는  
로씨야의 마음이 날리네

오는 정 맞는 정엔  
사시절이 따로 없어  
새움트는 봄날에  
꽃보라로 아시라네

이 가슴에 차분히  
뿌려주는 봄송이  
모란봉의 살구나무  
꽃잎처럼 날리네

1987. 4. 18

## 영원한 동창생

조야는 갔다  
치열한 싸움속에  
꽃나이 청춘을 바쳐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벼들과 헤어진 교실  
사나운 눈보라  
적후로 들어가며  
그가 마지막으로 바라본  
정든 학교의 불빛

그 불빛아래  
조야는 살아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그가 배운 교실에서  
변함없는 열일곱살  
동창생으로!

날마다  
담임선생이 부르는 출석부에  
조야는 살아있다  
해마다  
졸업반의 사진바다에  
조야는 웃으며 함께 있다

조국을 사랑한 심장  
조국을 위해 바칠줄 안 청춘  
독일강점자들은  
그가 자란 교실만은  
빼앗지 못하였다

아, 그 교실을  
잃지 않았듯이  
벼들은 조야를  
빼앗기지 않았다  
영원한 동창생으로!

1987. 4. 25

## 무명전사묘

쓰러진  
그대들의 이름 알수 없듯이  
여기에 꽃을 놓는  
할아버지, 어머니, 금발머리 처녀들  
그 이름도 알길이 없다

그러나 그대들의 위훈

영생하듯이  
저 불길앞에 놓는 꽃들은  
겨울에도 봄이거늘  
그 이름 쏘베트인민이다!

1987. 5. 1

## 물빛처럼 마음도...

맑은 날  
해빛이 비쳐도  
벗들은 말하더라  
평양의 날씨 같다고

푸른 물  
드네쁘르의 물결을 봐도  
나는 말했더라  
대동강의 풍치 같다고

마음도  
생각도  
한뫼으로 합쳐지는것  
벗들과 심장이 합쳐지는것

어쩔수 없더라  
처음 만났어도  
소꿉시절부터 뛰논듯싶은

그 눈빛, 그 익살

낮설지 않더라  
평양을 못잊는 그 마음  
금강의 단풍처럼  
진정이 불붙는 그 추억

평양에서 다시 만난다면  
벗들은 또 말하리  
대동강의 푸른 물결  
드네쁘르의 풍치와 같다고

아, 물빛처럼 마음도  
심장처럼 추억도  
하나의 샘줄기에 두고 사는 마음  
바다처럼 천만년 마를줄 모르리!

1987. 5. 3

## 이것은 조각이 아니다

말해다오  
향기로운 꽃들아  
살아 저네들이  
너를 사랑했을 꽃들아  
아픈 가슴 두드리며  
어이 말없이 피느나

살았다면  
나와 이 풀밭에 함께 텅굴  
저 아기  
최후의 시각에 어머니가 입맞춰준  
저 앵두불에  
봄바람아, 네 향기 실어주렴

총창에 찢기고  
불도젤 삼낱에 밀려  
백발이  
청춘이  
고사리 손들이

수렁창에 매몰된 바야마비!

아, 내 나라  
신천땅의 참상이  
여기 끼에브의 언덕에도 있었구나  
말은 달라도  
흘린 피앞에  
눈물이 어이 다르랴

니치스의 죄악을 고발하는  
저 백발  
찢어진 옷자락들  
이것은 조각이 아니구나  
이 가슴에 피맺혀  
미제를 저주하는 신천이구나!

※ 바야마비-끼에브시의 한 구역

1987. 5. 4

## 해쑹는 동쪽에

나도 몰래  
그 시간속에 살고있었구나  
조국은 예서 수만리  
그 출근시간에  
내 집 문앞을 나서고있었구나

해쑹는 동쪽  
저 멀리 조국이 있어  
모스크바에 밤이 깃들 때  
내 사랑하는 평양의 거리엔  
하루의 출근길이 시작되리  
  
수양버들 휘늘어진 대동강반  
내 즐겨 걷던 그 시간을  
순간도 마음속에 지워버릴수 없어  
내 손목의 시계는  
모스크바에서도 조국의 시간!

나도 몰래  
나도 알수 없이  
해쑹는 동쪽에  
맞추어있는 그 시간  
조국을 떠날 때  
그대로의 그 시간

동무들은 떠들썩  
서로 아침인사를 나누리  
아마도 내 조국을 떠난줄  
이 출근길에 알고서야

놀라는 친구들도 있으리

귀여운 아들은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리  
내 들여다보는 시계  
조국의 이 시간속에!

아, 푸릿한 새벽  
거리를 달리는 첫 전차  
평양의 그 동음이 사무치누나  
이 가슴에 못견디게  
귀에 쟁쟁하게

멀고먼 나라  
그 어디에 가도  
해쑹는 동쪽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당중앙의 창문을 여실  
그 시각에 맞추고 사는 시간

나도 미처 몰랐구나  
레사로이 들여다보던  
이 시간속에  
이 분과 초 속에  
조국이 이처럼  
내 생의 전부로 비껴있을줄은...

1987. 4. 18

# 벗이 오는 날에

박경환

나는 모스크바-평양행 국제열차편으로 오는 소련보건대표단을 마중하려고 역두로 나갔다.

목음길은 8월의 거리는 소나기가 금방 지나간 듯 말쑥하였다.

손에손에 공화국기며 꽃다발과 마치와 낫, 별이 빛나는 쏘련기발을 들고 모여든 환영군중의 얼굴마다에는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다. 그 물결의 흐름속에서 코스모스로 곱게 엮은 꽃다발을 들고 열차의 도착시간을 기다리는 나의 감회는 자못 깊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쏘련인민은 강도 일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해방투쟁을 피로써 도와주었을뿐아니라 우리 인민에게 물질량면의 원조를 주고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40년이 훨씬 더 지나간 오늘에도 더더욱 보고싶은 쏘련의 벗의 모습이 눈앞에 우뚝이 안겨왔다. 그는 해방의 그날에 우리 가정과 남다른 인연을 맺은 쏘련군대녀군의 엘레나다. 별무리 내려와 속삭이는 잔잔한 바다의 잔교를 거닐 때나 가정의 기쁜 일로 하여 모두 모여앉았을 때도 그러지는 모습이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 엘레나가...

어느덧 나의 마음은 생활을 거슬러 해방의 기쁨과 나라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새 민주조선 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기세가 충천하던 그날에로 달려갔다.

《...나라를 찾아주고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장군님의 그 은혜에 나의 적은 힘이나마 보답하는 길은 일본놈들이 달아나면서 파괴한 고기배를 다 수리해서 바다에 띄우는거다...》

이 말을 입버릇처럼 외우는 아버지에게는 밤낮이 따로없었다. 아버지만이 아니라 사람사람 모두의 마음이 다그쳐했다.

아니다. 그렇지도 않았다.

공장과 거리에 불을 지르고 기술자, 기능공들을 살해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반동놈들도 있었다.

모래불에 기여나와 재물을 부리다간 깊은 바다로 뛰어들고 뛰어들었다간 또다시 기여나와 재물을 부리던 파도, 파도도 잔잔하게 찾아든 깊은밤 나라의 주인된 기쁨에 넘쳐 아버지는 용접불꽃을 날리고있었다.

이때 기회만을 노리고있던 선주아들놈의 패거리들이 달려들어 아버지의 등을 칼로 찌르고 몽

둥이로 내려쳐 치명상을 입혔다.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뒤늦게 달려온 사람들은 참혹한 현실앞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헤덤비기만 하였다. 사실이지 그때만 하여도 이런 중환자를 치료할만한 병원이 없었다. 이 사실을 알고 달려온 엘레나에 의하여 쏘련군대 군의소로 갔다.

늦잠에서 깨어난 나는 두주먹을 쥐고 군의소로 달려갔다. 엘레나는 울먹이는 나의 머리를 쓸어주며 떠들떠들 조신말을 번지였다.

《아버지...안죽어, 울지 말아...》

엘레나는 위생복 팔소매를 걷어올렸다. 그리고는 혈관속에 흐르는 붉은피를 뽑아 아버지의 혈관속에 넣어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의식없는 아버지의 곁에 내가 앉아있으면 《일없어, 어서 가, 어서 집에 가.》 하며 우리를 보내고는 자기는 꼬박 밤을 새우곤하였다.

친딸이면 이보다 더하랴!

생각하면 할수록 불우몰패인 오동통한 두볼에는 밝은 웃음이 떠날줄 몰랐고 몸집은 뚱뚱한 편이여도 균형이 잡힌 탐탐한 몸매에서는 늘 튼튼 날듯한 탄력과 발랄한 생기가 풍기는 녀군의 엘레나! 영채도는 눈동자엔 세상의 맑고 깨끗한 빛같이 다 들어있는가싶어 그렇게도 아름다와 보이고 그렇게도 정다와 보이던 엘레나의 모습이 영화의 화면처럼 선명하게 안겨왔다.

참으로 엘레나는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며 우리 가정의 친혈육과 같은 친근한 벗이다.

아버지가 퇴원한후에도 우리 가정은 엘레나를 자주 찾아갔고 엘레나는 우리 집만이 아니라 일터까지 찾아가 아버지의 건강을 보살펴주었다.

하여 다시는 살아날수 없으며 설사 살아난다고 하여도 불구의 몸이 된다면 아버지가 공장에서는 로력혁신자로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고 씨름판에 뛰어들면 황소는 양보하지 않는 《장수》로 되었다. 그러니 어찌 우리 가정에서 그를 친혈육과 같이 여기지 않으랴.

그날에 맺어진 그 혈육의 정은 날이 가고 달이 바뀌워 세월은 멀리 흘러왔어도 변함없이 두터워만졌다.

그러니 쏘련보건대표단을 마중하는 나의 마음 어찌 감회가 깊지 않으랴!

쏘련인민과 맺어진 혈육의 정은 우리가정 나하나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력사적인 조국해방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와 어깨 나란히 강도 일제를 격멸하는 항일전쟁에 참가하여 우리 인민의 해방 위업을 피로써 도와준 그들.

전국의 그날에도, 조국해방전쟁의 가렬처절한 그날에도, 전후복구건설의 나날에도, 사회주의건설이 대고조에 이른 오늘에도 우리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는 그들이다.

오늘 이렇게 활짝 핀 조쏘친선의 화원이 력사적인 조국해방의 그날부터 피어나기 시작한것인가.

아니다. 그것은 훨씬 더 이전인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백두의 밀림을 헤치신 그때부터이다.

《-봉-》

정다운 기적소리에 나는 깊은 감회에서 깨어났다.

렬차는 꽃물결을 헤가르며 역구내로 서서히 들어선다.

환영군중은 꽃다발을 열광적으로 흔들었다. 역두에는 꽃파도가 일었다.

아, 나는 군복차림의 날씬한 몸매, 그날의 엘레나를 그러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쳤다.

《환영군중의 꽃물결, 꽃바다가 더 세차게 설레이는것처럼 조쏘친선의 화원은 더 활짝 피어날것이다.》

## 나도 오늘은 이 길을 간다

한원군

발걸음도 가볍고

마음 즐겁다

방직공들 길을 메우는

공장지구의 아침출근길

이웃집 염색기사 익살부리며

새 방직공 《행진》이다 길 비키란다

저 멀리

직포기의 동음소리

노래처럼 울려오고

구내길의 가로수 푸른 아지들

나를 반겨 설레며 다정히 속삭이는듯

나도 오늘은 이 길을 간다

어머니를 바래우고 마중하던 나날

나의 작은 발자국이 찍혀진 이 길

세월은 벌써 나를 키워

머리 흰 어머니와 나란히 세워주었구나

이 길을 걸으며

내 옷매무시 잡아주던 어머니

그 말없는 눈빛은

나라의 미더운 직포공이 되기 바래

그리도 정다웠던가

이 길을 걸으며

내 바라본 하늘은

이 땅우에 비단필을 늘어갈

어머니의 축복 노을로 피어

그리도 아름다웠던가

잊을수 없어라

우리 수령님

농장상점 천매대를 찾으셨다는

방송원의 격동된 목소리 울리던 그날

말없이 순회길 곱으로 늘어가던

어머니의 뜨거운 그 숨결들

아, 근면한 로동으로

한생을 다해

어머니가 걷는 길을

오늘은 또 내가 간다

못잊을 추억이 맹세로 이어지고

세대와 세대 그 모두의 숨결이

하나의 뜻 하나의 생각으로

뜨겁게 흐르는 출근길이어

한생 이 길을 걸으며

당을 받들어온 어머니처럼

대를 이어

나도 한생 걸어갈 길이기에

맹세도 새로운 이 아침

마음 설레여라 출근의 아침이어

또 하루 충성의 자욱을 새겨가는

참된 삶의 길로

나는 걸음을 옮긴다

방직일가의 억센 대를 이어

# 내가 사는 땅

강립석

가끔 우리 집 딸애들  
창문을 열고 흥에 겨워  
조국에 대한 노래를 부를 때면  
나는 때없이 생각하노라

우리가 쓰는 말 아닌  
왜놈들의 지껄임 몇마디를 몰라  
나의 아버지가 수모를 받고  
어린 내가 달려가 호느끼면  
긴 가지 휘청이며 함께 호느끼던  
선돌골 내 고향의 그 수양버들을

다감한 젊은이들의 수첩에서  
조국에 대한 좋은 시를 읽을 때면  
비록 나 아닌 다른 벗이 썼다 해도  
나는 기뻐하며 생각하노라

월미도가 불타던 그 소식 가슴 허빌 때  
피흐르는 허벅다리 그러쥐고  
죽음을 각오하며 우러러보던  
이름모를 고지우의 그 하늘을

가까운 벗들에게서  
외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을 때  
또는 한생을 이역에서 보내다 돌아온  
인생말년의 동포들을 만날 때  
나는 조용히 생각하노라

사람이 어떠한곳에 정을 붙이고  
여한없이 눈감게 되는가를  
그리하여 바로 여기 이 땅우에  
나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감사하노라

나는 자부하노라  
내가 다름아닌 이 땅 조선에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전사로  
살며 일하며 행복을 누리고있음을

이웃집 둘째 나어린 상등병이  
서해갑문 세우고 휴가를 왔을 때도  
나의 아들이 광복거리 세우려 떠날 때도

나는 때아닌 연설같은 말을 하고  
스스로 만족해했노라  
-우리의 조국이 얼마나 좋으나

정녕 이 세상에  
나라도 많고 좋은것 많아도  
그래도 나에겐 더없이 귀중하더라  
울면서 달려가면 안아주던 수양버들이  
최후를 각오하며 우러러볼 푸른 하늘이

없으리라, 거기엔  
나의 아들딸이 배낭 메고 찾아가  
어른처럼 되어오는 그러한 백두산이  
꺼질줄 모르는 주체사상탑의 봉화를 쳐다보며  
내가 궁지높이 거니는 그러한 대동강이

두고서는 못갈것  
버리고는 못살것  
오직 여기에만 있어  
가꾸어도 내 손으로 가꾸고싶고

책임을 저도 내가 저야 할것  
오직 여기에만 있어  
나는 못가리, 그 어디로도!  
나는 안가리 그 어느때도!

설사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아야 할일 생긴다 해도  
그 어디 모면할 다른곳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벌을 받으리!

혁명을 해도 이 땅에서  
땀흘리며 피흘리며 모든것을 바치고  
공산주의를 건설해도 이 땅에서  
우리 당을 따라 우리 식으로 하리!

순간을 살아도 운명을 함께 하고  
한생을 변함없이 위하고싶은 땅  
아 나의 조국, 나의 조선이여  
한생 나의 심장을 바쳐야만 할  
사랑하는 어머니품이여라

## 삼지연못가에서

김종정

유서깊은 삼지연의 아침, 자욱히 서렸던 안개가 서서히 막을 올리자 잔잔한 수면위에 《조국의 물》 군상이 우뚝이 떠올랐다. 뒤미처 우중충한 백두의 수림이 다가와 배경을 이루었다.

기슭에 무릎을 꿇고앉아 조국의 물을 한웅큼 쥐어보며 감격에 눈물짓는 너항일혁명투사, 그 맑은 물을 한껏 마시며 감회에 잠기는 꼬마대원, 시원한 바람결에 땀을 들이며 별에 탄 얼굴을 비쳐보는 너항일혁명투사… 타는 목 추기며 조국의 물에 그 뜨거운 마음 비쳐보는 항일혁명투사들!

참으로 생각 깊어지는 화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빨찌산들은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간고한 투쟁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머나먼 싸움의 길 헤쳐왔던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간고한 로야령의 시련도 북만의 흑한도 이겨온 항일혁명투사들, 오직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시련도 고난도 헤쳐넘으며 청춘도 생명도 함께 바쳐싸웠다.

그 걸음걸음에 한시인들 조국의 산천을 잊은적 있었으랴. 하기에 조국진군의 그날 여기 삼지연 못가에 이르러 휴식의 한때를 보내면서도 항일혁명투사들은 저렇듯 조국의 향취에 한껏 잠기는 것이었다.

이 나라 조종의 산 백두산을 물결위에 비쳐담고 출렁이는 못, 겨레의 억세고 깨긋한 절개와도 같이 맑고맑은 삼지연, 민족의 반만년 력사와 더불어 풍상고초를 날날이 겪어온 조선의 호수!

나는 깊은 명상에 잠겨 호수가를 거닐었다.

호심깊이 간직해온 하많은 사연을 하소하듯 위대한 수령님 앞에 물결 씩없이 출렁이던 그 기슭은 어딘가.

**《삼지연은 풍치도 좋고 물맛도 좋습니다. 이 물을 마시고 힘껏 싸워 조국을 해방합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뜻깊은 그 말씀 저 북나무 서있는 유서깊은 기슭에서 금시 울려올 듯.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께 정가로운 물 정히 떠드리신 그 잊지 못할 영상 여기 물결위에 어려있는듯. 한포기의 풀, 한그루의 나무, 한줄기의 샘물에서도 조국이 귀중함을 헤아리며 나라를 기어이 찾고야말리라는 항일혁명투사들의 그 고결한 혁명정신은 삼지연의 수정같이 맑은 물에 그대로 비껴있고 항일혁명투사들의 거룩한 그 영상은 거울처럼 맑은 수면위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불멸의 군상으로 새겨져있다. 오늘도 그날의 감격 안고 못가에 서있는 항일혁명투사들! 저 혁명투사들 가운데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해방의 환호성 터져오르는 조국땅에 개신한 항일혁명투사들도 있다. 삼지연의 맑은 물 한모금을 마시면서 조국이 더없이 귀중함을 가슴뜨겁게 느끼고 조국해방의 그 성스러운 싸움의 언덕에 청춘의 붉은 피 서슴없이 뿌리고 간 항일혁명투사도 있으리라.

조국의 물, 그것은 참으로 항일혁명투사들의 가슴속에 고이 간직된 귀중한 조국이였으며 정다운 고향이였고 사랑하는 인민이었다.

생각이 깊어져 서있게 되는 연못가…

끝없는 생각을 불러오는 순간… 바로 항일혁명투사들의 군상이 비껴있는 수면위에 나의 모습도 어려있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놀랐다. 저 거룩한 영상, 뜻깊은 화폭속에 내 모습이 비껴 자리가 과연 있을수 있단말인가. 내 나서 오늘까지 어머니의 젖가슴을 파고드는 어린애처럼 그저 조국이 주는 혜택만을 고스란히 받으며 자라면서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아직 저 혁명투사들처럼 고결한 삶을 한순간도 빛내지 못했고 조국앞에 땀땀이 해놓은 일 또한 별로 없지 않는가.

문득 백두산쪽에서 한줄기 바람이 불어와 수면위에 잔파도를 일으켰다. 그러자 수면위에 비친 유격대군상이 우줄우줄 다가오며 나의 작은 모습을 손짓하여 부르는듯했다. 못가에 서있는 저 황철의 용해공도, 청산벌의 농장원처녀도, 머리 흰 로박사도…

나는 끓어오르는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호심깊은 삼지연의 맑은 물에 비긴 항일혁명투사들의 저 군상은 우리모두를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슴불태워 충성의 절정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었다. 마치도 열자식이면 열자식 다 가림없이 한품에 안아 이끌어주는 어머니처럼, 이미 결을 떠나간 아들도, 영광의 오늘에 서있는 자식도, 그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주고 위훈 세운 아들도 허물있는 자식도 차별없이 안아 이끌어주는 그 넓은 사랑의 품! 그것이 바로 어머니조국의 품, 당의 품이 아니었던가. 물을 떠나 고기가

살수 없듯이 그 품을 떠나 우리 살수 없고 그 품을 떠나 영웅도 박사도 자랄수 없다.

나는 생각하였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선열들의 그 숭고한 모습을 가슴에 더욱 깊이 새기고 내 다시 이곳에 올적에는 삼지연에 비긴 저 유격대군상을 땀땀이 바라볼수 있도록 조국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큰 한몫을 해놓으리라고.

## 내 어머니 되어 알았습니다

정인옥

몰랐습니다

그 시절엔

내 어머니 왜 그리 눈물이 많았는지

기운 치마 부끄러워

새옷 해달라 떼를 쓰던 날

내 어머니 왜 우셨는지

언제입니까

굶어서 휘청거리다 물동이를 깨엎건만

우리 집엔 너무도 큰 재산이어서

나를 꾸짖던 어머니

그 밤도 어머니의 눈굽은 젖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어찌하여 어머니 눈물뿐인지

그 시절엔 내 다 몰랐습니다

탁아소의 요람속에 아이들 키우며

고운 옷에 꽃포단에 싸안을 때

귀한 자식 누데기속에 키운 나의 어머니

그래서 우신줄 알았습니다

등산길 떠나는 아이들 어깨에

묵직한 배낭 메어줄 때면

나를 키운 어머니

이렇게 해주지 못해 우신줄 알았습니다

사랑은 커도 줄것 없던 어머니

세월을 한탄하며 우신 어머니

어머니 마음은 하나같아도

우리의 추억속엔 서로 다릅니다

아, 내 어머니 되어 알았습니다

천진한 아이들의 추억속에 새겨지는

어머니모습은

시대를 비쳐주는 거울임을

간직될것입니다. 먼 후날에도

내 아이들의 추억속엔

언제나 밝게 웃는 나의 얼굴이

위대한 어머니 당이 있고

조국이 있어

기쁨만이 넘치는 나의 얼굴이...

## 여기사의 고백

박경빈

그리운 윤희, 용서해다오.

병원 침상에 누운 몸으로 거둬하여 편지를 써 보냈는데도 회답을 안한다고 이 보순일 못내고 까와할테지.

학급에 너자라고는 다섯뿐이었던 대학동창생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온 윤희한테 편지 쓰기가 이다지도 힘겨울줄은 정말 몰랐어. 아니할 말로 기쁨과 감사의 정이 차고넘치는 너의 이번 편지가 나한테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부담이었어. 너로 하여금 또 편지를 쓰게 한 그 신문기사가 구절구절 상기되면서 모진 자책과 수치감에 사로잡히게 하는것이었어.

《이렇듯 놀라운 기술혁신을 단 두달동안에 해낼수 있는것은 다년간 탐구의 가시덤불길을 헤쳐온 현장기사와 새로 부임한 지배인, 20년만에 다시 만난 대학동창생들이 지혜와 정열을 합쳐...》

기자가 쓴것처럼 우리 철이 아버지가 너의 장동무를 도와나선건 사실이였지. 하지만 그 과정은 신문기사처럼 명백하고 단순한것이 아니었어. 우정과 의리, 삶의 목표와 가치, 참된 행복... 인생의 근본문제들에 대한 기성관념을 송두리채 재검토하지 않을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지.

하지만 윤희, 너한테야 무엇을 꺼리고 숨기겠니? 우리 내외가 그동안에 겪은 곡절을 마음속에 일어났던 자그마한 파문에 이르기까지 죄다 써보내려다.

윤희, 우리 철이 아버지... 아니, 너한테야 무엇 때문에 궁색스레 예둘러 부르겠니? 네가 부르는 대로 익수동무라고 하지... 익수동무가 오봉산세멘트공장지배인으로 임명되었을 때 나는 설레는 가슴을 다잡지 못했어. 20년전에 헤어진 정다운 벗들과 다시 만나 소성로의 열기를 마시며 함께 일하게 되었다는 기쁨이 그득차 물결치는것이었어.

부풀어설레는 가슴속에서는 또한 한 가정의 주부로서 오누이를 키워내면서도 기술을 놓지 않았고 남편뒤바라지도 기술자답게 해왔다는 자부심의 물마루가 솟아 넘길거렸어.

대학을 마친후 5년동안 윤희와 함께 이 공장실험실에서 일한 그 시절부터였지. 그때 분석자료와 실험수치로써 익수동무의 기술혁신을 도와준 나는 그이가 소환된후에도 새 직무에서 두각을 나타내도록 밤도와 뒤반침해주었어.

익수동무는 부서에서는 물론 산하공장에 내려

가서도 기술문제해결에서 한몫 단단히 해서 평가를 받곤했지. 그이는 그 단위에서 걸린 문제를 포착하면 곧 나한테 알리었고 과학기술통보사에서 일하고있는 나는 그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기술문헌과 참고서적들을 찾아보내주었어. 때로는 밤새워 계산하고 도면까지 그려받쳐서말이야.

그이는 큰 일을 제껴서 국가표창을 받거나 보다 책임적인 직책을 맡을 때마다 《우리 고문선생수고가 아니였다면 어디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이요?》 하며 살뜰하게 치사하고 애무해주었지. 어느덧 나는 이것이 큰 사랑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뒤바라지를 더 잘할수 있을가하는데만 원심을 써왔어. 그러다나니 한달이 머다하게 주고받던 너와의 편지거래도 차츰 떠졌지.

짐을 꾸려서 부치느라고 며칠 뒤늦어 평양을 떠난 나는 열차가 오봉산역 구내에 들어서자 더바투 차창에 다가붙었어. 20년만에 다시 보는 공장의 전경이 마음을 짝 틀어잡는것이었어.

그사이 공장은 상상이상으로 달라졌더구나. 현대적인 소성로가 세개나 더 들어앉았고 윤희와 함께 심을 때는 회초리 같던 구내길의 백양나무들이 하늘을 찌를듯이 자라 설레이더라니까. 그리고 세멘트를 얼마나 많이 구워냈던지 석회석광산이 자리잡은 오봉산의 두 봉우리가 허양 자취를 감췄더라말이야.

이렇게 큰 공장의 지배인이 되었으니 일이 얼마나 아름답잖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이 감겨들더구나. 마중나와있을 익수동무가 차에서 내리기 바쁘게 나한테 새일감을 안겨줄것만 같더라니까.

그런데 역두에서 나를 맞아준 사람은 그이가 아니라 장동무였어. 장동무는 내 량손을 거머쥐고 놓지 못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지. 하지만 상봉의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어. 내가 친 전보를 받았겠는데도 익수동무가 새벽차로 평양에 갔다는 것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몰라보게 변한 장동무의 모습때문이었어.

눈빛은 예이제없이 정열적으로 이글거리지만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주름진 얼굴, 수척한 어깨, 시약냄새 풍기는 마디지고 꺼질꺼칠한 손...

대학시절에 장동무야 손풍금을 멋지게 탔고 대학축구팀에서도 공격조직자로서 맹활약을 하지 않았니? 다른 학부 처녀들까지 은근히 속태우며

넘겨다보던 꽤남아가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졌을가? 주부 없는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에 지쳐서일가? 곡절을 겪은것일가?

하지만 그것은 지내 경솔한 억측이었어. 확인택아바이의 안내로 공장을 돌아오면서 장동무가 그동안에 어떤것을 이룩해놓았는가를 안 나는 마음속으로 사과했어.

흘리간 그 시절에는 장동무와 익수동무가 발기한 새 소성방법의 시험생산을 맡아해준 작업반장이었고 지금은 소성직장 교관으로 계신다는 콕아바이는 곧추 소성직장 뒤뜰로 나를 데리고갔어. 아바이는 지방산업세멘트공장에서나 볼수 있는 작은 수직로를 보고 놀라는 나한테 《허허… 보순기사두 놀라누만, 지배인처럼.》 하며 웃으시는것이였어. 보기는 초라해도 장동무가 7년세월 갓은 신고 다 겪으며 애쓴 끝에 《흙돌》로 세멘트를 구워낸 로라고 하시지 않겠니? 나는 하도 놀라와서 수직로와 아바이를 번갈아보기만 했어.

색같이 붉지그래해서 이렇게 부르는 《흙돌》… 윤희, 네가 더 잘 알테지만 그것은 석회석품위가 지내 낮아서 세멘트원료로는 쓸수 없다고 치부해온 돌이 아니냐? 오봉산의 다섯개봉우리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세개는 온통 이 돌로 이루어져있어서 《흙돌산》이라고 부르는것이이고… 왜놈들이 공장을 세울 때부터 석회석만 골라 캐다니니 이제는 《흙돌》만 남은셈인데 50년동안 버림받아온 돌로 세멘트를 생산했다니 놀라지 않을수 있냐말이야. 게다가 이 공장 《흙돌》에는 석회석과 함께 세멘트조성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규석이나 철, 진흙성분이 고루게 섞여있어서 부원료는 전혀 필요없다니 기적이 아니고 뭐냐? 대형회전로들에 《흙돌》을 먹이면 거의 바닥이 드러난 원료문제가 쭉 풀릴것 아니냐? 그런데도 300미터짜리 철교를 놓아야 캐내올수 있는 백암산에다 새 석회석광산을 개발하자는 안이 상정되어있다니 정말… 콕아바이말씀따마나 이런 《보배산》을 두고 어떻게 술한 자금과 로력을 내라고 나라에 손을 내민단말이야?

놀랍다 못해 막 안타까와서 나는 왜 아직 《흙돌》을 회전로에 먹이지 않는가고 물었어. 콕아바이는 거듭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것이였어.

《연구를 더 해야 한다네. 밤낮을 가리지 않고구직심스레 도와주던 윤희기사가 병원에 간후 막내를 데리구 때식까지 끓이다다니 일손이 딸리는데 풀어야 할 문제가 아직 적지 않다는거네. 지배인두 생각이 어떤하겠나만 보순기사가 우리 장기살잘 받들어줘야겠네.》

나는 콕아바이의 권면을 기꺼이 받아들였어.

그런데 흥분이 가라앉자 마음속 한구석에 야릇한 불안이 갈마들더구나. 익수동무도 이 수직로를 보았다는데 그이의 견해는 어떤지? 내 전보를 받고도 바빠 올라간것이 공장의 원료문제때문이지 아닌지? 그렇다면 왜 장동무나 콕아바이한테 자기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지? 혹, 새 광산을 개발하자는 주장에 공감한것이 아닌지?

윤희, 의혹과 불안은 익수동무가 돌아온 날 말짱히 가서졌어.

그날저녁에 그이는 장동무와 함께 집에 들어왔어. 응당 자리를 같이해야 할 윤희가 없는 아쉬움과 근심이 엇갈린 무거운 분위기도 차츰 가서지고 우정과 회포에 젖은 웃음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 쟁그렁 맥주잔이 마주치는 소리, 건축에서 흘러나오는 실내악의 그윽한 선율, 열어젖힌 창문으로 안겨드는 서드러운 대기… 씩씩한 호프냄새조차 그 저녁에는 향긋하게만 느껴지더구나.

나는 익수동무의 《신호》를 받고야 실내악이 끝나고 전축이 공회전하는것을 알아차렸어. 모처럼 마련된 상봉의 저녁을 장식하는데 어느 곡이 더 좋을가 하고 이것저것 고르던 나는 제목 글자들이 어슴푸레해진 판에서 손이 굳어졌어. 《산으로 바다로 가자》였어.

윤희, 너는 그때의 내 심정을 리해해주겠지.《산으로 바다로 가자》야 우리의 사랑을 싹틔워주고 우리들 네 벗의 우정을 두터이 해준 노래가 아니냐?

저기 바다로 가자

저기 바다로 가자…

너성고음가수의 청높은 목소리가 깃을 퍼덕이며 나래쳐오르기 시작했지. 하지만 나한테는 익수동무와 내가 혼성이중창으로 부르는것 같았어. 학부대향예술소조경연무대에서 장동무의 손풍금 반주로 이 노래를 부르던 광경이 삼삼히 되살아 어리더란말이야.

노래가 끝나고 피아노의 마지막화음의 여운이 스러지자 장동무가 입을 열었지.

《보순동무, 노래 들어본지두 오랫동안. 그날은 참 잘들 불렀지. 화음두 기막히게 어우러지구나…》 감회깊은 어조로 회고하는데 익수동무가 숫절게 겸사를 했어.

《잘 부르기야… 자네가 능란한 반주로 이끌어주지 않았더라면…》

《능란한게 다 뭐가? 양초물루 땀질한 바람통이 터져서 일을 망칠가봐 간이 콩알만했더랬네.》

《허허… 실없는 승강인 그만하구 한번 더 들어

보세.》 하며 익수동무가 나를 눈주어보았지. 내가 바늘을 옮겨놓으려는데 장동무가 밀막았어.

《그만 그만... 다른 노래를 듣자구. 거 있지 않나? 피끓어라 청춘아 하는 노래말이네.》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장동무의 심정이 이해되어 나는 곧 그 판을 찾아 걸었어.

피끓어라 청춘아 불타라 심장아  
우리들은 청년들 사회주의건설자다

장쾌한 관현악전주에 이어 박력있는 남성합창이 울려나오자 장동무는 부르친 주먹으로 박자를 쳤어. 뒤풀이 소리내어 따라부르기 시작했지.

로동당 부름에 젊은 힘은 용솟는다  
아름다운 우리 조국 락원으로 꾸리자

노래가 끝나자 장동무는 정열의 불꽃이 튀는 눈빛으로 탄성을 질렀어.

《얼마나 좋은가! 심장이 뛰구 피가 끓게 해주는 노래야.》

《아무렴.》

《여보게 익수, 자네두 우리가 4학년때 수도복구건설과제를 앞당겨 끝낸 날 밤의 일을 잊지 않았겠지?》

《4학년때?》

《민청에서 조직한 우등불모임에서 이 노래 합창에 이어 자네가 열변을 토하지 않았나?》

《열변까지야...》

《아니, 아직두 귀전에 쟁쟁하네. 복구건설전투에서 승리한 기세루 학습전투에 달라붙자! 실력을 키우자! 오늘은 피로 지킨 이 땅에 더운 땀을 뿌렸지만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간고한 시기에 학창에서 마음껏 과학을 탐구하게 해주는 은혜로운 조국을 기술로써 만들어가자! 우리의 조국을 이 행성에서 으뜸가는 락원으로 꾸리는 앞날의 전투에서는 땀과 근육로동보다도 과학의 힘, 기술의 힘으로써 더 큰 몫을 맡아 제껴야 한다! 하던 자네의 불같은 목소리가 말이네.》

《허허... 혈기 넘치는 시절이었지.》

《자네의 호소에 격동돼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그렇다, 기술, 기술로써 조국을 만들어가자! 하고 웨치던 동무들의 얼굴이 눈앞에 보이는것 같구나만.》

이렇게 말한 장동무는 열어젖힌 창밖의 밤하늘로 시선을 옮기며 사뭇 애뜻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

《아, 그때 동무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으면... 그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을텐가?》

《그래 이젠 우리 세멘트공업의 중건들이 됐지. 모두 발전이 빨라. 기사장이 됐다는 소식 들은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처장, 부국장이란다니까.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야.》

《대단하긴? 누구누구해두 난 자네네 둘이 그중 마음에 들어. 자네 중앙에 올라가서두 기술문제 해결에서 앞장섰지. 보순동문 공장에 돌아오자 다시 실험실에 자리잡았지. 변함없이 기술자의 자세를 지켜나가는 자네네와 다시 함께 일하게 된걸 생각하면 정말... 처가 이걸 알면 당장 퇴원하겠다고 조바심칠거네.》

《허허... 그만 비행기 태우게. 어지럽네.》

익수동무는 너그러운 어조로 말을 막았어.

《그런데 자네 고집두 어지간하구만. 도대체 언제까지 현장기사루 일하겠나?》

《현장기사가 어때서? 난 평생 소성로결에서 떠나지 않으려네.》

《아니, 이건 내가 공장에 온 첫날부터 별려온 말이네. 자네가 기술과장사업을 맡아줘야겠네.》

《제발 부탁이네. 다문 얼마간이라두 날 건드리지 말아주게.》

장동무는 랑손을 들어 짓더니 제편에서 화제를 바꾸더구나.

《그래. 이번에 뭇때문에 그리두 바빠 올라갔었나?》

《이런 아주 사업이야기루 방향전환이네그러... 자네의 흠뻑문제때문에 갔었네. 그걸 회전로들에 먹이자구 제기하러구.》

《회전로에? 그래 어떻게 됐나?》

장동무가 긴장한 표정으로 그이를 쳐다봤지.

《너무 초조해 말게. 아주 원만하게 됐네. 처음엔 론의가 분분했지만 이달중으루 시험생산을 해서 시험테타루 론중하겠다구 장담했더니 모두들 공감하더군. 그래서 이미 설계에 착수했던 광산 개발안을 보류하기루 했네.》

《고맙네. 익수.》

어찌나 흥분했던지 장동무의 눈에 물기가 어른거는것 같더구나.

《실없는 소리... 자네가 내 립장에 섰다면 달리 처신했겠나?》

《그래두 부임하자마자...》

《그만하게 그만... 오래간만에 다시 만났는데 20년전 그 시절처럼 손맛잡구 본때를 보이세. 모든 소성로에 흠뻑을 먹일수 있게 이달중으루 시험생산을 해제끼잔말이네.》

《이달중으론... 미해결문제가 아직 적지 않은데. 여직껏 조수노릇해준 저두...》

《넌려 말게. 내가 있지 않나? 공장 기술력랑을 최대한으루 집중시켜주겠네. 물론 이사람두

…》

그이는 말을 끊고 나를 돌아보는것이였어. 나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여보이였지.

《보게. 뭐가 미타해서 그러나? 며칠새에 기술국에서 내려오는데 그전에 시험생산계획을 짜놔야겠네.》

《이달중으루 회전로에 먹이는건 아무래두…》

《여보게, 자네 립장이 어쨌쩍하면 광산개발안이 다시 상정된다는걸 알아야 하네. 막대한 국가자금이 왔다갔다하는 판이라니까. 자 따분한 실무적인 이야긴 그만하구 마시세. 자네의 고심어린 탐구의 빛나는 결실을 위해서!》

익수동무는 호기있게 말하며 거품이 넘치는 잔을 높이 들었어. 장동무도 잇달아 잔을 들어올리고…

그날저녁 나는 가슴뿌듯이 차오르는 기쁨을 누를수 없었어. 우정에 충실하면서도 국가적리익을 그에 못지않게 중히 여기는 그이가 그지없이 미덥게 안겨오는것이였어.

하기에 나는 장동무를 바래주고 들어오는 그이한테 이렇게 말했어.

《여보, 이번 일은 참 잘하셨어요.》

《허허… 그게 정말이요?》

그이는 이렇게 물으며 담배내 풍기는 손으로 내턱을 받쳐들고 얼굴을 들여다보는것이였어.

《아니 누가 보겠어요.》

나는 황급히 그이의 손을 뿌리치며 열어놓은 창문을 눈주어보았어. 그러거나말거나 그이는 여전히 우선우선한 어조로 계속하는게 아니냐?

《우리 고문선생 평가가 언제나 정확하거든. 우에서두 모두들 이 윤익수가 지배인이 된후에두 여전히 새것에 민감하구 패기가 있다거니, 오봉산이 이제야 진짜배기 주인을 만났다거니 하며 이만저만 탄복하지 않더라니까.》 하며 정어린 미소를 보내주었어. 어쩐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난 마주 웃지 않았어.

《당신이 또 수고해줘야겠소. 이 흙돌문제는 지배인으로서의 내 능력과 솜씨를 평정해주는 시급석으로 된단말이요.》

이번에도 나는 잠자코 듣기만 했어. 어쩌면 오랜 세월 심혈을 기울여 《흙돌》을 연구해온 장동무는 젓혀놓고 자신의 생각부터 앞세울가 하는 의혹이 들더라말이야.

며칠후 윤희의 첫 편지를 받고나니 의혹은 더욱 짙어졌어. 어찌나 흥분했으면 장동무가 우리 내외를 만난 사연을 전보로 알렸고 윤희, 너는 벌써 마음은 오봉산에 와있다면서 기쁨과 고마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했겠니?

그런데 익수동무의 립장은? 건잡을수 없이 마

음이 번거로와지는데 그날따라 그이의 퇴근이 늦어져서 홀로 애를 태웠지.

그이는 새벽녘에야 들어왔는데 서둘러 몇장의 문건들을 내놓았어. 아마도 낡은 문서들을 뒤져 보다가 얻은 모양이더구나. 누렇게 퇴색한 그 종이장들에 왜놈세멘트공장의 명판이 찍혀있었지. 해방전에 석회석탐사때문에 시추한 자료가 분명한데 그이는 그걸 참고해보겠다면서 나더러 계산해달라는것이였어.

나는 선뜻 대답을 못했어. 이런 계산까지 나한테 의뢰하는것이 리해되지 않아서 한마디 했지. 이런 단순한 계산방법을 잊어버렸는가고말이야. 그랬더니 그이는 지배인이 이따위 계산까지 할 겨를이 있는가 하며 손목시계를 가리키는것이였어. 하기는 곧 날이 밝을 시간이었지.

이튿날 나는 출근하자바람에 계산을 했어. 그리고는 놀랐어. 계산수치들이 하도 엄청나서말이야. 아홉개의 시추구멍 자료들은 석회석함량이 형편없이 적다는것을 말해주었어. 장동무가 이런 돌을 가지고 세멘트를 생산하겠다고 접어들었으랴싶었어. 나는 서둘러 소성직장휴계실옆에 있는 장동무의 방으로 갔어.

장동무는 콧바비와 나란히 앉아서 책상우에 퍼놓은 도표를 보고있었어. 나는 퇴색한 종이장들을 내놓으며 장동무 얼굴을 살피봤어. 장동무는 놀라기는커녕 대범한 기색으로 받아넘기는거야.

《허허… 이 고문서가 보존동무를 놀래운 모양이구만.》 하더니 여러겹으로 접은 도면을 펴놓았어. 도면에는 《흙돌산》을 여러가지 색깔의 구역들로 세분해놓았는데 구역마다 성분분석수치를 밝혀놓아서 복잡한 지질구조를 손금보듯 가려볼수 있더라말이야.

장동무는 노랑게 칠한 귀퉁이를 가리키며 말문을 열었어.

《보오. 이 고문서는 석회석함량이 아주 적은 이 구역의 시추자료요. 하지만 이렇게 함량이 많은 구역이 수도룩하단말이요.》 하면서 붉은색, 초록색으로 칠한 구역들을 짚어보이였어.

나는 감탄과 의혹을 한꺼번에 드러냈어.

《어쩌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어떻게 장악했어요?》

《보존동무 호기심은 여전하구만.》

장동무는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대는것이였어.

장동무도 《흙돌》연구에 착수했을 때 이 고문서를 찾아 계산해보았다지. 아홉구멍의 시추자료를 두세번씩 계산했지만 석회석비율이 엄청나게 낮더라는거야. 하지만 물러설수는 없더라지.

세멘트생산에 써먹으면 나라에 큰 보탬을 주겠는데 막돌루 치부할수가 있는가? 하고 욕부르면서 《흙돌산》에 올라갔다더구나. 뻑뻑하게 우거진 잡관목숲을 헤치고 벼랑을 뚫아오르면서 한구멍 또 한구멍 왜놈들이 시추한 흔적을 찾아 헤맸다지. 아름답드리나무들을 망탕 찍어넘기고 시추기를 끌어올린 자리며 반나마 무너져내려 이끼투성이가 된 통나무시추탑의 잔해, 거의나 메꾸어진 시추구멍 두리에 어지러이 널려있는 쇠붙이들을 보느라니 우리의 땅속 보화를 약탈해가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는 왜놈들을 눈앞에 보는것 같더라지. 록음질은 산발에 험상스런 상처를 입히며 몇구멍 뚫어보고는 통털어 막돌이라고 락인찍어놓은 놈들에 대한 증오가 끓어오르더라더구나.

《...두구보자, 네놈들은 쓸모없다구 켜넌졌지만 기어코 이 흙돌루 세멘트를 구워낼테다! 이 산이 보배산으로 빛을 뿌리게 할테다! 하구 속다짐하면서 나는 이끼투성이 시추탑의 잔해를 주먹으루 두드려부셨소. 그리구는 지체없이 흙돌산의 지질구조를 밝혀내는데 달라붙었소.》

장동무는 여기서 말을 멈추고 입 다물어버렸어. 어서 마저 이야기해달라고 재촉하려는데 꺾아바이가 빙글썸 웃으며 나서시였지.

《도면은 한장이지만 그걸 그리는데 몇년 품을 들었는지 모른다네. 열손가락 손톱이 다 모지라지두룩말이네.》

《아바이두, 무슨 그런 말씀을...》

장동무가 황황히 밀막았지만 꺾아바이는 도리어 눈을 흘기었어.

《잠자쿠 있게. 보순기사가 듣겠다질 않나... 보순기사, 이 장기산 아예 탐사대원이 된것처럼 딱따구리망치를 차구 흙돌산을 메주 밟듯하면서 시료를 떠다가 분석했다네, 저걸 보게.》

아바이는 세면의 벽을 따라 천장까지 들어찬 서류장들을 가리켰어.

《저속에 든 시료봉지가 몇만개지 모르네. 장기산 곁에 드러난거라면 돌뿌다구 하나 남기잖구 분석하구두 성차잖아 땅속으루 들어갔지. 흙돌산의 굴이 아구리는 두개뿐이지만 안에 들어가선 몇십갈랜지 모르는데 마지막갈래까지 다 밟아봐야 한다구 우기더니 끝내 땅속 벼랑에 굴러떨어져버렸지. 윤희기사랑 술한 사람들이 굴속에 들어가서 사흘만에야 돌배낭을 그러안구 쓰러진 장기살 찾아냈는데 어찌나 모지름을 썼던지 손에 상처기가 여러군데나 났더라니까.》

윤희, 너도 장동무처럼 말보다 사색을 좋아하는 속깊은 성미니까 처음부터 고락을 함께 나누며 묵묵히 뒤받침해주었을테지만 꺾아바이의 이야기에 나는 회오리쳐오르는 격정을 누를수 없었

어.

《성하동문 정말... 이런 성실성, 이런 탐구심 앞에서야 자연이 아무리 심술궂은들 자기의 비밀을 드러내보이지 않고 견뎌배기겠어요? 성하동문 우리가 지녀야 할 기술자의 참된 자세를 보여줬어요! 실천으로말이에요!》 하고 소리치고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더구나. 장동무에 대한 탄복과 존경의 감정이 자신에 대한 자책을 몰아오는것이였어.

나는 아주 복잡한 심정으로 지배인실에 갔어. 장동무의 방에서 보고 듣고 느낀것을 죄다 이야기했는데 그이는 반죽종게도 받아넘기더구나.

《아무렴 그 친구가 이쯤한 파악두 없이 견어볼것을랴구? 이젠 됐소.》

하고는 문건을 간종그러가지고 자리를 이는것이였어.

아니나다를가 기술국일꾼들은 더 따지고들지 않았어. 착실히 준비해가지고 2주야간의 시험생산을 하자는 익수동무의 안에 동의하고 올라갔다니까.

그후부터 나는 장동무의 방에 옮겨가서 시험생산준비를 도왔어. 실험과 계산으로 드바빠 지냈지만 나는 익수동무의 사고방식에 대한 의혹과 그어떤 상서롭지 않은 일이 일어날것만 같은 예감이 가슴을 허비는것을 어찌지 못했어.

윤희, 예감은 끝내 현실로 되어 들이닥쳤어.

순조롭게 진척되던 일이 복잡해진건 원료싸이로를 약간 개조해가지고 시험생산을 해야겠다는 장동무의 제기때문이였어. 《흙돌》은 석회석보다 비중이 작고 점성이 크기때문에 싸이로벽의 경사면에 들어붙어 쌓이였다가 무너져내릴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싸이로벽을 더 몰매지게 개조해야겠다는것이였어.

익수동무는 굳이 원고개를 틀었지. 장동무가 수자와 실험자료로 론증해보이며 인내성있게 설복했지만 그이는 예정된 날자를 하루 앞두고 자기 방에 관계자들을 다 모아놓고 시험생산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선포했어. 장동무는 이 상태로 시험생산에 들어가면 네시간내지 다섯시간후에는 원료공급에서 파동이 일어나 불합격품이 나오고 로프리가 뿔수도 있다면서 신중히 처사할것을 촉구했지. 그래도 그이는 우에서 내려왔던 일꾼들과 함께 결정한 날자는 변경시킬수 없다는거야.

맨 뒤자리에서 안절부절하고있는 나는 모임이 끝나자 선참 뛰쳐나갔어. 이제는 나밖에 그이를 제지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다 나오기를 기다렸어.

이윽고 복도가 조용해지자 나는 그이의 방으로

향했어.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어. 빙긋하게 열린 문틈으로 그의 짜증 섞인 음성이 흘러나오더라니 말이야.

《이렇게두 집요하다구야?》

상대는 물론 장동무였어. 아주 대조적인 조용한 어조로 대답했지.

《여보게, 술한 품 들어서 준비한 원료가 다 허실되겠는데 어떻게 마구다지루 내밀겠나? 그뿐인가? 전력과 석탄은 또 얼마나 낭비되겠나?》

《기가 차서 내… 말 그대루 시험생산인데 불합격품이 나올수도 있는게지 100프로 세멘트만 나오겠나? 설사 실패해서 한두번 다시 한다쳐두 그렇지. 그 손실이 광산개발자금과야 대비가 되는가?》

《아니네. 그럴수 없네. 수자루는 대비두 하구 타산두 할수 있지만 기술자의 양심을 흥정할수는 없네.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귀중한 재부를 허비할수는 없단말이네.》

《정 이렇긴가? 이달중으루 시험생산을 해서 시험테타루 론증하겠다고 장담했는데… 그래서 광산개발안을 보류시켰는데 이제 와서 흐지부지하면 내 립장이 어떻게 되나? 실속없는 허풍선 이루 락인찍히구말게 아닌가?》

《뭐? 자네 립장? 그게 그리두 중한가?》

이렇게 되묻는 장동무의 목소리가 아주 무겁게 울렸지.

《좋네, 자네 체면두 세우세. 그러기 위해서두 사이로틀 개조해야 하네. 며칠 늦어지기는 해두 영악없이 성공할수 있다니까.》

《또 그 소린가? 사이로벽이 어쨌다구 야단인가?》

《자네두 참… 비중과 침성이 서루 다른 물질들은 락속도와 형태가 각이하다는거야 분체력학의 초보가 아닌가?》

장동무의 물음에 나는 아래입술을 깨물었어. 그이가 대학때 배운것을 이미 잊어버린것이 아닌가하는 위구때문에말이야. 언젠가 시추자료를 분석하는 단순한 계산을 나한테 밀맡기던 일까지 상기되는것이였어. 게다가 그이는 점점 더 답답한 소리를 하는게 아니냐?

《계산과 추리루 빚어낸 가설을 밍구 그 큰 설비를 뜯어고칠순 없네. 사이로안에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해본다면 몰라두…》

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가는지 한참만에야 장동무가 응대를 하더구나.

《여보게 익수, 내 진심으루 충고하네. 우리가 대학에서 배울 때하곤 시대가 달라졌네. 과학의 새 시대란말이네.》

《여보게, 과학이요 기술이요 하구 혼자만 아는

체말게. 나두 버젓한 기사네.》

《기사라구? 익수, 명심하게. 자네처럼 머리가 텅 비어서 허울뿐인 기술자들이 생산과 기술을 좌우지하는 일이 없었던들 우리 경제가 더 빨리 비약하구 기술두 세계 최첨단에서…》

《닥치게! 25년동안 평기사루 물러앉아있는 주제에 누구앞에서 혼젠가?》

《뭐라구?》

끝내 장동무의 거센 음성이 터져나왔어. 그리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장동무가 치미는 분기를 애써 누르는듯 신음소리 비슷한 한숨소리가 흘러나오더구나.

복도에 나온 장동무는 나를 보고 멈칫하더니 그냥 지나갔어. 그 눈빛이 어찌나 섬찍했던지 나는 장동무의 모습이 사라진후에도 그자리에 굳어져있었어.

가슴저린 죄책감이 밀물처럼 덮쳐드는것이였어.

(쓸쓸한 호프냄새조차 향긋하게 느껴지던 그 밤 《흙돌》을 회전로에 먹이자는 말에 그리도 기뻐했고 윤희한테 전보까지 쳤는데 그 절절한 기대를 저버리고 직권으로 내리누르고 모욕까지 했으니 장동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가? 이제 더는 벗으로도 인간으로도 여기지 않을거야. 그뿐이 아니야. 마음은 벌써 오봉산에 와있다면서 고마와하고 초조해하던 윤희가 알면 얼마나 상심할가? 보나마나 병세가 더 악화되고말거야.)

생각이 이에 이르자 등골이 싸늘해지더구나. 그대로 서있을수가 없었어. 나는 허둥지둥 장동무의 방으로 갔어.

장동무는 머리를 푹 수그리고 책상에 마주앉아 담배를 피우고있었어. 인기척에 피득 얼굴을 들었다가 숙이는데 두눈에서 물기가 번뜩이는게 아니겠니? 여복 고통스러우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막 오그라드는상싶더구나.

《용서해요. 성하동무, 그런… 그런 모욕을 받고 삭이기가 어렵겠지만 날… 날 봐서…》 하고 떠들거리는 내 말에 장동무가 얼굴을 번쩍 들었어. 반도 타지 않은 담배를 비벼끄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거야.

《동문 왜 왔소? 익수가 이 지경 되도록 뭘 하구있다가 용서가 무슨 용서요?》

장동무가 연거퍼 옥다지르는바람에 나는 그만큼 양손으로 얼굴을 싸쥐었어. 흐느낌소리를 터뜨리며 주저앉았어.

《왜? 왜 이러오?》

장동무가 의자를 넘어뜨리며 다가왔어.

《진정하오. 보순동무, 내가… 내가 분별없이 고아댄건 그 무슨 모욕때문이 아니요. 익수… 익수

의 일이 분해서 그랬소.》

장동무는 축축히 젖은 속눈썹이 맞닿도록 두눈을 쪼프렸어.

《생각해보오. 보순동무, 당에서 키워낸 기술자들이 얼마나 많소? 이 기술의 대부대가 자기 본분을 지켜왔다면 우리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겠소? 과학기술에서두 우리가 세계최고봉에 올라서야 하구 그러자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실험기구나 계산기, 책들은 켄버리구 전화통에 매달려 호통이나 치구들 있으니 과연...》

장동무는 격해진 마음을 다잡는듯 잠시 말을 멈췄어.

《나는 차마 익수가... 재능 있구 탐구열 높던 익수가 이 지경이 됐을줄은 몰랐소. 이게 바로 이게 통분해서 참을수 없단말이요.》

장동무는 벌떡 자리를 일었어. 부르짖 주먹이 후들거리고 두눈이 다시 글썽거리었어.

《익수가 언제부터 국가적리익두 안중에 없이 자기... 자기 체면부터 생각하게 됐소? 엄청난 국가재산이 허실되는데는 눈썹 한오리 까딱않구 내려먹이다니? 게다가 자신의 무지까지 드러난다는것두 못생각하구말이요? 사람이 그렇게까지...에잇!》

장동무는 어찌나 애썼던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거야. 나는 저도 모르게 뛰쳐일어났어. 북받치던 흐느낌이 푹 멎어버렸어. 나는 젖은 눈을 습벅이며 장동무를 쳐다봤어.

주름진 얼굴, 악마디진 꺼질꺼질한 손... 불품없이 수척한 그 몸에서 확확 열기가 뿜겨나오는 것 같았어. 오랜 세월 막돌로 버림받은 돌한덩어리라도 한그람의 석탄, 한와트의 전력도 나라의 재부로 아끼는 사람, 야비하게 모욕하는 벗마저 변함없는 우정으로 걱정하고 가슴아파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과학기술, 조국의 오늘과 래일을 통채로 부여안고 몸부림치는 불덩이같은 심장의 열기가 말이야.

송엄한 감정에 싸여 장동무앞에 굳어져 서있는 나한테는 25년을 소성로와 함께 살아온 평범한 기술자가 아니라 조국의 한치 땅을 지키기 위해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는 영웅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

그런데 익수동무는 어쩡나? 과연 이런 사랑, 이런 심장을 안고 살아왔겠나말이야?

생각이 이에 이르자 눈앞이 캄캄해지더구나. 나는 다시 흐느껴오르는것을 애써 누르며 말했어.

《난들... 난들 어찌겠어요?》

《보순동무, 깊이 생각해보오. 동무야 안해일뿐 아니라 기술자가 아니요?》

장동무의 목소리는 어린 동생을 타이르는 오빠의 목소리처럼 다심했지만 격노한 꾸짖음보다 더 아프게 들렸어. 참 밖에서는 키높은 백양나무의 잎새들이 햇빛을 반사하여 반짝거리며 살랑대고 있었지만 마음의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우는것이었어.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아무 말도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고말았어.

익수동무의 처사에 대한 고까움과 그이의 앞날에 대한 근심, 가정을 꾸린지 20년이 넘는데 그이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자책... 가슴 미여지는 번뇌는 퇴근길에서도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 저녁바람에 우듬지들을 휘청거리며 쉼-쉼- 설레는 구내길의 백양나무들이 나를 꾸짖는상싶었어. 누운 나무 그림자들과 저 허청허청 걸어가는 나의 그림자를 매질하는것만 같았어.

나는 더는 이렇게 살수 없다고 결심했어. 그이의 사고방식부터 바로잡아주어야겠다고말이야.

그이가 들어오자 나는 무슨 말로 허두를 떼야 할가 바재이며 저녁상을 들여갔어. 이 일을 어찌면 좋니? 그이는 상앞에 나앉을 대신 《어디 밥이 넘어가게 됐소?》 하고 울분을 터뜨리는게 아니냐?

《장성하. 그 친구가 뭐했는지 아오? 이 윤익수가 허울뿐인 기술자라는거요.》

《그만하세요.. 저도... 저도 복도에서 들었어요.》

《뭐 당신두?》

벌겋게 상기되었던 그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되더구나.

《그래 당신두 같은 생각이라는거요?》

《여보, 지내 흥분했어요. 그만 진정...》

가슴이 미여져와서 빠개놓고 말하지 못하는데 그이는 불같이 재촉하는거야.

《당신두 원료공급에서 파동이 일어나구 로꼬리가 멘다는거요?》

《장성하동문 모형시험을 일곱번이나 했어요. 계산은 매번 제가 했구요.》

《당신이 계산했단말이지...》

마음속의 고임돌이 뒤흔들리는것인지 그이는 어깨가 축 처져서 중얼거리는것이었어.

《그렇다구 모주리 다 불합점품만 나올가? 다문... 다문 얼마라두 세멘트가...》

나는 평소의 그이답지 않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기만 할수 없었어.

《여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싸이로를...》

《아니 늦었소. 방금 기술국에서 전화가 왔댔소.》



《그럼 계획대로 래일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

《그래도… 그래도 장성하동무를 만나 의논해보셔야.》

《뭐라고?》

그이의 음성이 펍 고깝게 울리더구나.

《세월없이 질질 끌어온 연구사업을 하루빨리 성사시켜주려구 올리뛰구 내리뛰구 하면서 애쓰는 친우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구두 모자라서 뭐 허울뿐이라구? 우정두 의리두 모르는 사람하구 도대체 무슨 의논을 한단말이요?》

《아이 어쩌면… 장성하동문 당신때문에 책상을 치며 안타까와하고있어요. 마구다지로 내밀다가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고말가봐말이에요.》

《여보, 그만 피롭히오. 그만…》

그이는 황황히 내 말을 막아치웠어. 그리고는 허둥지둥 몸을 일으켜 옷방으로 올라가는것이였어.

윤희, 거침없이 다가드는 파국을 눈 뵈히 뜨고 기다린다는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당해보지 못한 너는 모를거야. 시험생산이 진행되는동안 나는 줄곧 이루 말할수 없는 불안속에 가슴을 조였어.

아니나다를가 시험생산은 장동무의 예언이 정확했다는것을 론증해주었어. 처음에는 모든 공정이 순조로왔지만 정확히 4시간 40분후부터는 생산공정이 뒤죽박죽이 돼버렸어.

소성로앞에 모여섰던 술한 사람들이 장동무와 익수동무를 번갈아보면서 수군거렸지. 장동무가 그만 중지하자고 했어. 하지만 그이는 들은척도 않고 지령전화로 공정을 수습하라고 조종실에 내리먹이는거야. 공정은 수습되기는커녕 더 심한 파동을 겪다가 끝내 로꼬리가 메고말았어.

장동무가 다시 그이한테 다가갔지.

《그만합시다. 지배인동무, 아무리 원료를 들이밀어도 제품은 얻지 못할겁니다.》 하고 침착하게 말했어. 그이는 말없이 외면했어. 장성하동무의 예언이 에누리없이 들어맞는데 기가 질려선지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는것이 두려워선지 얼굴색이 아주 창백해졌어. 미간에 내리잡혀 꿈틀거리는 주름살을 타고 땀방울이 굴러떨어졌지. 그이는 초점없이 허둥거리는 눈길로 불길과 연기를 마구 내뿜는 로아구리와 사람들을 번갈아보지만 했어.

하지만 백지장처럼 되었던 그이의 얼굴은 곧 검붉게 상기되었어. 그이는 고심스레 찌프린 눈으로 장동무를 마주보며 잘라말했어.

《아니 계속해야 하오. 우에선 48시간동안의 시험테타를 기다리구있단말이요.》

그리고는 소성직장장에게 빨리 로꼬리를 뚫으

라고 지시했어. 조종실에다는 로꼬리가 열리면 즉시 원료를 투입 하라고 오금을 박고.

나는 저도 모르게 아래입술을 꼭 깨물었어.

어쩌면 이리도 완고할가? 기능공양성소 학생들한테도 명백한 로상태에도, 장동무의 진정어린 충고와 사람들의 기대에도 아랑곳없이 직권에만 매달리는것일가?

하지만 의혹은 몇순간의 일이였어.

《동무야 안해일뿐아니라 기술자가 아니요?》

하던 장동무의 말이 되살아올리는것이였어.

그래, 나는 기술자야. 여직껏 나는 고등교육을 받은 기사답게 산다고 자부해왔어. 가정에 묻혀 버리지 않고 남편뒤바라지도 기술자답게 하노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 뒤바라지가 결국은 그이로 하여금 실력을 키우기 위해 애쓰지 않고도 평가받는데 습관되도록 한셈이 아니냐? 그이가 기술자로서의 자신을 상실한것은 물론, 조국을 받드는 자세마저 저버린것이 내탓이라고 한대도 할 말이 없지. 기술자가 탐구와 노력이 없이 평가와 명성을 바랄때는 이미 개인의 리익과 영달을 추구하는 위험한 오솔길에 들어선 때라는것도 모르고 응당 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 대신해주었으니 말이야.

그때까지 애뒀한 눈빛으로 익수동무를 지켜보던 장동무는 후- 소리나게 긴 숨을 내쉬었어. 그리고는 결연히 돌아섰어. 그런데 로꼬리쪽이 아니라 원료싸이로쪽 계단으로 내려가는것이였어.

나는 저도 모르게 뒤따라섰어. 어چه저녁에 《싸이로앞에 들어가서 눈으루 확인해본다면 몰라두…》 하던 그이의 말이 되살아오르더란말이야.

예감이 틀림없었어. 장동무는 아찔하게 높은 원료싸이로 꼭대기로 올라가는거야. 나는 철판계단을 두단씩 뛰어넘어짚으며 다그쳐올라갔어.

내가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는 얼어젖힌 비상출입구앞에서 허리에 바줄을 맨 장동무가 싸이로공과 옥신각신하고있었어. 《흠뉘》가루가 싸이로벽경사면에 들어붙는 상태를 직접 확인해가지고 그이를 설득시킬 수치를 쥐자는것이 분명했어. 하지만 생각하고 따져볼 겨를이 없었어.

《안돼오! 위험… 위험해요!》

나는 숨가빠 웨치며 달려가 바줄을 움켜잡았어.

《언제… 언제 사태져내릴지 모르는데…》

《비키오!》

장동무가 나를 뿌리쳤어.

《동무한텐 익수가 제 손으루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어가는게 안보이오? 우선 멈춰세우구 봐야 할게 아닌가말이요?》

나는 대답대신 흐느낌을 터뜨렸어. 모질게 질책하는 그 목소리에 얼마나 뜨거운것이 서려있는 것이겠니? 그이는 스스로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폭로하면서 분별없이 덤벼치는데 그이를 함정에서 건져내려고 위협을 맞받아들어가겠다니 이보다 더 뜨거운 사랑 더 깨끗한 우정이 어디 있겠니?

나는 장동무가 바줄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해서야 비상출입구에 다가갔어. 랑손으로 출입구가장 자리를 잡고 주저앉아서 그칠줄 모르는 눈물속에 장동무를 지켜봤어. 그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더니 드디어 어둠속에 녹아들고말았어.

그러자 새로운 불안이 덜미를 잡더구나. 로꼬리가 열리면 즉시 원료를 투입하라고 오금박턴 이수동무 말이 상기되더라말이야.

장동무가 싸이로에서 나오기전에 로꼬리가 열리면 어쩌나? 원료투입을 시작하면 그때...

생각에 앞서 숨이 콕 막혀오는것이였어.

내가 다급히 소성로대로 달려갔을 때 그이는 송수화기를 잡고 뭐라고 소리치고있었어. 소성로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나는 무작정 송수화기를 덮쳐잡았어.

《중지해요. 중지! 싸이로에 사람... 사람이 들어갔어요.》

《뭐 사람이? 누가?》

그이가 놀라 물었지만 나는 먼저 송화기에 대고 소리질렀어. 원료투입을 중지시키고야 대답했어.

《뭐? 장성하가 들어갔다구?》

《당신... 당신을 설득시킬 수치를...》

나는 눈물이 솟구쳐올라서 까뻍혀 말하지 못했어. 그이의 얼굴에서 착잡한 표정이 엿갈렸지. 그것도 몇순간, 그이는 전율하듯 온몸을 떨더니 계단으로 달려갔어.

우리가 다우쳐올라갔을 때 싸이로 꼭대기에서는 팍아바이가 허리에 바줄을 매고계셨어. 그이는 당장 싸이로안에 뛰어들듯이 상반신을 출입구에 들이밀고 소리쳤어.

《장성하동무! 성하동무!》

연거퍼 불렀으나 궁글은 메아리만이 울려나왔지.

《성하!》

흐느낌절반의 절통한 목소리로 부른 그이는 움쭉 몸을 일으켜 팍아바이한테 다가갔어. 막무가내로 바줄을 풀어서 자기 허리에 매고 싸이로안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어.

이윽고 돌가루투성이가 되어 축 늘어진 장동무를 업은 그이가 바줄에 매달려올라왔어. 지체없

이 장동무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에 간 그이는 이튿날 이틀밤을 꼬박 침대머리에 지쳐앉아있었어.

마음속고통이 어쩌나 모질었던지 판사람처럼 눈확이 콕 꺼지고 조갈이 들어 입술이 터갈라진 그이는 장동무가 의식을 회복하자 두손을 그려잡고 사과했어. 그리고는 심장이 짜늘하게 식고 머리가 텅텅 비었다면서 지배인자리를 감당해내지 못하겠다고 제기하겠다고 했지. 장동무는 별떡 몸을 일으키며 말을 막았어. 심장은 다시 불태우고 머리는 채워넣으면 된다는거야. 너무나 까마득하게 뒤졌다며 도리머리를 젖는 그이한테 장동무는 이렇게 말했어.

《사람두... 내가 있지 않나? 자네네 2중창을 멋지게 반주한 반주자가말이네.》

《아니네, 자넨 반주자가 아니네.》

그이가 장동무의 손을 콕 틀어쥐며 부르짖었어.

《자넨 지휘자네. 우리 인생의 지휘자!》

장성하동무가 퇴원하자 그이는 며칠동안 지배인실을 잠가놓고 장동무의 방에 들어박혀있었어. 그리고는 원료싸이로 개조를 직접 틀어쥐고 지휘했지. 두번째 시험생산에서 성공한후 한달만에는 공장의 모든 소성로들에 《흙돌》을 받아들이게 되었단다.

윤희, 내가 너한테 전하고싶은건 이게 다다. 못내 놀랍고 또 분개하기도 했겠지? 용서해다오.

아무튼 편지를 끝내고보니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것처럼 온몸이 거뜨해지는구나. 나한테는 물론 가까운 모든 사람들과 사회앞에 진 마음의 빛을 다소나마 갚았으려니 하는 생각에서랄지...

윤희야, 나는 오봉산에 다시 내려온걸 후회하지 않아.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변함없이 맑고 뜨거운 장동무의 우정의 《포화용액》속에서 삶의 보람이란 무엇이며 참된 행복이란 어떤것인가 하는걸 체득했고 뒤늦게나마 우리 내외가 인생의 새출발을 하게 되었으니말이야.

그 어떤 지위도 영예도 바람이 없이 성실한 노력과 탐구로 부단히 실력을 키우며 우리의 과학기술과 조국의 미래를 통채로 부둥켜안고 가슴불태우는 장동무를 본보기삼아 살아나가려는 우리 내외의 결심을 윤희가 이해해주리라 믿으며 이만 그친다.

윤희가 하루빨리 완쾌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오봉산에 돌아오기 바란다.

반가운 상봉의 날을 가슴 조이며 기다리는 벗보순.

## 대학으로 떠나며 외 1 편

정성환

잘 있거라  
나의 작업반이여  
정이 얹힌 한집안식구런듯  
손잡아본적도 드물었더니

잊지 말라고  
대학에 가셔도 잊지를 말라고  
구슬땀 함께 땀군 장알박힌 손들이  
내 어깨를 짊 그리안아줄 때  
남긴 대답은 그저  
울컥 솟구치는 눈물뿐이었구나

너의 품에서 내가 자랐다  
새들은 한번 동지를 떠나면  
어미품에 다시 나래 접지 않건만  
키워준 그 진정 못잊는 이 마음

저 탈의실 옷걸개에  
내 작업복이 없을 때  
법석 났던 설참에  
내 목소리가 없을 때  
나무람 말아다오 작업반이여

세월의 흐름에 이내 모습이  
그대들의 기억에 삭막해진대도  
모범작업반의 사진을 찍거들랑  
그것만은 정녕 잊지를 말아다오  
사랑하는 사람들아 부탁한다

내가 설 자리, 내 마음이 설 자리만은

내 창밖은 교실에서  
손바닥 못이 풀린다해도  
잊지 못하리  
한고뿌 찬물도 서로 권하고  
한점 모닥불결도 서로 양보할줄 아는  
그 진정 배운곳을

건설장과 한생 인연맺어도  
아직은 친숙못할 암벽이 있어  
과학의 깊은 속마음에  
이 마을 허물없이 주고받고저  
희망찬 배움터로 떠나가나니

잘 있거라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과  
당에 대한 뜨거운 의리를  
성스런 밤으로 일깨워준 품이여

기다려다오 기다려다오  
탐구의 열쇠 찾아들고 내 다시 오는 날  
휘황한 미래를 안아올  
과학의 더더욱 큰 문  
우리 함께 열어제끼자  
내 로동의 고향  
정다운 작업반이여

## 건설자들이 지나간다

벌써 가누나  
건설자들이  
가로수 잎새에 맺힌 이슬  
해빛에 빛나보기도전에  
기발을 날리며 숙소를 떠나

창문을 열자 사람들이여  
건설자들이 지나간다

같은 세월에도 앞서 살줄 아는  
그 장한 사람들이 지나간다

만약 우리 집도 그대들이 지었다면  
한번 올라다 보교라도 같게지  
섬섬하다  
결눈도 팔지 않는 건설자동무들아

웅장한 거리들을 세우는 일이  
응당한 일이어서 무관심인가  
집주인의 눈길도 못미칠 구석까지  
량심을 새기고 간 땀뿔함인가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와 손대지 않는  
결어간 자옥에 후회를 모르는 그들  
아름답고 행복한 이 거리 모습을  
온몸으로 느끼며 가는지도 몰라

안해여, 칼도마소리 높이라  
부엌의 향취 거리에 넘치게  
첫새벽에 일터로 떠나는 건설자들 공지가  
여기서 더해질지 어이 알라

건설자들이 지나간다  
장한 사람들이 지나간다  
귀밑머리 희끗한 아바이도  
면도날은 얼굴에 대보지도 못했을 애젊은이들도  
로동과 해빛 비바람에 다듬어진  
얼굴들을 높이 쳐들고

어머니당의 손길따라  
만년대계 행복을 다지려 간다  
송이송이 창가의 고운 꽃 골라  
아름아름 가슴마다 안겨주고픈  
이 거리 사람들의 사랑을 불러내며

## 나는 교단에서 집을 짓는다

한용길

여기선 들을수 없다  
드바쁜 건설장의 소음소리  
긴팔 휘젓는 기증기  
신호공처녀의 칭찬 호각소리  
익살좋은 타입공들 그 웅글진 목소리도

들을수 없다  
여기 나의 교단에선  
배관을 이어가는 용접의 소음도  
부재를 물고 용을 쓰는 기증기의 동음도  
준공을 앞두고 창문을 달며  
행복에 겨워 나누는 건설자들의 속삭임도

허나  
칠판을 마주한 크지 않은 교실  
여기서 나는 본다  
또 나는 안는다  
나를 바라보는 저 눈길들  
사색을 모아가는 저 얼굴들에서  
건설장의 벽찬 숨결을 안는다

이들속에 있다  
새 시공법을 창안할 기사도

새로운 건축설계안으로  
일떠세운 자랑찬 기념비들과 함께  
시대앞에 나선 창조의 영웅들이

정녕  
내 심혈 들인 강의안의 글줄로  
교단에서 울리는  
내 석심한 목청의 여운소리로  
대기념비적건물들과 함께  
그 창조의 주인들과 함께  
삶을 같이하는 교원의 기쁨이여

오,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을  
내 삶의 전부로 안고사는 기쁨이여  
아름다운 새 거리 새 집을 바라보며  
뿌듯한 긍지를 느껴안은 기쁨이여

이 기쁨  
내 한생 안고 살며  
지으리라 더 많이 지으리라  
우리 식의 새집들을  
과학의 열쇠로 주체건축의 대문을 열며  
떠날수 없는 이 교단에서

## 요구

김명진

점심시간이었다.

철근구조물들이 숲처럼 일어서고 산악같은 연제가 키를 솟구는 발전소건설장의 한가운데서 기타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람들의 가슴을 그윽하게 그려주며 물결치듯 울려퍼지는 기타소리...

그 우아하고 부드러운 선물에 끌려 방금 점심을 치르고 난 건설자들이 기타수의 주위에 모여 들었다. 처녀들은 부끄럼도 있고 기타수의 무릎 가까이 다가왔으며 나이 지숙한 사람들도 웅기중기 둘러서 담배를 꼬나물고 귀를 기울이었다. 보위색모자를 단정히 눌러쓴 영순중대장도 그들 뒤에 서서 기타소리에 심취되어있었다.

다만 한사람 석대준참모만이 그들과 조금 떨어져 무거운 빛으로 천천히 거닐고있었다. 눈썹이 길고 코마루가 두드러져 좀 고집스러워보이는 그는 어딘가 불만스러운 눈길로 기타수며 관중들을 굽어보곤했다.

그는 얼마전까지 언제건설의 한모퉁이를 담당한 중대장을 하다가 승급되어 지휘부의 참모성원으로 되였었다.

하지만 현장을 이내 뜨지 못하고있었다. 자기 후임으로 온 영순이가 마음놓이지 않아서였다. 영순이는 현장에서 타입공으로 일할 때 사람들의 눈에 돋보이는 처녀였었다. 건설장에 맨먼저 배낭을 풀어놓은 그때부터 여섯해를 고스란히 돌격대생활에 바쳐온 그는 일에서 막히는데 없는 혁신자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줄 아는 선동원이었다.

그랬던 처녀가 얼마전 뜻밖에도 중대장으로 임명받은것이다. 발전소건설장에서 흔치 않은 녀성 지휘관은 못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거치른 일터에 한떨기 꽃처럼 신선한 기운을 풍기는 이 처녀를 건설자들은 호기심과 찬란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미쁜 눈길들중에는 한가닥 우려를 품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중대를 넘겨준 대준이가 바로 그랬다. 대원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두드러져보이던 처녀가 정작 중대장이라는 직무를 맡겨놓으니 어딘가 미흡해보이는것이였다. 언제나 발랄한 기운이 넘치는 탁략한 몸매도 체소해지고 시련속에서 부대껴온 강의한 마음도 어디에 흘러버린듯 연연해보였다. 각지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을 다루어내자면 손탁이 드세어야 하는데 섬약한 처녀가 과연 중대를 통솔해내겠는지...

그중에서도 코대가 센 기중기운전공 재호와 같은 사람들을 영순이가 어떻게 휘여잡아내겠는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래서 대준은 중대를 인계하고도 지휘부의 승인을 받고 영순이의 중대에 눌러앉아있느터였다. 당분간 옆에서 그를 도와줄 생각이였다.

기타소리는 여전히 흘러나왔다. 재호가 늘 부르는 지정곡 《내 고향의 시내물》이였다. 부드럽고 은은한 그 선물은 들쭉이 만발한 고향의 언덕이며 버들개지가 하얗게 드리운 주절거리는 내물소리를 실어오는듯했다.

영순의 서늘한 눈이며 홍조가 얹게 어린 볼, 도톰한 입술에는 그윽한 미소가 어렸다.

그가 기타소리에 심취해들어갈수록 대준이의 가슴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그늘이 비껴들었다.

(중대장이 재호의 기타소리에 끌려들어선 안되겠는데...)

누구의 말도 귀박으로 흘러드는 데설곳은 기중기운전공, 자기의 손탁에도 휘여들지 않던 재호의 기타소리에 영순이가 처음부터 취해버리는것이 불안했고 불만스러웠다. 그렇게 마음이 연연해가지고야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내겠는가.

실은 대준이도 한때는 괜찮은 기타수였다. 군대에 있을 때 기악중주에 끼여련대경연무대에 올라 꽃다발을 받은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 그런적이 있었는가싶었다. 그때는 한개 분대를 책임진 병사였고 단순한 기타수였지만 오늘은 수많은 대원들을 거느린 지휘관이다. 우안언제를 일떠세우는 무거운 임무가 그의 어깨에 지워져있는것이다. 그때처럼 연주를 한다는것은... 아니, 일에 물리운 그는 이미 기타를 놓은지 오렸고 음악세계와는 점차 멀어져갔다. 모든 의지와 힘을 발전소건설에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오직 언제가 보이고 타입이라는 《전투임무》만이 중요한것이다.

대준이가 가까이 다가서자 영순은 깊은 감동에서 깨어나 속삭이듯 말을 건넸다.

《참 재간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우아한 소리를 낼가요?》

영순의 눈빛은 그윽했다. 모자를 가볍게 뒤로 눌러쓰고 보위색작업복을 가끈히 입은 그는 모든 것이 꼭 맞고 산뜻해보였으며 신선한 기운이 풍기였다.

이 처녀는 재호의 기타소리에 그렇게 매혹되었는가?... 대준은 문득 언제인가 영순에게서 학창시절부터 음악에 남다른 취미를 붙여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다.

《중대장동무도 그런 소질을 가지고있는것 같던데...》

《그저 마음뿐이에요. 틈있으면 기타며 바요린을 쳐보곤하지만 아직 어느 한 악기도 익히지 못했어요...》 영순이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고나서 말을 이었다.

《저에게는 아마 예술적소질이 없는가봐요.》

그는 단지 열렬한 음악애호가로 명곡을 즐겨 감상하고 음악세계에 잠겨들곤한다는 것이었다.

영순이가 평범한 대원이라면 그것을 조금도 탓할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 그는 수십명의 대원을 거느린 지휘관이 아닌가... 아니다. 이 처녀가 더는 감상적인 기분에 잠겨들게 해서는 안된다. 그는 재호와 같은 연주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참된 지휘관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준은 사색에서 벗어나 영순이를 바라보며 신중하게 입을 뗐다.

《중대장동무, 참된 음악은 거기에 있지 않소. 난 이 건설장의 거창한 숨결을 하나의 훌륭한 교향곡으로 듣고있소.》

《...》

《그런데 그 교향곡에 불협화음이 생기고있거든. 재호동무말이요. 그는 기타는 능숙히 타지만 건설장의 숨결에는 호흡을 맞추지 못하고있단말이요. 자기의 조심스런 걸음새를 조금도 변경하려 하지 않고있으니...》

대준이의 말에는 재호에 대한 불만이 짙게 어러있었다. 기타수로 인기를 끌고있는 재호는 또한 건설장에서 무난히 살줄 아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의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를 두고 익살꾼들은 《무사고주행의 명수》로 부르기도 했다.

그가 실수를 저지른적이 한번 있었다. 지난해 봄, 건설이 본격화될 때 재호는 결사관들의 말을 듣고 기중기의 작업속도를 높이다가 큰 물의를 일으켰다. 변속장치에 고장을 일으켜 하루동안 작업을 중지하게 되었고 그자신은 되게 비판을 받았었다.

그때 가슴이 얼어들었는지 재호는 본래의 자세로 돌아와 아주 소심한 사람으로 돼버렸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미 굳어져버린 자기의 걸음새와 속도를 좀처럼 변경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보신성이 비록 실수는 빚어내지 않는다 해도 80 년대의 진군길에 제동기로 되고있지 않는가.

발전소건설을 10 월 10 일전으로 끝내려고 모두가 서해갑문건설식으로 일하고있는 때에 자세를 바로 하고 걸음걸이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다.

대준은 대원들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지휘관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강한 요구, 이것만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다. 모두가 뛰고있지만 아직 재호처럼 우물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조건에서 지휘관들은 더욱 날을 세워야 한다.

대준은 얼핏 시계를 굽어보고 이마살을 찌프렸다. 시침이 벌써 한시를 가리키고있었다. 그런데 기타소리에 끌려든 건설자들은 작업시간이 다 되

었다는것도 잊어버린듯했다. 지어 영순이까지도...

《작업시작!》

대준은 큰소리로 웨쳤다.

그 소리가 너무 갑자기 울리어서 사람들은 와들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기타소리만은 아닌보살하고 타던 곡을 마저 울리며 긴 여운을 남기었다.

《저 소리를 맺고 끊듯이 만들어놓아야 할텐데...》

대준은 쓰거운 빛으로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고나서 영순이에게 강조하듯 말했다.

《요구성을 높여야 하오. 방망이가 약하면 썰기가 솟는다는 말이 있지 않소. 재호와 같은 사람에게는 더욱 그래야 하오.》

그 말에 영순이는 가볍게 웃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것 같지 못해요.》

《허, 대가 그렇게 약해선 안되지. 이제는 자신뿐 아니라 대원들을 책임지고있다는걸 잊어선 안되오.》

《...알고있어요.》

영순이는 눈빛이 그윽해져 머리를 다소곳이 수그리었다. 대답은 또렷했으나 어딘가 자신없는 빛은 자신이 할바에 대해서 리해의 부족을 느끼는듯싶었다.

들끓는 전투장, 언제가 키돋음해 솟아오르고 각가지 음향이 흐르는 거센 숨결, 그 건설의 교향곡을 지휘하기에는 영순의 힘과 기량이 부족한듯했다. 언제벽면에 그린 대형벽화에서 적함을 향해 멸적의 사격구령을 내리는 《월미도》의 영웅중대장처럼 그런 담력과 패기를 지니었으면...

대준은 처녀의 갈람한 몸에서 지휘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수 있는 힘과 기질을 엿볼수 없는듯 싶어 가슴한구석이 허전해졌다.

× ×

해가 기울자 건설장에는 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했다. 중대부가 자리잡은 목조건물의 방에는 불이 켜졌다.

대준은 지휘부에 오늘 전투실적을 전화로 보고하고나서 마음이 무거웠다. 하루의 몰탈타입량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있는 것이다. 교대당 900 톤방을 하기가 어려웠다. 어디에서 지장을 받고있는가. 풀수 있는 방도는?...

대준은 재호의 기중기를 대담하게 상단주행로에 올려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직 아래단에서 발을 떼기는 일렀지만 높아가는 언저리에 련속타입을 보장하자면 기중기를 보다 빨리 위로 끌어올려야 했다.

대준은 자기의 구상을 영순중대장이나 재호에게 내비치지 않았지만 이미 미룰수 없는것으로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섣뜻 용단을 내리지 못하는것은... 기중

기를 옮기자면 하루품을 들여야 한다. 그 하루가 아까와 대준은 결심을 못내리고있었다. 분과 초를 아껴가며 건설을 다그치고있는 때에 하루동안 작업을 중단하다니 될 일인가. 그리고 재호가 또 어떻게 나오겠는지...

재호에게 생각이 미치자 대준은 저절로 이마살이 찌프러졌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불쾌하게 떠올랐다.

방금 휴식을 끝내고 작업시작구령이 울렸는데 기중기는 날래 움직이지 않았다. 주행로에는 벌써 몰탈차들이 주련이 늘어서고 신호수는 기발을 들고 안타깝게 기중기를 쳐다보고있었다.

《기중기! 기중기!》

대준이가 성급하게 우에 대고 소리쳤으나 기중기의 동음은 울리지 않았다. 화가 오른 그는 쇠사다리를 타고 꺾짜게 기중기우로 올라갔다. 운전실에 이르러 문을 나꾸채듯이 열어제꼈다.

《동무! 뭘하고있소?!》

불이 켜 이눈길로 재호를 쏘아보았다. 재호는 무릎우에 종이를 펴놓고 무엇인가 그려넣다가 깜짝 놀라 연필을 떨어뜨리었다. 대준이가 불세라 종이장을 구겨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저아래 대기하는걸 보지 못하냐말요?!》

대준이가 또 닭아세우자 그에 대답이라도 하듯 《부르릉!》 하고 기중기가 흠뻑 몸을 떨었다.

그때 대준은 운전실 한모퉁이에 걸려있는 기타를 보았다. 어제는 작업장의 분위기를 마구 흐트러놓더니 오늘은 기타를 운전실에까지 끌어올리고...그 무슨 악상이 떠올라 종이에 적어넣느라 작업에까지 지장을 주는게 아닌가.

《동문 왜 그렇게 채심을 못하고요?... 저녁에 중대장동무를 찾아가 자기를 총화짓소.》

대준은 기중기를 운전하는 그를 더 힐책할수 없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아래로 내려왔었다.

이렇게 늘어진 친구들을 데리고 어떻게 작업실적을 올릴수 있겠는가.

얼마후에 문이 열리더니 영순이가 들어섰다. 작업총화를 짓고 온 그의 얼굴은 싸늘한 저녁바람에 쪼여 홍조를 띠고있었다.

대준은 기다렸던듯 물었다.

《재호동무가 찾아왔댔소?》

《...오지 않았습니다.》

대준은 담배를 붙여물고 신중히 말을 꺼냈다. .

《아무래도... 그 동무의 운전문제를 고려해보아야 할것 같소.》

《고려하다니요?》

《그렇게 늦장을 부리는 친구를 기중기에 그대로 앉힐수 없지 않소.》

《참모동지, 그 동무는 기중기에 누구보다 밝아요. 일에 투신력은 약하지만 탐구심이 있어요. 오늘 일은 무슨 까닭이 있어 그랬을거예요. 그라고 왜 큰결음을 떼지 못하겠어요? 전 믿고싶어요.》

(민다니? 무얼 보고 그렇게 생각하오?...)

대준은 영순이가 까닭없이 그를 두둔해나서는 듯싶어 한순간 짧은 생각이 들었다.

《합숙으로 가는 길에 그 동무에게 들려보지요.》

대준은 영순이를 달고 방을 나섰다. 재호에게 들려서라도 오늘 일에 대한 자기 반성과 결심을 들어본 작정이였다.

합숙은 산기슭에 림시건물로 길게 늘어났었다.

개울을 건너 마당에 들어선 두사람은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어디선가 기타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고요한 수면을 스치는 미풍처럼 나직이 흐느적이다가 차츰 물결이 이는 선물... 어딘가에 수를 띤 음색이였다.

누구일가? 혹시 재호가?...

대준은 쓰거운 빛으로 영순을 돌아보았다. 그 눈길은 마치 영순이에게 《보오, 그 친구가 어떻게 자기를 반성해보고있는가.》 하고 말하는것 같았다.

대준은 기타소리가 울리는곳으로 곧추 걸어갔다. 손기척도 내지 않고 문을 잡아당겼다.

아닐세라 기타수는 재호가 울었다.

그는 침대에 걸터앉아 기타우에 머리를 수긋하고 굵고가는 선을 한손으로 감싸며 날렵하게 두들기다가 푹 멈추었다. 가냘픈 선물은 흐트러지며 끊어졌다.

(속은 편안하군.)

대준은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를 반성해보는것이 아니라 셈평 좋게 기타를 타고있다니?...

그의 엄한 눈길을 받은 재호는 재구를 친 소년처럼 풀이 죽어서 엉거주춤해 일어섰다. 한손에는 기타를 몸의 매놓을수 없는 한 부분처럼 들고...

《동문 왜 중대장동무를 찾아오지 않았소?》

대준이의 말에는 저으기 가시가 돋혔다.

재호는 고개를 외로 돌리고 굳어진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 뻣뻣한 자세가 대준에게는 몹시 거슬리었다.

그는 푸쩍없이 말했다.

《동문 아직 채심을 못하고있는것 같구만. 자기를 돌이켜보려고 하지 않고... 이게 뭐요? 그런 애수를 띤 노래가 누구에게 필요하냐말이요?》

《뭐요?》

재호는 더 참고있을수 없는듯 머리를 번쩍 들었다. 이그러진 얼굴에서 눈빛이 타는듯이 보였다.

대준은 그 눈길에 맞불질을 하며 경멸어린 말을내뱉었다.

《다시는 여기서 기타소리를 내지 마오!》

재호는 본격을 누르지 못하고 기타친 손을 부르르 떨었다. 대준을 한순간 쏘아보며 가슴을 들먹이던 그는 《에익!》 하고 손에 들었던 기타를

책 췌뿌리였다. 기타는 깨지는 소리를 내며 땅에  
딩굴었다. 그 서늘에 팽팽히 행기웠던 가운데 선  
하나가 툭 끊어져나갔다.

하지만 재호는 별떡 일어서 바람을 쐬 일쿠며  
문을 차고 뛰어나갔다.

《재호동무!》

옆에서 지켜보던 영순이가 소리쳐 불렀으나 그  
는 벌써 밖으로 곧추 사라져버리고말았다.

대준은 재호의 경거망동을 지켜보다가 쓰겁게  
입을 다시었다.

《허참, 어찌는수 없군.》

영순이는 땅바닥에서 그때까지 가느다란 여음  
을 내는 기타를 집어들고 재호를 뒤쫓아나가려다  
가 대준의 눈길에 부딪쳐 서버렸다.

《그건 무얼 가져다주려고 하오!》

대준이의 뿔뿔한 눈은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영순이는 아래입술을 꼭 깨물고있다가 긴 속눈  
썹을 치켜 들었다.

《참모동지는 지나쳤어요.》

《그 친구에게는 그런 말이 필요하오.》

대준은 호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꺼내물었다.  
라이타불을 켜대는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있었  
다.

영순의 목소리는 갈리었다.

《물론 참모동지의 요구는 옳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차거운 입김으로 어떻게 그 동무의 가슴  
을 덥혀줄수 있겠어요?》

《?》

《한때는 기타를 연주했던 참모동지가... 오늘은  
왜 재호동무의 가슴에 비껴있는 지향을 불줄 모  
르는지, 그것을 살려주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  
어요...》

대준은 뜻밖의 의견을 받고 얼굴이 불깃해졌다.  
원칙적요구를 하는데 대해 오히려 불만을 가지다  
니? 그는 재호의 기타연주가 마치 발전소건설에  
그 어떤 기여라도 할수 있는듯이 생각하고있지  
않는가? ...

대준은 한순간 자존심이 상했으나 마음을 녹жат  
혀 년장자다운 아량을 보였다.

《중대장동무, 내가 너무 지나치게 굴었는지 모  
르겠소.

그러나 동무도 이제 리해하게 될 때가 있을거  
요. 지휘관의 요구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지금  
은 우리 모두의 지향과 힘을 발전소건설에 바칠  
것을 요구하고있단말이요.》

영순이는 잠자코 듣고있을뿐 더 대꾸를 하지  
않았다.

밖에서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저녁식사를 하고  
난 대원들이 방으로 들어섰다.

대준은 영순이에게 무엇인가 더 말하고싶은 생  
각이 있었으나 단념하고 방에서 먼저 나오고말았  
다.

×

이튿날 저녁무렵, 대준은 지휘부의 총화모임에  
참가했다가 바쁜 걸음으로 돌아오고있었다. 그는  
이제 영순중대장을 만나볼 생각이였다. 어제는  
기분이 상해 영순이에게 할 이야기도 다 못했는  
데 오늘은 조용히 일깨워주려는것이였다. 그러면  
그도 자기를 리해하게 되고 속대가 차츰 굳어지  
리라고 생각했다. 만났던김에 재호의 기증기를  
상단주행로에 올려놓는 문제도 의논하려고 했다.

북천강기슭에는 노을빛이 스러지고 어스름이  
깃들고있었다. 언제우에서 병긔거리는 무수한 용  
접불빛이 건설장의 저녁풍경을 장식했다.

문득 은은한 기계의 동음들사이로 어디선가 기  
타소리가 울려왔다. 소슬한 바람에 실려 끊길듯  
말듯 들려오는 《결전의 길로》였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귀기울이는 대준의 가슴은  
야릇한 흥분으로 설레였다. 그가 즐겨 불렀고 련  
대공연무대에까지 올렸던 전시가요, 들을적마다  
가슴에 더운 피를 끓게 하는 선율...

그런데 장중하게 울려야 할 노래의 음색이 맞  
지 않고 공허하게 들려왔다. 줄을 맞추지 않았는  
가, 아니면 기타를 배우는 사람이 타는것일가, 재  
호가 저렇게 탈수는 없는데...

걸음을 옮겨가던 대준은 주춤 떴어섰다. 기타  
소리는 끊어 지고 강기슭쪽으로 돌아왔은 두사람  
이 보였다. 부푼 머리를 다소곳이 수그린 처녀와  
기타를 비스듬히 안은 청년...

방금 노래를 서툴게 타고난 기타수는 그린듯이  
앉아있는 처녀에게 말을 건넸다.

《안되누만, 선을 대강 이어놓았더니 노래가 망  
태기가 되거든.》

재호였다. 대준은 어쩐지 후두두 뛰는 가슴을  
가까스로 누르며 몇발자국 물러서 영순의 말을  
기다렸다.

《선은 제가 구해보겠어요.》

《그만두시오. 이 깊은 산골에서 어디 가서 그  
런 선을... 난 기타를 아주 놓으려고 하오.》

《놓다니요?》

《이런걸 달가와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말이  
요.》

《재호동무답지 않군요. 이제 얼마후에 경연을  
하겠는데... 그런 말을 쉽게 해요?》

《...》

《전 그래도 재호동무의 꿈과 지향이 높은줄 알  
았는데...》

《나도 이제는... 나래를 퍼보려고 생각하오. 하  
지만 그 위훈이란 말을 쉽게 하고싶지 않소. 어  
떤 사람들은 하자는 일에 선뜻 몸을 내대야 혁신  
자로 일러주지만... 그 위훈도 과학적담보우에 서  
야 빛을 낼게 아니요? ...》

《그런데 어제는 왜 그랬어요?》

《내 불찰이였소. 문득 떠오르는게 있어 종이에  
그려보다니니... 한번 들어보겠소?》



재호는 기타를 안더니 한손으로 힘있게 두들겼다. 그것은 여러선들을 한꺼번에 올려보는 크고 장중한 선률이었다.

강의 상류쪽에서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두사람은 머리를 수긋하고 땅바닥에 몸을 그으며 그 무슨 애뜻한 이야기를 나누는듯싶었다.

(두사람이 저런 사이였는가?)

대준은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이미 푸른 계절을 흘러보낸 그는 두사람의 이야기를 엿듣는것이 아름답지 못한 일로 여겨졌다. 가슴에는 영순이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내리는듯하였다.

내가 너무 눈치가 무디었군. ...이제는 영순에게 품었던 한가닥 의혹이 풀리는듯싶었다. 그가 재호를 까닭없이 두둔해나서고 강한 요구를 제기할수 없었던것을...

등뒤에서 두사람이 자기를 알아보는듯싶어 대준은 허겁지겁 걸음을 내짚었다. 강기슭을 퍼그나 벗어나서야 그는 단거리경주라도 하고난듯 심장이 후둑후둑 뛰었다.

놀라움이 휩쓸고 지나간 가슴에는 불현듯 그 어떤 쓰라린 실망과 아픔이 지지고들었다. 자기의 연약성을 극복하고 참된 녀성지휘관이 되어주었으면 했던 기대, 데실곳은 재호마저 손탁에 넣기를 기다렸건만... 이제는 그 모든것이 부질없는 일로 되지 않았는가.

영순이는 지휘관의 립장과 풍모를 잃고 어떻게 쉽게 재호에게 끌려들었을가. 재호의 무엇을 보고 반해버렸을가.

문득 휴식참에 타군하던 재호의 건드려진 기타 소리가 울려왔다. 그 오묘한 선률에 한껏 심취해버리던 영순이, 《어쩌면 그렇게 우아한 소리를 낼까요?》

영순이는 분명 재호의 그 인기에 넘어갔을것이다. 하긴 처녀들은 그의 기타소리라면 오금을 못쓰고 반하곤하니까. ...

하지만 영순이는 자기가 대원들을 거느린 지휘관이란것을 잊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발전소건설을 앞당기어야 할 긴박한 시기. 한 지휘관이 제구실을 못하면 키دون음해가는 언제에는 그만큼 공간이 생기게 될것이다.

대준은 전에없이 가슴이 무거워지는것을 느끼며 어스름속으로 걸어갔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향방없이 자꾸 걸기만 했다.

× ×

아침에 대준은 조금 늦어 현장으로 나왔다. 작업은 벌써 시작되고있었다. 영순이가 손에 신호기발을 들고 기중기의 작업을 직접 지휘하고있었다.

그는 대준을 보더니 기발을 신호수에게 넘겨주고 다가왔다.

《어제저녁에는 어디 갔됐어요? 찾아가니 계시

지 않더군요》

《일이 좀 있어서...》

대준은 어쩌선지 뜬뜬한 빛으로 영순의 눈길을 피했다. 영순이는 조그만 수첩을 꺼내펼치며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기중기문제를 토론해보려구요. 방도가 생길것 같아요...》

(그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결심되어있소.)

대준은 마음속으로 대꾸했다.

《저녁시간에 찾아가 토론하겠어요...》

영순의 말을 등뒤에 들으며 대준은 몰탈혼합장 쪽으로 걸어갔다. 영순이는 기중기문제를 어떻게 토론하자고 하는가? 어제저녁에 재호와 무슨 이야기를 나눈것 같은데...

《저, 참모동지!》

뒤에서 영순이가 다시 힘들게 찾았다. 대준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비끔 돌아보았다. 혹시 기중기문제를 지금 꺼내려고 하는게 아닐가?...

영순이는 몇걸음 걸어와 어쭙은 빛으로 입을 뻗었다.

《혹시... 기타선을 가지고있는게 없어요?》

《기타선?》

대준은 뜻밖의 소리에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난 그런걸 잊은지 오래오.》

대준은 몸을 돌려 앞으로 걸어갔다.

영순이는 무안을 당한듯 얼굴이 빨개져 그자리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그 처녀의 실망한 눈길을 느낀 대준의 마음은 좋지 않았다. 내가 너무했는가? ... 하지만 그가 설마 기타소리를 다시 꺼낼 줄은...

이날 오후에는 비가 내렸다. 찌뿌둥하게 흐린 하늘에서 비줄기가 비스듬히 내려쨌었다. 건설장에서는 부득이 손을 떼지 않으면 안되였다.

비속에 기중기가 서있는것을 본 대준의 머리에는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이 시간에 기중기를 옮긴다면...)

기중기를 옮기는데 웅근시간을 허비할것이 아니라 어떤 공시간을 리용하면 될것이 아닌가.

대준은 지휘부에 제기하여 동의를 얻은 다음 다급히 영순중대장을 찾았다. 그가 저녁시간에 기중기문제를 의논하려고 찾아오겠다고 했지만 그때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빨리 손을 써야 했다.

그런데 영순이가 보이지 않았다. 부중대장에게 물어보니 갑자기 읍으로 차를 얻어타고 갔다는것이였다. 읍에 있는 기계공장에서 기사로 일하는 그의 애인에게 무엇인가 토론할것이 있다면서 급히 떠나갔다고 했다.

(그의 애인이 있더니?)

대준은 처음 듣는 소리에 얼터름해졌다. 어제저녁만 해도 강기슭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젊은이를 보고 자기는 남다른 사이로 단정하지 않았던가. 영순에게 애인이 있다는것은 왜 모르고있었으며 그가 재호에게 반해버렸다고 속단할수 있

었을가.

대준은 생활에서 무엇인가 오진을 한듯싶어 자신이 불만스러워졌다. 하지만 일은 일대로 내밀어야 했다. 기증기를 옮기는 일을 지체하고싶지 않았다. 영순에게 맡겨놓아서 이 일을 언제 해낼지 알수 없다. 설사 그에게 맡긴다 해도 이 비속에 재호를 움직여낼수 있겠는가.

대준은 비상한 결심을 가지고 부중대장을 시켜 재호와 대원 몇사람을 기증기앞으로 모이라고 지시했다.

그는 차거운 비를 맞으며 기증기앞을 성급히 거닐었다. 시계를 몇번이나 굽어보았다.

지금은 다섯시... 기증기를 분해해 상단으로 옮기려면 적어도 여덟시간은 걸려야 한다. 여덟시간... 밤 한시에 끝낼수 있구나. 그런데 비는 멈지 않고 왜 이 모양이람.

드디어 발판을 흔들며 부중대장과 재호가 나타났다. 그뒤로 대원들 몇이 따라왔다. 그들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여 대준을 의아쩍게 바라보았다.

대준은 그들앞에 나섰다. 비물에 흠뻑 젖어 번질거리는 그의 얼굴은 마치 준엄한 결전장에 나선듯 비장해보였다.

《동무들! ...》

이렇게 허두를 땀 그는 앞에 선 여섯사람을 쪽 둘러보고나서 비가 오는 시간을 리용하여 기증기를 상단주행로에 옮겨야 할 임무를 말했다.

《옮기시다!》

대원들이 제각 호응해나섰다.

한옆에 선 재호만이 덤덤한 빛으로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서둘러 의견을 나타낸 대원들은 재호를 돌아보고는 그만 입들을 다물어버렸다. 결론적인 발언은 기증기의 주인인 재호에게 달려있었던것이다.

짧은 침묵이 흐른후에 재호는 뜨직이 입을 뗐다.

《조금... 기다려보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다니, 무엇을 기다려보자는것인가? ...

대준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비발이 가늘어지고 하늘한귀가 흰히 트이고있었다.

비가 멎기를 바라는것 같은데 언제 그때를 기다리겠는가. 이건 구질은 날씨에 몸을 내대기 싫어서 하는 소리이다.

대준은 속이 뒤뜰거리는것을 누르며 힘주어 말했다.

《동무! 비가 온다고 주저하겠소? 기증기를 분해해서 옮기려면 여덟시간은 걸려야 한단말이요!》

《분해하다니요?》

재호는 못마땅한듯 눈을 치켜들었다.

(이 친구가 어찌자고...)

대준은 재호에게 약해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격한 어조로 말했다.

《동무! 이건 전투임무수행이나 같소. 임무를 두고 흥정하는가?!》

《흥정이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림니까?!》

재호는 수그러들지 않고 올곧지 않게 마주보았다. 한손으로 젖은 얼굴을 뺨 문대고난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반발의 불꽃이 튀겼다.

대준이도 격한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 그를 마주 쏘아보았다.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보는듯한 날카로운 눈빛, 그에게서 먼저 눈길을 떼면 지휘관의 존엄을 잃는듯하여 대준의 눈에서는 서리찬 기운이 흘렀다.

그때였다.

《재호동무!》

한옆에서 녀자의 쟁쟁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에 재호는 놀란듯 눈길을 떼고 그쪽을 돌아보았다. 대준이도 보았다. 그는 영순중대장이었다.

그 녀자의 서늘한 눈길앞에 자기의 흥분을 그제야 느끼기라도 한듯 재호는 슬며시 옆으로 돌아섰다.

대준은 뜻밖에 나타난 처녀를 어정쩡해 바라보았다. 읊으로 갔다던 그가 벌써 오다니, 이야기도 변변히 나누어보지 못했겠군. 그런데 일이 별나게 됐군.

두사람을 번갈아보고난 영순이는 대준이와 재호사이에 빚어진 상서롭지 못한 감정을 모두 알아챈듯싶었다.

대준이가 먼저 입을 뗐다.

《마침 잘왔소. 기증기를 옮기려고 하오. 그런데 ...》

그는 말을 더 잇지 않고 재호를 돌아보았다. 재호는 영순이와 눈길을 한번 마주치고는 씩씩히 서있었다.

영순이는 무거운 공기를 헤아리기라도 하듯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재호에게 포렛이 말했다.

《재호동무, 기증기를 옮기세요!》

대준은 놀란 눈으로 영순이를 바라보았다. 이 처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재호에게 명령을 내리다니... 이제 재호에게서 더 큰 반발이 일겠구나.

그런데 영순의 낮게 울린 그 어조에서 위압을 느끼기라도 한듯 재호는 더 우물쭈물함을 안했다.

《옮기시다. 그런데 분해는 하지 않겠소.》

《?!》

대준은 리해할수 없었다. 재호가 첫마디에 받아들이다니?...그런데 분해를 하지 않겠다는건 무슨 소린가?

영순이는 재호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물었다.

《확신을 가졌어요?》

《그렇소, 분해하지 않고 저우에 있는 1 호, 2 호,

5호 기증기의 힘을 합치면 통채로 들어올릴수 있소.》

《통채로?!》

대준은 눈이 커져 재호와 영순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가 의혹을 풀지 못하자 영순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알려주었다.

《재호동무는 이틀전 기타선을 툇기다가 그런 착상을 했답니다. 여러선을 한꺼번에 올리면 큰소리를 내듯이 기증기들의 팔을 합치면 큰힘을 얻어낼수 있다는것을... 그 력학적힘의 크기에 대해서는 기계공장에 가서 방조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기증기를 한시간내로 옮길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순중대장은 그 력학적계산을 하려 갔겠구나!)

대준은 저도 모르게 《음-》 하고 신음과도 같은 소리를 내었다. 그 착안이 그들에게서 나온것이 옳은가를 확인하기라도 하듯 두사람을 다시 건너다보았다. 이 사실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는 자기가 알고있는 영순이와 재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을 보는듯했다.

《수고했어요. 이제 곧 준비를 하고 옮기자요.》

영순이의 말에 군소리 없이 고분고분 움직이는 재호...

대준은 괴롭게 한숨을 내쉬었다. 자기가 엄한 요구, 질책으로도 움직이기 어려웠던 운전공, 그처럼 뻗뻗하던 친구가 섬약한 처녀의 말에 순순히 응해나서다니, 그리고 자기의 걸음새를 좀처럼 변경하려고 하지 않던 재호의 가슴에 어떻게 그런 기발한 착상이 떠올랐는지... 나는 왜 그의 기타소리를 한날 부질없는 선물로 들었던가. 그의 가슴에 비낀 지향을 볼줄 모르고 그것을 힘으로 전환시킬줄 몰랐던가? 여덟시간을 한시간으로... 재호의 마음을 움직일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위훈으로 떠밀어준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대준은 그제야 기증기를 옮기자는 자기의 요구에 좀 기다리자고 하던 재호의 말이 영순중대장이 오기를 기다려보자고 한 뜻임을 서글픈 마음으로 깨달았다...

기증기를 옮기는 작업은 대준이와 영순이가 함께 지휘해나섰다. 1호, 2호, 5호 기증기운전공들을 불러내어 기증기팔들을 한곳에 모이게 했다. 세팔에서 드러운 쇠바줄로 기증기몸체를 묶고 일시에 힘을 쓰니 그 거물은 쉽게 허공에 들러갔다.

기증기를 정확히 주행로우에 올려앉히었다.

시계를 보니 작업을 시작해서 겨우 40 분이 걸렸다.

대원들은 휴게실에 들어섰다. 젖은 옷들을 벗어널고 기분들이 좋아서 떠들썩했다.

대준이는 한쪽 의자에 앉아 무거운 표정으로 담배를 태우고있었다.

재호는 기본이 건듯 들리워 벽에 걸려있는 기타를 습관처럼 벗겨들었다. 기타를 무릎우에 안고 능란하게 손으로 두드렸다. 그러나 선이 온전치 못한 기타에서는 음이 제대로 울려나오지 않았다.

재호는 기타를 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선이 하나 없어도 노래가 망태기가 되거든.》

한옆에 웃음을 짓고 서있던 영순이는 그제야 생각난듯 옷주머니에서 동그랗게 감긴 선을 꺼내 재호에게 내밀었다.

《그 선이 여기 있어요.》

재호는 열결에 가느다란 금선을 받아었다. 감전된 사람처럼 굳어진 자세로 선을 들여다보다가 습벽이는 눈을 들어 영순을 바라보았다.

《고맙소, 중대장동무!》

저르기 떨리는 목소리였다. 영순이는 읊으로 갔던 길에 재호가 찾고있는 기타선을 잊지 않고 얻어온것이다.

그들을 지켜보는 대준의 가슴에는 세찬 파문이 일었다.

영순이는 재호가 올리는 가느다란 선물을 크고 역센 힘으로 전환시켜놓지 않았는가. 그의 랭당한 가슴을 녹여주고 위훈으로 불러주는 그 힘이 영순이의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듯싶었다. 연연한 처녀의 가슴에 그렇듯 강인한 힘과 뜨거움이 깃들어있을줄은...

그런데 자신은? ... 《엄한》 요구, 끊어져나간 기타선...

(아, 재호는 선을 끊어버려 기타를 탈수 없었지만 대원들의 마음의 《금선》을 올릴수 없었던 나는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것을 잃어버렸는가...)

대원들에게 아무리 좋은것을 주고 원칙적요구를 한다 해도 그것이 의리심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가슴에 가닿지 못하누나. 아래사람들에 대한 가장 힘있는 요구, 그것은 믿음과 의리를 베풀어주는것이다.

대준이자신은 재호에게 기울여주는 영순이의 그 진심을 사랑으로까지 오인했던것이다.

대준은 얼마전 영순이가, 학창시절부터 음악에 취미를 붙여왔지만 아직 어느 한 악기도 원만히 다루지 못하고있다고 하던 말을 상기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뇌이였다.

《아니요. 영순동무, 동무는 누구보다 훌륭한 연주자요. 끊어진 <선>을 이어주고 하나의 음조로 맞추어줄줄 아는 예술가의 힘과 기량을 훌륭히 지니고있소.》

## 쌍둥이처녀돌격대원을 두고

손병민

시대정신을 체현한 주인공들의 형상은 구체적 인 화쪽으로 그려져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나는 언제쌍기와 박토처리, 설비조립과 내부완성작업 이 동시에 진행되고있는 위원발전소 건설장을 찾 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공업을 발전시키려면 전력공업을 다른 부문보 다 앞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교시를 높이 받들고 혁신의 숨결높은 위원발전소 건설장에서 생동하 고 참신한 혁신자들의 투쟁모습을 찾아 발전기실 내부꾸리기작업장으로 달려간 나의 눈에 처음으 로 안겨온것은 나란히 마주서서 갓 설치된 크고 작은 발전설비들에 여러가지 색깔의 도장재를 입 혀나가느라 여념이 없는 두 처녀의 다정한 모습 이였다.

날씬한 몸매에 키도 비슷하고 연회색 작업복차 립에 단발머리를 가리운 파아란 수건도 꼭 같은 것 을 쓴 두 처녀!

일숨씨마저 비슷한 그들에게 호기심이 동하여 가까이 다가간 나는 그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얼굴생김까지도 신통하게 같았기때문이였다.

마치 거울에 마주선 한 처녀의 두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어리둥절해있는 나를 보며 흰 이를 가 쫌히 드러내고 살며시 웃는 얼굴, 유정한 눈매, 흥조어린 두볼과 귀밑머리에 흥건히 내뺐 구슬갈 은 땀방울...

알고보니 그들은 쌍둥이혁신자로 이름난 청년 돌격대 1대대 1중대의 정실란, 정실아동무들이였 다.

아버이수령님과 은혜로운 당의 은덕에 충성으 로 보답할 청춘의 푸른 꿈을 안고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한날 한시에 청년돌격대의 한중대에 입대 하여 발전소 착공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함께 일하면서 혁신자로 이름 떨친다는 이 기특한 쌍 둥이처녀 !

위낙 쌍둥이라면 나이와 생일, 생김새와 차림 새가 다같은 친형제라는 표상이 먼저 온다.

하지만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들에게도 형 과 동생이라는 엄연한 차이는 있는법이다.

하여 쌍둥이를 처음으로 만나 레절있게 대하려 할 때 제일 난감한 문제가 바로 형과 동생을 인 층 식별하기 어려운 바로 그것일것이다.

이것은 취재순서에서도 레외로 될수 없는것이 여서 나는 실례이지만 누가 언니이고 누가 동생 인가고 다정히 물었다.

그러자 두 처녀는 까르르 웃어대더니 이어 한 처녀가 《지금은 제가 <동생>이지요. 보다싶이 도 색계획수행에서 제가 조금 뒤졌으니까요. 하지만 걱정마세요. 저녀총화시간전으론 제가 꼭 <언니> 가 되고말테니까요.》 하고 대답하는것이 아닌가!

그러자 마주선 처녀가 또 이렇게 되받는다.

《작가동지, 우리는 늘 이런 상갱이질속에서 일 해간답니다. 하지만 작업총화면 언제나 실적이 같아져서 결국엔 <언니>도 <동생>도 다 없어져 버리고만답니다.》

(<언니>와 <동생>이 다 없어지다니?!)

명랑한 두 처녀의 룡담기 짙은 말에 한순간 흥 심에 뒹던 나의 가슴속엔 쿵-하고 격동적인 우뢰 가 울렸다.

아버이수령님과 은혜로운 당에 대한 충성심과 의리가 온 사회에 짝 차넘치는 우리 시대에 혁명 과업수행의 실적차이를 놓고 《언니》와 《동생》 의 기준을 삼는 이 미더운 쌍둥이처녀돌격대원 !

부르는 순서에는 언니와 동생이라는 차이가 있 어도 맡겨진 계획수행에서는 조금도 뒤질수 없다 는 소중한 마음을 지니고 아글타글 일해가는 더 없이 기특하게 느껴지는 두 처녀 !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순간에도 마치 요술사 의 손길같은 재빠른 숨씨로 여러가지 설비들에 조화로운 색깔 《웃》을 쪽쪽 입혀나아가는 일숨씨 날랜 이 쌍둥이처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얻어진 강한 흥분과 아 름다운 표상을 간직하고 건설장을 바라보는 나의 눈에는 이 수천의 건설자들이 모두 시대정신의 절정에 나란히 올라선 《쌍둥이》들의 모습으로 안 겨왔다.

## 좋다, 나는 타입공

한기운

험한 계곡 아슬한 벼랑가  
까마득히 바라뵈던  
저 표고점의 붉은 수자도  
발밑에 굽어보이누나

좋다, 나는 타입공  
군인건설자!

날아라  
푸른 하늘가에 쇠바가지 등등  
쏟아라 폭포치는 혼합물  
천립방이면 어떠랴  
만립방이면 성차라

틀어잡은 진동기로 깊숙이  
한번 큰숨을 뿜으면  
반죽좋은 혼합물도  
천년바위로 굳어지거니

온 건설장이 바라보더라  
선별장의 그 깨끗한 마음도  
돌격대기발 수놓아 안고온  
고향집 어머니의 소원도  
이 병사의 걸음에 실려있어

온 건설장이 따라오더라  
노을 피는 저녁  
또 하루 새 기록 창조한 기쁨속에  
또 하루 높아진 언제를 바라보며  
타입공, 내가 웃을 때

아, 어버이수령님께 올리는 일보속에  
이 병사의 걸음걸음  
나날이 솟는 언제 높이로 새겨지고  
당이 펼쳐가는 공산주의 붉은 노을이  
내 다져가는 언제우에 비껴오거니

얼마나 좋은가  
당을 따르는 그 걸음걸음  
산악같은 언제로 솟아오르고  
당의 뜻 받드는 그 맑은 마음  
크나큰 사랑의 호수로 설레여...

좋다, 나는 타입공  
군인건설자!

걸음걸음  
혼합물속에 무릎 빠져도  
걸음걸음  
은빛 송전선을 이끌고  
더 아름다워질 조국의 거리를 걷는 마음

아, 한몸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는 군인정신  
병사의 그 깨끗한 량심을  
억년 드물지 않을 언제속에 쌓아  
억년 드림없을 조국의 반석을 다져간다

좋다, 나는 타입공  
군인건설자

## 탄부의 길

서동린

해빛 부신 갱구를 떠나  
인차는 얼마를 내렸느냐  
날마다 더 깊게만 내리는  
이 길에 정을 두고 살아  
꿈결에도 밝아보는 탄부의 길

들에 꽃향기 질어도  
서둘러 인차에 오른다  
비오고 눈와도  
서둘러 안전모 눌러쓴다

온 나라 구내길을  
온 나라 집집을

이 길에 이어놓고  
석탄의 톤수를 안아보는 마음

그 마음 안고 안전등 밝히며  
지하천척 보화를 실어내는 길이기에  
자욱마다 빛나는 탄부의 걸음  
암벽이라 아니에돌고  
석수라 아니물려서거니

나는 생각한다  
조국이 부강할 재부를 퍼내며  
탄부처럼 그렇게 초행길만 걷는 사람  
어디에 또 있겠는가

## 나의 연 외 1편

김형준

낮에는 해빛이  
밤에는 달빛이 좋아  
내 때없이 걸어보는 강반  
어린시절 자욱이 찍힌 강반에 서니  
물에 비낀 은빛창문 나와 마주웃는다.

이 강반  
저 언덕이었으리  
나의 태가 묻힌곳,  
움막집 작은 피 창가로  
차거운 그들만이 스며들던 집터가

그리고  
저기 저바루였으리  
내 운명의 피창을 너머  
그토록 날고싶던 어린 시절 꿈을  
연에 실어 하늘가에 띄워보던 추억의 언덕이...

넝마로 어깨를 가린  
토성랑의 아이였던 나  
연을 날리며 달리던 이 언덕에서  
탕수에 구겨박혀 찢겨진 연을 보며  
보통강, 내 너를 두고 얼마나 원망했던가

너는 그날  
작은 피창을 열고  
창공을 날으려던 나의 연을  
감탕속 깊이 적셔버리지 않았더라  
나의 연, 나의 꿈이 다시 날지 못하게!

사는것이 피로워  
죽는것이 《소원》인듯  
말끝마다 죽겠다고  
버릇처럼 외우던 어제날 우리 인민

사는것이 복된 세상  
천만년 살아 행복하라고  
만수교, 아 만수교  
우리 수령님 지어주신 다리의 이름

허나 내 그날  
억울하여 가슴치며  
이 기슭에서 생각했지  
물에도 젖지 않고 영원히 떠있는  
그런 연을 하늘가에 띄울수 없을까?!

세월은 흘러...  
연놀이시절은 줄끊어진 연마냥  
추억의 기슭을 떠나 멀리 흘러갔건만  
보통강, 너의 맑은 물을 보니 되실려왔구나  
날지 못했던 그날의 연, 나의 연놀이시절이!

추억많은 강반이여  
잔디 푸른 보통강의 언덕이며  
내 오늘 그날의 기슭에서 생각노라  
낮에는 해빛과 웃고 밤에는 달빛과 웃는  
강반의 하늘가에 높이 솟아 빛나는 창문을 보며

내 어린시절  
하늘높이 띄우고싶던 연처럼  
낮에도 밤에도 영원히 변함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원히 빛나는  
락원의 강반에 열린 수억만의 창문이며

정녕, 너는  
아버이수령님의 은정속에  
연줄인양 흘러 끝없는 보통강  
그 강반우에 떠있는 나의 연이 되었구나  
세월을 따라 더 높이 오르고 또 오르는!

## 만수교

만수교 란간짚고  
보통강 맑은 물 내려다보니  
오래오래 더 살 내가  
물에 비껴 마주웃나니

아, 나도 오래 살아  
물에 비낀 너도 오래 살아  
만수교 이 다리위로 한생을 걸은들  
수령님 은정의 끝에야 어찌 닿으랴!

## 전조선의 밤 외 1편

정 렬

교묘한 달빛아래  
숨죽인 사위  
벼랑가의 다박술도 조울고  
부영새의 눈빛도 사그라진  
전조선의 이 밤

모든것이 평온한듯  
다만 어디선가  
끓길듯말듯  
가늘게 이어지는 한가락 여울물소리  
일새우에 아롱진 이슬이 구르는 소리

음탕한 찌즈의 선물  
《위안부》들의 역겨운 웃음소리 들려오던  
분계선 저너머  
마굴같은 적 헌병초소도  
지금은 무덤같은 어둠에 짓눌려  
그 어디나 정적이 깃들었어라

하지만 병사는  
이 밤의 고요를  
순간도 방심할수 없고

잠시도 눈동자 흐리울수 없다  
술잎을 씹으며  
기침마저 삼키는 전조선의 밤

고요한 정적뒤에 숨어  
칼을 문 원쑤 기여들고  
밤벌이 돋는 락원의 창가를 향해  
침략의 포신을 겨누는놈들  
마음의 탕개 풀린 틈새를 노리고있거니

초소의 한순간을 놓치면  
어찌 안식과 평온이 깃들수 있으랴  
병사는 창끝같은 눈빛으로  
적정 천리를 살살이 꿰뚫어보며  
마음의 신들메 천만고괘 조여간다

만약 원쑤들이 애어린 풀썩 하나  
이슬 한방울 다쳐도 폭발하리라  
정적속에 채운 억만불줄기 심장에 품고  
소리없는 전투, 전투로 이어지는  
아, 전조선의 밤이여!

## 샘물과 병사

풀이슬 함초롬한 초소의 길섶에  
기다린듯  
반기는듯  
풍풍... 솟아나는 물소리

한잎 가랑잎을 건어내니  
문득 맑은 물위에 어린  
군모의 오각별

세월의 락엽은  
산천의 정기를 흐리울수 없고  
아름다운 별을 가리울수 없다네

내가의 조약돌 하나  
산기슭의 들꽃 한송이에

숨결을 이어놓고 사는 병사만이  
정가로운 샘물에  
홍보석같은 별을 새길수 있다네

아서라  
불어오는 바람아  
풀썩아  
샘물을 흔들지랑 말아다오  
풀 한오리 띄우지 말아다오

온밤 랭기를 깔고 이슬에 젖으며  
가슴으로 안아지킨 이 땅 이 산천과  
사랑에 겨워 속삭이고싶은 천만마디  
조국의 맑은 물에 새겼다오  
빛나는 별에 담았다오

## 나의 당원증번호 외출 때마다

문석길

1259832

자나깨나 잊을수 없는 수자  
심장에 깊이 새겨져있는 수자  
이것은 나의 당원증번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앞서  
영광스러운 우리 당 대오에서  
보람찬 자리를 차지하였느냐  
선두에서 내 자리까지  
길고 긴 구간이 놓여있구나

허나 나는 말하고싶노라  
100 만단위의 이 번호  
이것은 결코  
당을 받드는 당원의 순번이 아님을...

행군의 첫 기슭에서  
멀리 전진한 승리의 언덕에서

안아주고 이끌어준 수많은 아들딸  
그 누구에게 다르랴  
어머니당의 그 사랑 그 믿음

운명을 맡기고 따르는 그 한길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 한길에  
앞장서 나아가는것이 당원이기에  
당원의 충성엔 순번이 없으라

아,  
우리 당의 참된 아들이 되고파  
우리 당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전사가 되고파  
1259832  
나의 당원증번호 외출 때마다  
내 가슴에 뜨겁게 불타는 열망이여  
당의 뜻 꽃피우는 그 길에서  
언제나 앞자리에 서있었으면!  
앞자리에만 서있었으면!

## 나는 알았어도

안순희

기증기를 불러도  
그저 빨리-  
장입물을 퍼넣어도  
그저 많이-

얼음이 뜬 탄산수를 마시면서도  
좀더 차면 좋겠단지  
어쩌면 그리도 성미 급할가  
선풍기바람도 모자란단지

엉터리야  
밥도 쇠물에 말아야 맛이 나겠다더니  
이젠 그것도 성차지 않아  
목욕도 쇠물에 했으면 시원하겠대

정말이지  
그 동무 급한 성미  
내 어떻게 다 맞춘담  
아무리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는데

어느새 알았을가 내 마음  
보안경너머 나를 보며  
그 동무 말하겠지

성미를 탓하려면 쇠물앞에 서지도 말라고

그때부터 나는 알았어  
스무해전 그날처럼 우리 수령님  
오늘도 보안경 눈가에 대시고  
사품치는 로앞에 서계시는것만 같아  
쇠물도 뜨거운줄 모른다는 동무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대문안에  
강철부문이 제일 먼저 앞장서라고  
수령님 등을 밀어주시는것만 같아  
자꾸만 마음 바빠진다는 동무

그 마음 성미로 굳어  
기증기를 불러도 빨리  
출선구를 뚫어도 크게  
그저 빨리-  
그저 많이-

나는 알았어  
불같은 그 마음이 강철을 녹이는줄  
쇠물은 로에서 끓는게 아니라  
용해공의 심장에서 먼저 끓는줄...



# 내가 다녀온 고장

김휘조

기적이란 말은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에서 너무도 습관된 말이다. 행복이란 말도 이제는 누구에게나 너무도 레사로와졌다.

러행길에 올라 푸른 물결이 흰갈기를 날리며 밀려오고 밀려오는 동해선을 달려도, 가을의 금풍이 무르익은 난알향기와 과일향기를 실어오는 서해선을 달려도 사람마다 제고장에 일어난 기적과 혁신을 두고 자랑스럽게 나누는 이야기가 있다. 아침저녁 거리와 마을에 그리고 일터와 가정들에 찾아드는 행복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가슴속에 자리잡았던 지난날의 추억과 인상들을 멀리 뒤로 밀어버리며 날마다 솟구치는 기적들, 새라새로운 감격과 환희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떠밀어주며 끝없이 찾아오는 행복들.

그 기적과 행복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생각으로 한없이 부풀어오른다.

혁명과 인류의 미래, 우리의 자그만 소원까지도 다 안고 온 우리가 잠든 깊은 밤에도 꺼질름 모르는 당중앙의 불빛.

우리 가슴에 비약의 역센 나래를 달아주는 당의 그 슬기론 예지와 한없는 사랑으로 하여 이 땅 어디나 창조의 거센 열풍속에 기적은 솟구치고 흘러가는 나날은 그대로 행복의 노래가 아닌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혁명을 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도 결국은 인민들을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배려는 우리 당과 정부의 모든 활동에서 최고의 원칙입니다.》**

조국땅에는 그 어디나 인민들을 한품에 안고있는 어머니당의 사랑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나는 얼마전 남신의주와 의주군 연하리 지구를 찾은적이 있다. 이 지구에 800 여세대의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일어서고 기쁨에 넘쳐 새집들이를 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본지도 이미 오랜 나였지만 눈앞에 펼쳐진 너무도 전변된 농촌문화주택지구앞에서 나는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현대적인 도시를 방불케 하는 넓고 시원히 열린 포장길들, 새로 생긴 리소재지의 한가운데 자리잡은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연구실》과 그옆으로 규모있게 늘어선 문화회관이며 관리위원회건

물, 그리고 상점, 병원, 유치원, 탁아소들과 온갖 편의시설들, 그것들과 다채롭게 어울리며 줄줄이 늘어선 2 층, 3 층의 다층문화주택들,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에 찬 걸음걸이며 세상 행복을 독차지 한듯싶은 그들의 웃음핀 얼굴들...

보이는 모든것이 너무도 새롭고 놀라운것이였다. 이름없는 산촌이 이렇게도 변할수 있단말인가.

여기는 내가 처음으로 찾은 고장이 아니였다. 흘러간 중학교시절의 다감한 추억과 함께 가슴속에 언제나 아득히 자리잡고있던곳이였다. 넓지 않은 벌들과 함께 높고낮은 봉우리들이 어깨를 맞대고 련련히 뻗어있는 이고장엔 어디나 나무들이 푸르렀다. 온갖 새들이 지저귀는 골짜기들에는 하얀 돌들을 씻으며 맑은 시내물들이 구울듯 흘러내리고 그옆으로 협동농장의 문화주택들이 앉아있는 오붓한 마을이였다.

신의주에서 이십리 떨어진 이고장의 산과 들을 찾아 우리는 자주 오곤했다. 산에 들에 새잎들이 돋고 꽃들이 다투어웃는 봄철과 무르익은 과일들이 그윽한 향기를 뿜는 가을이면 여기를 찾아와 원족의 하루를 즐기기도 했다.

수확러행과 원족으로만 인연이 맺어졌던 고장, 여러가지 수종들과 이끼돋은 바위들과 정갈한 시내물에 대한 표상, 그리고 어디 가도 흔히 있는 농촌마을의 평범한 표상으로만 알고있던 이고장이 이렇게도 변모되었단말인가.

마을어구에 선채 나는 움직일줄 몰랐다.

나는 공산주의리상촌으로 변모된 룡림리와 오국리에 대해서 알고있었다. 도시 부럽지 않게 다층주택들로 들어찬 마을들, 화려한 방안들이며 운택한 살림살이, 활기에 넘친 생활의 다채롭고 흥겨운 음향으로 가득찬 그 고장들은 한때 내 시의 대상이였다. 노래하지 않고는 건딜수 없는 격정을 안고 나는 그때 다감하고 열정적인 말들을 몰라 그 고장들에 시를 바쳤다.

그런데 오늘은 남신의주와 연하리 지구에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환희와 흥분을 불러일으키며 내앞에 펼쳐져있는것이 아닌가, 어서 들어오라고 나를 부르는듯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 집들, 맑은 이슬이 흐르는것 같은 꽃잎을 피워문 화려한 꽃밭들, 사람들의 물결이 명절처럼 흥성이는 거리가 이 가슴에 또다시 노래를 불러일으키며 펼쳐져있는것이였다.

정녕 위대한 농촌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날로 번영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은 그 어딜가나 얼마나 눈부시게 변모된것인가.

나는 끝없는 감동과 환희에 사로잡힌채 오래도록 길어구에 서있었다.

어느 집에선가 아이들의 맑은 노래소리가 구울듯 창문밖으로 흘러나왔다. 푸른 나무들이 울담처럼 둘러선 저쪽 길굽이로는 경쾌한 기적을 울리며 대형버스 한대가 돌아나왔다. 뺨스가 몇자 젊은이들이 다투어 밖으로 나섰다. 화려한 옷차림을 한 처녀들, 중년의 남자들, 로인들도 있었다.

《아, 정말 굉장하네.》

어느 처녀의 입에선가 환성이 터져나왔다. 넓게 트인 길이며 높이 열린 창문들, 편의시설들과 문화시설들을 바라보며 처녀들은 연송 탄성을 올렸다.

따사론 사랑의 빛발을 함뱌 받으며 락원의 언덕에 높이 올라서 행복의 창문들을 활짝 열어젖힌곳, 문명의 찬연한 빛을 안고 황홀하게 솟아있는 이고장에 누군들 와보고싶지 않으랴. 이름없던 이 산촌에 일어난 현대적인 문화농촌!

웅성거리는 처녀들의 흥겨운 목소리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길옆의 연록색 단장을 한 3층살림집앞에 이른 나는 아래층의 출입문으로 다가가 스스럼없이 주인을 찾았다.

나를 맞아준것은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고령의 로인이었다.

《집구경을 좀 하러 왔습니다.》

나의 말에 로인은 환히 웃으며 인차 반색을 했다.

로인에게는 내가 집구경을 온 첫 손님이 아닌 모양이었다.

맑은 해빛이 창문으로 흘러드는 방안은 아늑하고 정갈했다. 하얀 회벽칠을 한 넓은 복도, 은근한 문양을 돌친 색종이로 도배를 한 벽들, 새 이불장이며 양복장, 소박한 세공을 한 간편한 가구들이 벽을 따라 구색이 맞게 놓여있다. 여러가지 책들이 꽂힌 큼직한 책장옆에는 화려한 꽃보를 씌운 텔레비존수상기가 사람들을 기다리듯 덩그러니 놓여있다.

로인은 자랑하듯 폭신한 침대와 아이들의 책상이 놓여있는 옷방을 가리켰다. 그리고 부엌이며 목욕탕, 집안창고들의 문을 열었다. 널찍한 온돌방옆에 있는 부엌은 상하수도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하얀 타일을 붙인 목욕탕의 욕조에는 맑은 물이 찰랑거렸다. 여러가지 집세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창고들까지도 농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잘 꾸려져있었다.

《당의 은덕으로 우리 농민들도 이런 집에서 살게 됐수다.》

로인은 감동에 사로잡힌 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자말처럼 외었다. 그리고 창고에 들어가 윤기

도는 쟁반우에 람스런 사과들을 담아들고 나왔다. 얼마후 우리는 사과를 가운데 놓고 알뜰거리논 온돌방에 마주앉았다.

《문자그대로 천지개벽을 한 고장이지요.》

로인은 나에게 사과를 권하며 생각깊은 얼굴로 말을 이었다.

알고보니 아흔고개를 래일모레로 바라보는 로인은 열두살때부터 이고장에서 살고있었다. 의주땅의 궁벽한 산골막바지에 살던 그의 집안이 이고장에 술가해왔을 때는 산기슭을 따라 몇채의 찌그러진 농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있었을뿐이었다. 가난과 한숨만이 서린 한적하고 인적드물던 이고장에 첫 기쁨을 안겨준것은 해방과 토지개혁이었다. 땅과 나라의 주인이 된 그들을 더 높은 행복의 언덕으로 불러준것은 협동의 종소리였다. 한뼘 척박한 들판과 산기슭의 돌자갈밭에 손부르트던 그들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해년년 새로운 농기계들을 보내주시여 협동농장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고 세기적인 가난이 무겁게 드리웠던 초가집들을 털어버리고 네귀 번듯한 기와집들을 지어주시였다.

화학농사, 기계농사로 해마다 만풍년을 가꾸어온 이고장에 기쁨인들 얼마나 많았으랴.

그런데 당에서는 부러운것 없는 이고장에 또다시 보다 현대적이고 문명한 새집들을 지어준것이였다.

《정말 당의 은혜는 대를 두고 갚아도 다 갚을수없지요...》

로인은 눈을 습벅이며 이고장의 사회주의문화농촌을 위해 기울인 우리 당의 사랑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 이야기는 나도 이미 알고있는것이였지만 되새길수록 가슴을 뜨겁게 했다.

우리 나라 모든 농촌을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건설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뜻을 높이 받들어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남신의주지구와 연하리에 현대적인 문화주택을 건설할데 대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건설자들은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그토록 짧은 기간내에 수백세대의 문화주택들과 교육, 문화, 편의시설들을 비롯한 수십동의 공공건물들을 훌륭히 건설할수 있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한뼘 살아오는 고장이지만 이제는 얼마나 달리졌는지 나도 꼭 처음 찾아온 고장같습니다....》

로인은 자못 감회깊은 어조로 말했다.

다난한 생애와 벽차고 보람찬 나날이 흘러갔을 로인의 흰머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던 나는 얼마후 그와 인사를 나누고 천천히 밖으로 나섰다.

감동과 환희에 설레는 마음을 다시 진정할수

없었다.

붉은 저녁노을이 깃을 펴는 마을은 더 아름다웠다. 금빛으로 물든 창문들과 선명한 색깔로 타오르는 화단의 꽃들이며 푸른 가지를 흐느적이는 가로수들,

여러가지 색으로 단장을 한 집들...

마을은 말로도 그림으로도 다 할수 없는 선경과도 같았다.

내가 바라보는 저쪽 길한쪽의 문화회관앞에서는 아직도 뺨스를 타고온 그 처녀들이 떠들었다.

그들가운데도 나처럼 이고장에 처음 오지 않은 처녀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너무도 달라진 모습앞에 나처럼 선뜻 발걸음을 댈수 없는것이라.

나는 로인의 말을 다시 생각하였다.

《한뼘 살아오는 고장이지만 이제는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졌는지 나도 꼭 처음 찾아온 고장같

습니다. ...》

그렇다.

늘 살아오면서도 여기가 내 고향인가고 새삼스레 생각되는 고장, 너무도 달라진 모습앞에 선뜻 걸음을 댈수 없는 고장이 우리 조국에는 얼마나 많은가. 고래등같은 현대적인 문화주택에 새집들이를 하던 왕채산기슭과 만경대의 농장원들의 행복한 모습도 눈앞에 떠오른다...

나는 해가 저물어서야 이고장을 떠났다. 떠나면서도 깊은 생각을 금할수 없었다.

새라새로운 행복에 눈부시게 변하는 우리 생활,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은 우리 생활, 그 때문에 어버이수령님과 당을 위해 일을 하고 해도 더 하고싶은것이 아닌가.

나의 가슴은 벅찬 감격으로 빼그나게 부풀어올랐다.

## 공을 세운 내 조국의 아들이여

김정길

봄비는 네거리  
오가는 사람들의 물결속에  
귀여운 어린 딸의 손목을 잡고  
화창한 봄빛에 가슴 부풀어  
기쁨속에 걷는 영예군인동무여

그대 앞가슴의 빛나는 메달  
소박한 영예군인메달은 말해주누나  
그대가 청춘보다 목숨보다  
무엇을 더 귀중히 여겼는가를

그렇다, 그대는  
쏟아지는 불비가 앞을 막는  
그 치열한 돌격전의 서열에서  
그 한몸 돌보지 않고 싸운 용사

처절한 육박전  
번뜩이는 원쑤의 총창앞에  
가슴을 내대며 판가리했으리  
청춘보다 귀중한 조국을 안고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아낌없이 두려움없이 바친  
그대의 그 붉은 피가 스며  
이 땅의 오늘이 수호되고

오직 조국의 미래를 그리며

그대 바친 두눈의 광명  
창문마다 미소짓는  
우리의 이 락원에 비껴있거니

돌이 타고 흙이 타던 격전의 불길속에  
그대 지켜싸운 조국의 거리  
못잊을 전우들의 유언이 깃들어  
오늘도 그날처럼 마음속에 안아보는  
이 생활의 풍요한 대지에  
수호자의 영예로운 자욱을 새겨가라

떠나던 고향의 한줌 흙을 안고  
푸른 하늘 우러러 맹세하며  
총을 메던 그 걸음으로 뿔뿔이 걸으라  
그대가 지켜 꽃피는 락원의 거리를

그대 청춘보다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겼던 그 조국이  
밝고밝은 사랑의 빛을 뿌려  
그 영예군인메달을 빛내여주거니

영예군인동무여 걸으라  
오가는 사람들 고마움을 안고  
좋은 길, 넓은 길은 그대에게 내주노니  
걸으라 언제나 넓은 길로!  
걸으라 언제나 땀뻑하게!  
공을 세운 내 조국의 자랑스런 아들이여!

## 지팽이에 대한 생각

김창무

나는 얼마전에 절승경개로 이름난 금강산에서 휴양생활을 한적이 있다.

그 즐거움의 전 기간은 수많은 생각을 불러낸 뜻깊은 나날이었지만 그중에서도 만물상으로 첫 등산을 떠나던 날에 받은 충격은 유달리 컸다.

그날은 아침부터 온 휴양소가 흥성거렸다.

등산차비를 서두르는 우리에게 관리원은 《지팽이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시라고요.》 하고 알려주었다.

《아니, 지팽이라니요?》

우리 휴양생들은 저마다 의아한 눈길로 마주 쳐다보았다.

동해의 어느 수산업소에서 일한다는 양식공 처녀도, 반백이 희숙희숙한 로화자도 관리원이 내주는 지팽이를 받아들더니 무슨 신기한 물건을 여겨보듯이 한동안 만지작거리는 것이었다.

내가 받아든 지팽이도 어쩌나 대우를 뱃던지 신기할 정도로 윤기가 났지만 거기다 자연미까지 보충해주어서 아담한 하나의 장식기호품이라는 느낌이 들게 하였던 것이다.

지팽이를 받아들고 모두 제나름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리원 어머니의 목소리가 꽃향기를 타고 또다시 울려 퍼졌다.

《어서들 떠나라구. 등산할 땐 뱃으로 지팽이를 짚는 거라우.》

(뱃으로 지팽이를 짚는다!)

순간 내 가슴속에는 그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몽클 치미는 것만 같았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소년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조건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지주, 자본가의 악랄성도 모르고 짚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일제시기 사람들은 중년나이만 되여도 피할수 없이 짚고다니지 않으면 안되였던 지팽이가 아닌가!

한평생 고생속에 살아온 우리 할아버지도 50이 되기전에 벌써 지팽이를 짚었던 것이다.

그때 철부지였던 나는 할아버지가 왜 그 거치장스러운 지팽이를 짚고 다니는지 알수 없었으며 이상스럽게까지 생각되였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노엽혔던 생각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힘겨운 농사일로 허리가 굽어진 할아버지는 밭으로 갈 때도 돌아올 때도 손에서 지팽이를 놓은

적이 없었다.

나무단에 짓눌려 산길을 내려올 때도 꼴집을 지고 일어설 때도 그 지팽이는 할아버지의 애용품으로 힘과 마음의 기둥이 되였다.

그래서인지 할아버지는 짬만 있으면 닭고 문지르며 여간만 지팽이를 애지중지하지 않았다.

《할아버진 그 나무막대기가 그리도 좋아요?》

《예끼, 이녀석 이것이 네 눈엔 나무막대기로밖에 안보이느냐... 하기가야...》

하더니 담배쌈지를 꺼내어 마라초를 말아 입에 물고는 푸푸 긴 한숨만을 내쉬었다.

나는 그때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성을 내셨는지 또 한숨만을 쉬셨는지 몰랐다. 해가 가고 세월이 흘러 내 나이 열살이 되던 해 지주놈의 소작살이 30년에 등뼈가 휘고 몸이 약해질대로 약해진 우리 할아버지가 끝내 50을 넘기지 못하고 한많은 세상을 떠났다.

구질구질 진눈까비가 내리던 마가을 시신을 묻고온 썰렁한 방안에 남아있는 것이란 땡그랗게 놓여있는 할아버지의 지팽이뿐이었다.

할아버지의 피눈물나는 생활을 말해주는 지팽이였다.

진정 그랬었다. 나라 없던 그 옛날엔 우리 근로인민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고 살아갈데가 과연 그어데 있었던가.

가는곳마다 억압과 착취와 몽매가 앞길을 가로막던 세월, 그 세월엔 지팽이를 짚고 가대기를 끌며 고역에 시달리던 우리 인민들의 얼굴엔 그 언제한번 웃음비낀 날이 있었던가.

그 세월엔 지팽이란 늙음의 대명사였고 불쌍한 사람의 가공한 표상이였다.

그런 지팽이는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그 말조차 사라져가고있으며 자라나는 새세대들은 그 의미조차 잘 모르고있는 것이다.

그들이 보았다면 책이나 영화나 연극에서 옛날 생활을 묘사하기 위한 소도구로나 리용되는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저런 지팽이가 휴양소에서 등산의 분위기에 맞게 뱃으로, 즐거움을 더해주는 도구로나 쓰이게 되였다니 얼마나 판이한 두 시대를 두고 생각에 잠기게 하는 것인가.

과연 그 이름조차 희미해지는 저 지팽이는 옛날엔 불행의 증견자이고 굴욕과 명예의 표상으로 되였다면 오늘은 행복과 즐거움의 상징으로 되지 않았는가!

생각은 깊어진다. 옷자락을 적시면 푸른 물이

들듯한 옥계수며 제 목청을 자랑이나 하듯이 다투어 지저귀는 온갖 새들의 청아한 노래소리, 그 모든것이 인민의것이 된 이 나라에서 나이가 80을 넘어선 늙은이도, 20대의 꽃나이 처녀들도 한데 어울려 산천경개 구경을 떠나는 탐승의 길에 더한층 흥취를 돋궂주는 저 지팡이, 이 모든것을

그대로 한쪽의 그림이라 할가, 행복한 우리 시대상의 축소판이라 할가, 나는 가볍게, 더더욱 무심히는 질수 없는 지팡이를 받아들고 끝없는 생각의 바다위에 아름답게 솟아있는 만물상 탐승의 길을 짚으며 발자국을 옮겼다.

##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속담

### △국화는 서리를 맞아도 꺾이지 않는다.

서리 맞으면 다른 꽃들은 다 시들어도 국화는 서리를 이겨낸다는 뜻으로 절개나 의지가 매우 굳센것을 비겨이르는 말.

### △정성을 들였다고 마음을 놓지 말라.

어떤 일이든지 도중에서 마음을 놓지 말고 끝장을 볼 때까지 긴장해서 일해야 성공을 볼수 있음을 경고하여 이르는 말.

###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일을 벌려만 놓지 말고 한곳에 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해야 성과를 거둘수 있음을 이르는 말.

### △사람의 속은 눈을 보아야 안다.

눈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뜻으로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속마음을 알수 있다는것을 이르는 말.

### △정직은 일생의 보배.

사람에게 있어서 정직한것이 매우 귀중한것임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 △벼짚에도 속이 있다.

변변치 않은데도 속대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대가 없겠느냐는 뜻으로 사람은 누구나 알보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이르는 말.

### △소리없는 벌레가 벽을 뚫는다.

말없이 수적수적 꾸준히 일해나가는 사람이 마침내 큰일을 해낸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개미가 정자나무 건드린다.

약자가 힘이 센 사람에게 대담하게 맞서나서는 경우에 이르는 말.

△고추나무에서 그네를 뛰고 잣껍질로 배만들어 탄다.

사람이 너무 잘아서 쓸모없는자를 야유조로 이르는 말.

### △지레 역은 참새 방아간 지나간다.

제판에는 푹푹한채하면서도 실상은 기본을 놓치고 행동한다는것을 비웃어 이르는 말.

## 도마봉의 운림못

우리 나라 국경인 자강도 중강진으로부터 압록강하류를 따라 60 리쯤 내려가면 천고의 밀림이 우거진 도마봉이라는 높은 산이 있다.

이 도마봉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울창한 수림속에 태고적 푸른 물을 아직도 그대로 담고 고요하게 자리잡은 조그마한 연못을 볼수 있다.

이 연못을 그곳 사람들은 운림못이라고 부른다.

지금으로부터 천년도 넘는 옛날이었다.

이 연못가에는 운림이라는 한 처사가 당시의 어지러운 세상을 등지고 홀로 이곳에 와서 고독하게 살고있었다.

그는 통소를 잘 불었다. 그리하여 꽃피는 봄날, 달밝은 가을밤에 연못가 바위우에 홀로 앉아 자기의 심정을 통소에 담아 한곡조 부는것이 그의 유일한 락이었다.

은쟁반에 방울을 굴리는듯,잔잔한 계곡물이 졸졸 흐르다가 바위에 부딪쳐서 조각조각 흩어지는듯, 때를 못만난 대장부의 심정을 호소라도 하는듯 그 통소소리는 고요한 이 연못가에 처량히 울리었다.

그럴 때면 못가의 수풀도 고개를 숙이고 풀잎의 벌레들도 잠시 울음을 멈추는듯하였다.

산밑에 사는 동리사람들은 운림의 통소소리에 경탄하여 그를 《통소처사》라고도 불렀다.

어느해 8월 한가위날이었다.

운림은 밝은 달밤에 뚫어오르는 심정을 누르지 못하여 또 연못가에 나와 통소를 불었다.

가을바람은 소슬하고 밤은 고요한데 중천에 뜬 밝은 달은 연못의 거울같은 수면에 잠겨있었다. 고요히 흘러나오는 통소소리는 원망하는듯, 하소하는듯 달도 걸음을 멈추고 잠자던 고기도 귀를 기울이었다.

운림자신도 자기가 부는 통소소리에 마음이 쏠려 시간가는줄도 몰랐다.

밤은 퍼그나 깊어진만 운림의 통소소리는 그칠 줄 몰랐다.

이때였다. 어디서인지 난데없는 녀인이 나타나 통소소리를 듣고있다가 한곡조가 끝나자 운림앞으로 다가갔다.

운림은 놀랐다. 그의 앞에 소곳이 서있는 그 녀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고 물속에

서 나온 룡녀와도 같았다.

달빛아래에서도 완전하게 보이는 그의 얼굴은 옥같이 맑았고 그의 부끄러워하는 자태는 이슬머금은 한송이 꽃에 비길수 있었다.

운림은 한동안 생시인가 꿈인가 분간을 못하다가 이윽고 입을 열어

《게 누구시오.》 하고 물었다. 녀인은 수집어하면서

《놀라시게 하여 죄송합니다. 나는 통소소리에 홀리어 한발자국 두발자국 온것이 예까지 당도하였습니다. 부탁하옵는데 한곡조만 더 들려 주실수는 없을까요.》 하고 청하는것이였다.

운림은 녀인의 청을 쾌히 승낙하고 다시 통소를 한곡조 불었다.

《대단히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정중히 머리를 숙이며 이렇게 녀인은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운림은 난데없이 나타난 이 녀인이 어떤 사람인지 의아해서 다시 물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오.》

《저는 집도 부모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의탁할 곳 없이 떠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통소소리를 듣고 마음이 산란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뵈옵게 되었습니다.》

필시 땅에 내려온 선녀가 아닌가...

운림은 속으로 의심함을 마지아니하였으나 어떤지 기분이 상쾌하였다.

《나도 자연을 좋아하고 음악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람도 맑고 달도 밝아 이 밤의 심회를 풀길이 없어 이곳에 왔던것이요. 그러면 이 한때를 같이 즐기시다.》 하고 운림은 다시 통소를 불었다.

두사람은 언제까지나 밤이 깊어가는줄도 몰랐다.

《인제는 밤도 꽤 이숙했으나본데 그만 내려가보는것이 어떻겠소.》

이윽고 운림은 그 녀인에게 돌아갈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그는 떠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한동안 머뭇머뭇하였다. 그러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저는 갈곳이 없는 몸입니다. 이것도 무슨 연

분으로 생각하시어 미워하시지 말고 의탁하게 해주신다면 일생을 받들어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운림은 다시 한번 놀랐다. 그러나 그도 혼자 쓸쓸히 사는 처지라 그 말을 듣고보니 그럴상도 싶고 또한 범상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인연같이도 생각되어 그 뜻을 받아들여 그 녀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부터 그들은 부부가 되어 이때까지 쓸쓸하였던 운림의 집은 죽은 나무에 꽃이라도 핀듯 명량한 기분이 넘쳐났다.

그들의 사랑은 비할바없이 날로 깊어갔다.

산아래 동리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기뻐해주었고 부러워하였다.

어느덧 그해 겨울도 다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닥쳐왔다.

마을사람들은 논을 갈고 밭을 갈아 씨를 뿌려서 오곡은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름에 접어들면서 가문 날이 계속되었다. 하늘은 말갭게 개이고 해별은 쨍쨍 내려쬘었다.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되어도 비는 한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산에 나무잎은 말라들어가고 논밭에 곡식도 누렇게 타기 시작하였다.

마을사람들은 한결같이 비오기를 기다려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고

《오늘도 비올 가망이 없네. 금년농사는 다 틀렸네.》 하고 탄식을 하였다.

운림도 물론 가물을 개탄하였으나 그의 안해의 근심은 보통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하늘을 우러러보고 탄식하였다. 날이 점점 가뭄에 따라 그의 얼굴에는 날로 피기가 없어지고 창백해져서 한때 그렇게도 어여뻐던 얼굴이 나무잎과 같이 시들어갔다. 지어 음식도 잘 먹지 못하였다.

《여보, 왜 이렇게 얼굴이 상해가요. 날이 가문것은 큰 걱정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야 어찌할수 없는 노릇이요. 그렇게까지 애를 태운들 무슨 소용이 있소?》 하고 운림은 그의 안해를 위로하였다.

그러나 그의 안해는 날이 가물어갈수록 점점더 초조해져가며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며 울기까지 하였다.

이것을 본 운림은 누구보다도 더 비오기를 기다리며 안해와 함께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였다.

그러나 무심한 하늘은 구름 한점 없었고 해는 불별이 되어 내려쬘었으며 구름을 실어올 바람

한점 없었다.

그리하여 필경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이때까지 말라본 일이 없었던 이 런못물까지 거의 말라붙게 되었다.

항간에는 인심이 소란해졌고 가는곳마다 물이 없어서 란리가 벌어졌다.

운림이 주동이 되어 온 마을이 몇번이나 기우제를 지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운림의 안해가 초조해하는 태도는 차마 볼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어느날 밤 운림은

《그렇게 초조하게 굴지 마오. 모든것이 하느님의 뜻이니 걱정할들 소용있소. 설마 하늘도 무심치 않으려니 이제 래일이라도 비를 주실지 누가 아오.》 하고 안해를 간곡히 위로해주었다.

그의 안해는 한동안 눈물을 머금고 잠자코 있더니 무엇인가 결심한듯이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까지 당신에게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저는 본래 런못속에서 살던 고기로 너무나 황홀한 통소소리에 마음이 홀려 외람스럽게도 사람으로 변하여 당신과 백년가약을 맺었던것이오나 제가 이렇게 못에서 나온 까닭으로 하여 세상은 가물고 또한 제몸 역시 바짝 마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세상의 모든 초목은 다 말라붙게 되며 만백성은 농사를 짓지 못하여 굶어죽게 될터이오니 당신과의 사랑도 귀중하지만 어찌 만백성을 희생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못속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섭섭히 생각 마시고 부디 저를 잊어주세요. 그러나 달 밝은 저녁, 바람자는 밤에는 통소소리를 들려주시고 새들이 지저귀며 꽃피는 아침에는 님의 얼굴 런못물에 비쳐주세요.》 하고 선뜻 일어서더니 건잡을 사이도 없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운림은 황당히 뒤를 쫓아 못가로 나갔으나 어두운 밤에 산우를 스쳐가는 바람소리뿐 다른 아무것도 찾아볼수 없었다.

그는 못가를 오르내리면서 아무리 안해를 불러보았으나 그의 소리는 허공에서 맴돌뿐 누구 하나 대답해주지 않았다.

운림은 손에 쥔 보옥을 불시에 잃어버린듯 애석한 느낌으로 힘없이 집으로 내려왔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옛 운림처사로 돌아가고말았다.

그날 새벽녘부터 검은 구름이 휩쓸려들고 바람이 일더니 후두둑후두둑 비방울이 떨어졌다. 비

는 차차 줄기차게 쏟아져 밤낮 사흘을 왔다. 윤림은 안해를 잃은 경황에 있으면서도 비가 온 것이 여간 기쁘지 않았다. 부근 동리사람들은 물론 이겨니와 온 백성들도 이 비 한방울을 천금으로 여기었다. 그리하여 메마른 땅에는 질벽하게 물이 찾아 고이었고 초목과 오곡은 다시 소생하였다.

그러나 윤림처사는 잃어버린 안해를 잊을수는 없었다. 안해의 소행을 생각하면 할수록 고마와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농민들을 도와 물길도 짜고 김도 매었다. 그러다가도 저녁이 되면 련못가에 가서 물을 들여다보았고 바위우에 앉아서 통소를 불었다.

그 통소소리는 이전보다 더 애절하였고 구슬퍼져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간장을 뚫게 하였다.

어느날 밤 윤림처사는 또 못가에 가서 통소를 불었다. 그날은 더욱 안해의 생각이 간절하여 통소의 곡조마다에 자기의 심정을 엮어서 하소하였다.

다.

그 처량한 소리는 하늘에 사무치는듯 산천초목과 날짐승까지도 다 동정을 금하지 못하는듯하였다.

돌연 윤림의 귀에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틀림없이 그의 안해의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그는 통소를 집어던지고 그 소리나는 곳을 향하여 뛰어들어갔다. 그곳은 바로 그 련못의 한복판이었다.

그 이튿날부터 윤림처사는 다시 보이지 않았으며 물론 련못가의 통소소리도 다시는 들려오지 않았다.

못가에는 윤림처사가 내던진 통소 하나가 주인을 잃고 쓸쓸히 버려져있었는데 주인 잃은 통소는 다시는 우아한 소리를 내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후부터 이곳 사람들은 이 련못을 윤림못이라고 불러내려온다고 한다.

## 새세대들의 나이

박창규

길가는 그 어느 아이들도  
아이들이라  
선뜻 부르지 못하겠구나  
애들의 손잡고 걸을 때도  
마치 그 작은 손이  
나를 이끌어가는듯싶구나

그 애는 몇살이더냐  
어제는 능란하고 활달한 필체  
대담한 서예솜씨로  
한생에 쌓은 지혜  
그렇게도 무색케 한 소녀는

아세아와 구라파의 무대에  
청고운 노래  
아름다운 톨동으로 춤을 펼쳐  
머리 흰 예술가들의 도고한 심장을  
밤새도록 흔들어놓은 아이는  
내 막내딸같은 나이 아니냐

아, 너희들은

한 둘 아이들만 아니었다  
자신만만히 침혈을 잡던  
그 애는 또 몇살이었고

섬세한 화필  
살아 움직이는듯한 그림으로  
사람들의 넋을 쥐고  
그들의 발걸음 오래도록 붙잡은것은  
아직은 엄마품에 재롱부릴  
그런 나이 아닌가

아이들아  
지혜동이, 재능동이들아  
당의 품속에서 태어난 너희들은  
너희들은 그렇게도 일찍  
나이를 뛰어넘어사는구나

아 행복한 너희들의 세월속에  
세기를 비약하며  
조국이 젊어지는구나



## 내 노래의 작은 소반엔 외 1편

황성하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고향이 있어  
자기의 첫 노래는  
고향의 노래로부터 시작되더라

나의 벗들이  
자기 고향의 정다운 노래를  
가슴겨이 저마다 엮을 때  
내 선뜻 노래할수 없었더라  
평양, 나의 고향을 두고...

불타는 이른 노을속에  
승엄히 솟아오르는 기념비들  
번쩍이는 수천개의 창문들  
사방으로 뻗어간 넓은 거리  
평양이여,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내 노래를 뻗수 있으랴

광활한 미래를 부르며 끝없이 태어나는  
숨결들, 속삭임들, 꽃물결들...  
그 벽하고 환희로운 모든것들을  
내 노래의 작은 소반엔  
미처 담을수가 없었더라

내 마음에 지니고도 노래 못한  
평양, 나의 고향이여  
그것은 크나큰 해빛이더라  
그것은 찬연한 별빛이더라  
그것은 내 고향만으로는 노래하지 못할  
크고 빛나고 무한대한 그런 우주,

고향이여, 평양이여  
내 뜨겁게 느껴안노라  
그대는 분에 넘친 내 고향뿐이 아닌  
이 땅의 수많은 고향과 고향을 낳은  
참으로 거대한 어머니땅이더라

## 숲에 들렀다 가시라!

숲에 들렀다 가시라  
숲이 울창하다 에돌지 말고  
술렁이는 수림과 벗해보시라  
무성한 숲의 사연 알고가시라

산계곡을 누비며 흐르는 봄물  
가락을 다루어 우짖는 새소리  
그대는 거기에만 취해 걷지 마시라  
새움트는 숲속 가득히 퍼져가는  
청아한 웃음소리 들어보시라

그 웃음소리 따라걸으면  
숲속의 나무심는 처녀들 보게 되리  
애어린 나무모 살들히 키워  
거창한 산들에 퍼보내는  
봄벌에 불익은 조림공처녀들을

그대는 알게 되리

줄을 선 이빨나무 키숫구는 오리나무...  
이 모두 절로 자란것 아님을  
이른봄 씨앗묻고 싹틔우고  
따뜻한 품으로 차려운 마음들이  
조국의 산마다에 푸르름을 돋굽을

숲에 들렀다 가시라  
숲이 울창하다 에돌지 말고  
술렁이는 수림과 벗해보시라  
잠시라도 그대 들려가실 때  
만일 거기에 그 처녀들 없어도

숲은 말해주리 그대에게 말해주리  
반짝이는 잎새들 향기뿜으며  
머리우에 드리운 가지 흔들며  
무성한 숲에도 어머니가 있어  
밀림의 어머니는 조림공처녀들이라고!

## 극도의 절망속에서 허우적이는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문학

장영

파쇼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남녘의 거리들에 자주와 민주를 부르짖는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대중의 피타는 웨침소리가 련일 메아리치고있다. 군사파쇼도당의 그 어떤 서슬푸른 총칼도, 감옥과 교수대도 두려워하지 않는 대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 민족통일의 성업이 이루어지기전에는 투쟁의 기발을 내리우지 않을 기세로 파쇼의 무리들과 맞서 과감한 항전을 계속하고있다.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지난 40여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오늘처럼 그렇게 각계각층의 애국민중이 투쟁의 파격을 똑바로 알고 반미구국투쟁과 반파쇼민주항전을 대중적으로 끊임없이 벌려나간 그런 때는 일찌기 없었다.

이것은 4.19 봉기와 6.3 투쟁, 광주시민항쟁을 거치는 과정에 남조선인민들이 점차 각성되어 력사의 주체로서의 자기들의 시대적사명감을 자각하기 시작하였으며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길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자주와 민주를 갈망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인 진출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군사파쇼통치체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으며 매국역적들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속에서 떨게 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문학이 극도의 절망에 빠져 허우적이고있는것은 멸망에 직면한 놈들의 이러한 위기의식의 반영이며 인민대중의 애국적진출을 가로막기 위한 수단으로 시문학을 리용하려는 놈들의 필사적발악의 한 표현으로 된다.

그러므로 남조선시문학의 부르조아적반동성을 예리하게 해부하고 그것을 준렬히 규탄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의 신성한 민족적의무이며 주체의 혁명문학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임무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사회의 낡은 문화와 자본주의적반동문화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의 합법적요구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 25 권, 278 페이지)

우리는 남조선시문학분야에 나타나고있는 반동적사상조류가 어떤 형태들인가를 해부함으로써 남녘땅에서 민중지향의 시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반동시문학의 해독적본질을 견결히 폭로규탄하여야 하며 그 사소한 요소도 우리 내부에 침투되지 못하도록 혁명적경각성을 고도로 높여야 한다.

오늘 남조선의 부르조아시문학분야에서 가장 주도적인 현상은 예술지상주의에 기초하고있는 무의미한 《순수 시》의 여전한 범람이다.

원래 《순수 문학》 혹은 《순수 시》라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1920 년대에 발생하였다.

당시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자 진보적작가들도 거기에 합세하여 계급문학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이 계급문학은 문학이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강력한 무기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문학이다. 이렇게 되자 여기에 놀란 민족반역자들과 부르조아반동작가들은 문학의 계급성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문학은 어디까지나 순수 해야 하며 그것은 그것자체으로써 목적을 다하고있을뿐 그밖에 딴 어떠한 기능도 지니지 않는다.》고 떠들었다. 이것이 이른바 《순수 문학》의 구호였다.

이 구호가 문학으로 하여금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고무하는 강력한 무기로 되지 못하도록 하자는 계급적원썹들의 목적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물에 불과하다는것을 구태여 설명할 필요는 없을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순수 문학》의 제창자들은 계급문학의 옹호자들로부터 응당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해방이후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인들은 또다시 《순수 문학》의 구호를 들고 오늘에 이르는 40 여년간 《문학의 순수성》을 계속 떠들고있다.

《순수 시》 창작의 대표자라고 자처하는 남조선의 단동시인 김춘수는 시라는것은 《말의 긴장된 장난》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말의 긴장된 장난〉 말고 우리에게 또 남아있는 행위가 있을까?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 눈에는 그것은 월하의 감상으로 밖에는 비치지 않는다.》고 껌쳤다.

그러면서 그는 미리 주어진 모든 관념, 이데올로기, 가치 등을 언어에서 제거하면 허무가 남고 그 허무를 글로 적어놓으면 그것이 곧 무의미시인바 이 무의미시아말로 《순수 시》의 표본이라고 하면서 시인이 이런 《순수 시》를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시에서 일체 사회적요소를 축출하여야 한다고 떠들었다.

하지만 《순수시》를 그토록 주장하는 그가 쓴 시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슬픔과 울음, 눈물만이 차넘치고있다.

바람은 울면서 지금  
서귀포의 남쪽을 불고있다  
서귀포의 남쪽  
안해가 두고 간 바다,  
게 한마리 눈물흘리며  
마구간에서 난 두 아이를 달래고있다

이것은 그가 《무의미시론》을 발표한 직후인 1975년 3월에 쓴 시의 한도막이다.

보는바와 같이 이 글에는 두 아이를 낳고 죽은 안해를 두고 슬퍼하는 무기력한 인간의 정신적 허탈감이 강조되고있다.

비애와 절망, 이것은 결코 순수한것이 아니다. 예수와 영탄, 절망과 죽음의 세계에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시는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의식을 가지고 남조선현실을 똑바로 들여다볼수 없게 하며 부조리한 사회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설 대신 주어진 생활에 순종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타락할것을 요구하는 반동적사상독소를 진하게 풍기는 마약인것이다.

그가 이른바 《순수한것》을 그렸다고 하는 《시》를 놓고 보더라도 그것은 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허무맹랑한것들이다.

말더듬이처럼  
말과 말사이엔  
가로놓인 하늘, 머나먼 하늘  
낮에 뜬 달,  
언제 보았던가  
여름에 뜨는  
다른 또 한번의 여름에  
그 상수리나무 넓은 그늘

이 《시》는 그가 2년전에 발표한 시 《날지 않는 새》의 전문이다. 시의 제목과 내용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뿐아니라 시행과 시어들의 의미적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도대체 어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글자들이 배열을 놓고 어떻게 시라고 할수 있겠는가. 이런 글장난을 가지고 《시》라고 하는것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정서적으로 승화시킨 정수라고 할수 있는 시와 그것을 창작하는 시인들에 대한 모독행위가 아닐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반동시단에서 《순수 시》가 축출되지 않고있는것은 그것이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를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외면하고 초현실적인 무의식세계를 애매몽롱하게 표현하면서 사람들을 비애와 절망, 허탈 상태로 이끌어가는 마약으로 리용될수 있기때문인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난해 9월에 있는 평양국제문학토론회와 아, 아작가협회 집행리사회회의 참가자들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에서 강조하신바와 같이 문학이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면 작가들이 생활이 있고 투쟁이 있는 현실에 발을 붙여야 하며 인민들이 요구하고 시대가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들에 주목을 돌려야 한다.

인민이 요구하고 시대가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를 반영하는것은 시문학의 시대적사명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이 요구가 옳게 실현되자면 우선 시인들이 남조선현실에 낮을 돌려야 한다.

그러나 외세와 독재의 사환군으로 전락된 남조선반동시인들은 반미반파쇼민주화투쟁이 거세하게 일어나고있는 남조선현실을 외면하고 의연히 상아탑속에 들어앉아 잠꼬대와 같은 《순수 시》만을 넘볼처럼 외우고있는것이다.

물론 《순수 시》에 매달리고있는 시인들가운데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언론탄압책동으로 말미암아 시대의 참다운 목소리를 시작품들에 담지 못하고 어쨌든 시를 써야 하겠으니까 《순수 시》를 창작하는 시인들도 있을수 있겠으나 그것 역시 시대의 기수로서의 시인의 본분을 망각한 현실도피적인 태도가 아닐수 없다. 그것보다 오늘 남조선의 《순수 시》제창자들의 대부분은 현대시문학의 시대적사명감을 외면하고 군사독재자들에게 아부하면서 개인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이며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려는 반동적사상공세의 전조선에 선 악질시정배들이다.

따라서 《순수 시》의 허위성과 반동성을 간파한 남조선의 량심적인 시인들속에서 이런 시를 공격하는 기운이 높아가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다.

이렇게 되자 남조선의 반동시인들속에서는 그

외피를 달리 쓰고 둔갑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한 문학잡지에 발표된 글을 보면 반동시인 리아무개는 《참여니 순수니 가르는데는 잠꼬대와 같다.》고 하면서 《시는 시일뿐입니다.… 현실도피라느니 외면이라느니 하는 용어는 쓰는 쪽에서는 매우 정확한것 같지만, 예술의 한 분야인 시는 시로서 지녀야 할 위치와 본질이 있을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의 《삶속에 엄숙함》이 있는가 하면 《놀이적인 쾌감도 있》는것만큼 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쓸수 있다는것이다.

얼핏 보면 절충적인 공정성을 보여주려고 한것 같지만 이 주장의 본질은 《순수 시》에 대한 공격을 그만두어달라는 애절인것이다. 그것은 그가 주장한 시의 《위치와 본질》이라는것이 사실에 있어서 시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시대적사명감을 자각하도록 그들을 미학정서적으로 이끌어주는 무기로서가 아니라 한갓 오락의 도구로 되는데 있다고 한데서도 잘 알수 있다.

물론 생활이 다양한것만큼 시가 다양하여야 한다는것은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슬팻힌 풀잎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읊거나 련인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읊는 경우에도 그 시적감정은 언제나 시대의 지향과 부합되는 정서로 충만되어야 한다. 만일 자연을 노래하거나 유희적인 생활을 노래할 때 거기에 인간의 미학적정서를 건전하게 이끌어주는 시대적미감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 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인들은 시문학이 인민대중을 자주와 민주의 광장으로 부르는 투쟁의 기치가 되는것을 가로막고 사람들을 무저항과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도구로 되게 하려는 목적밑에 여전히 《순수 시》만이 《시문학의 본연》으로 된다고 떠들면서 저들의 반동적목적을 은폐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남조선반동시인들의 이러한 책동은 시를 웬만한 사람들이 보아서는 무엇을 말하자고 한것인지 알수 없게 만들어내는데서 많이 드러나고있다.

물론 남조선에서 《난해시》는 지난 60년대말에 큰 타격을 받고 하강선을 굽기 시작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단을 살펴보면 아직도 모더니즘문학의 한 형태인 《난해시》가 여전히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을 쉽게 간파할수 있다.

20세기초에 발생한 모더니즘문학은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미래주의, 사상주의, 주지주의 등 이른바 《현대적인것》을 표방하여나선 퇴

폐적인 부르조아형식주의문예조류들을 총괄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아직까지 그 개념규정에서는 일련의 복잡성과 난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부르조아문예사조로서의 모더니즘문학은 그 어떤 조류나 류파에 의하여 표현되건 한결같이 반동성과 반인민성, 퇴폐성과 부패성으로 특징된다. 모더니즘문학은 문학예술에서의 생활의 진실한 반영과 사회적내용을 거부하고 《순수 감각》, 《순수 기교》만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순수 문학》과 상통되는 점이 적지 않다.

우리 나라에서 모더니즘문학은 서구라파반동문학의 영향하에 30 년대에 발생하여 조선인민의 민족자주의식과 반일감정을 말살하는데 적극 복무하여왔다. 그러던 모더니즘문학은 해방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을 받으면서 계통적으로 조장되다가 지난 60 년대에 이르러 그 반동성과 반인민성이 극도에 달하였다.

영국에서 발생한 주지주의시론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남조선의 모더니즘시인들은 과학기술이 발전한 우리 시대에 와서 세계는 오직 추상의 방법으로만 파악할수 있기때문에 시에서도 역시 일체 감성적요소를 추방하고 《지성적인것》만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떠들었다. 다시말하여 전자계산기에 의하여 수자가 계산되듯 시도 역시 《자동기술법》에 의하여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시문학분야에는 시고유의 본성적요구인 서정성이 거세된 시 아닌 《시》등이 범람하게 되었다.

모더니즘시인들은 또한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현상이 복잡해진 오늘에 와서 현대인들의 감정을 표현한 시는 웅당 어려워야 한다고 하면서 시를 까다롭게 쓰는것이 마치도 현대시의 특징인것처럼 주장하였다. 이런데로부터 남조선에서도 큰 물의를 불러일으킨 이른바 《난해시》가 생겨나게 되었던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해할수 없고 시를 쓴 자신도 알수 없는 그런 《난해시》가 무슨 소용에 당겠는가. 남조선의 부르조아문학가들까지도 저들의 시를 보고 《무슨 암호나 고등수학을 푸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알아낼수가 없다.》, 《오늘의 시들은 난해성을 훈장처럼 달고있다.》고 실토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지난 60 년대중엽부터 남조선의 사회계는 물론 문단에서도 《난해시》를 배격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던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나 하였다.

그러나 최근인 남조선시단을 살펴볼것 같으면 60 년대와 같이 그렇게 《자동기술법》으로 글자

를 가지고 장난질을 한 엉터리 《시》는 어느 정도 드물어졌다고 할수 있겠으나 여전히 이해할수 없는 시들이 범람하고있다.

산을 내려오는동안 줄곧  
나를 따라오던 그  
죽은 잠자리,  
세상에 들어서자 금방

안보이는  
그 잠자리  
보이지 않는  
세상

이 시는 최근년간 창작활동이 활발하다고 하는 증진에 속하는 반동시인 정현종의 시 《보이지 않는 세상》의 한 부분이다.

건전한 사고력을 가진 우리로서는 이 시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자고 한것인지 도저히 가늠할수 없다.

그래도 연세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서울예술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다는 그로서 우리 나라 글의 문법을 모르지는 않을터인즉 어째서 의미적련계도 되지 않는 이런 글을 《시》라고 하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나》가 산에서 내려오는동안 죽은 잠자리가 나를 따라온다는것도 리치에 맞지 않거나 줄곧 나를 따라오던 그 죽은 잠자리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는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것 자체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일것이겠는데 산에서 내려와 세상에 들어선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세상에 들어선 《나》에게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는것은 또 무슨 뜻인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글을 《시》라고 발표하는 행위의 가소로움을 어떻게 보아야 할것인가. 아마도 시인은 선형적으로 지닌 그 어떤 3 념의 세계에서 느껴지는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고 할수 있겠으나 언어의 상징적기능에 초점을 맞추면서 글자를 가지고 장난질을 한 그것이 객관세계와 그 반영인 인간의 사유활동에 대한 논리를 무시한것일진대 과연 언어의 사회적기능을 파괴한 이런 행위를 어찌 창작활동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아무리 읽고 따져보아도 무엇을 말하자고 한것인지 알수 없는 이런 《난해시》들이 아직도 남조선문단에 범람하고있는것은 남조선시문학의 반인민성을 고발하여 줌과 동시에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인들이 인간의 건전한 사유기능과 미감을 상실한 정신병자들로서 정신적으로 얼마나 공허한 상태에서 방황

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스스로 폭로하여주고있다.

남조선의 반동시인들은 저들의 정신적공허성을 가리우기 위한 연막으로 시에 극도의 난해성을 부여하여 마치도 시라는것은 그 누구도 쉽게 알수 없는것으로 되여야 진미가 있는듯이 위장하는 파렴치한 위선행위를 서슴지 않고있을뿐만아니라 시문학을 통하여 저들의 부르조아인생관을 로골적으로 설교하는 해독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남조선의 부르조아시문학이 나타내고있는 반동적사상독소에서 크게 주목되는것은 시가 사람들로 하여금 삶에 대한 허무감을 가지고 비애와 절망에 몸부림치다가 죽음의 길을 택하도록 부추기는 실존주의철학의 선전수단으로 리용되고있는 점이다.

물론 남조선에서 실존주의시문학은 60년대말을 전후하여 이미 그것이 문학조류로서는 그 존재를 끝마치였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반동시인들의 시작품들에는 아직도 여전히 실존주의적 미학관이 그대로 작용하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20 세기초 서구라파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발생된 실존주의는 자본주의사회제도의 쇠퇴몰락과정을 체험한 부르조아인테리들의 불안과 공포의 기분을 반영한 주관적관념론의 한 조류로서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남조선에 전파되었다.

멸망에 직면한 제국주의자들과 착취계급의 퇴폐적인 사상감정과 기분을 반영하고있는 실존주의는 무엇보다도 극단한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에 대한 설교에서 그 반동적본질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있다.

실존주의자들은 한결같이 부조리한 사회에서 살고있는 인간이 본래의 실존으로 되돌아갈수 없기때문에 고독과 불안, 허무와 절망, 삶에 대한 혐오와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떠는것은 불가피하다고 설교한다. 실존주의를 《불안의 철학》, 《죽음의 철학》이라고 하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최근 남조선에서 사회의 민주화운동이 거세차게 일어나고 거기에 반미자주화의 기운까지 겹쳐지게 되자 이에 질겁한 군사통치배들과 매국역적들은 자기들의 독재정치가 오래 가지 못하리라는것을 느끼고 극도의 불안과 공포속에서 떨고있다.

오늘 남조선시문학에 나타나고있는 실존주의는 민족반역자들의 이런 불안과 절망의식을 반영한 것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데서 적지 않은 해독적작용을 놓고있다.

남조선의 신 아무개라는 반동시인이 쓴 시 《절

망의 노래》는 실존주의시문학의 반동성을 보여주는 실례중의 하나이다.

외로운 밤에는  
주어온 돌 하나를  
가상처럼 기댄다  
어둠속에서  
어둠으로 텅구는 저 앞산의  
잡석  
뒤산의 대잎바람을 감고  
이 밤  
마른 가슴에 물려오느니

주어온 돌 하나 바라보며  
밤을 지낸다

극도의 고독과 불안으로 하여 온밤 잠들지 못하는 인간의 절망적인 기분을 읊은 시다.

창밖에서는 열혈청년들이 래일의 항전을 준비하느라고 밤을 밝히고있는데 시인은 어찌하여 그토록 주어온 돌 하나를 바라보며 외로운 밤을 지새우고있는것인가. 어찌하여 온밤 마른 가슴에 잡생각들을 몰아오면서 그토록 절망에 빠져있는가 말이다.

이 반동시인은 다른 시 《허망의 노래》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우리들의 기쁨은  
나의 죽음이다  
패락도 나의 죽음이다

보는바와 같이 불안으로 가득찬 현실에서는 오직 죽음만이 인간에게 기쁨과 패락을 안겨준다고 떠들고있다. 이것이야말로 불안과 절망에서 헤어나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죽음뿐이라는 실존주의철학을 그대로 되풀이한 반동적사상독소의 설교가 아니고 무엇인가.

남조선의 반동시인들은 이렇게 절망의 세계를 허우적거리다가 죽는것이 인간에게 기쁨과 패락을 안겨주는것이기때문에 그 죽음을 앓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살인과 죽음을 불러들이라고까지 력설하고있다.

누구든 내게로 와다오  
실패줄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헤엄쳐다니는  
세균처럼  
...  
와서 내 옷을 벗겨다오  
그리고는 내 목을 힘껏 죄어다오

목, 목뼈 꺾이는 소리가 날 때까지  
손목이 부러져나가도록 힘껏 죄어다오

이 시는 서원동이라는 반동시인의 시 《누구든 내게로 와다오》의 한절이다.

여기서 보는바와 같이 이 반동시인은 죽음을 찾아오기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남의 힘을 빌어서라도 빨리 죽으라고 선동하고있다.

너무나도 잔인한 살인이다! 누구든 자기에게 와서 목뼈가 꺾어질 때까지 목을 힘껏 죄여달라고 애걸하는 시인의 이 히스테리같은 울부짖음은 마치도 창살에 찢겨 숨넘어가는 야수의 마지막비명을 방불케 한다.

이것은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문학이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감을 외면하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며 동족을 무참히 학살하는 군사파쑸형리들의 너절한 시너로 얼마나 깊이 굴러떨어져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로 된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오늘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로서 그 하수인들의 군사파쑸통치로 말미암아 인민대중의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가 참혹하게 질식당하고있다. 외로운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이 높이 들었던 민주주의 기발은 매년 군사파쑸도당에 의하여 도난당하고 민주주의 광장은 붉은 피로 얼룩지고있다. 게다가 군사독재자들의 반인민적인 재벌육성정책으로 말미암아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이 거듭되어 남조선인구의 0.3 프로밖에 안되는 특권층들에게 사회적부의 80.5 프로가 집중되고있는 반면에 절대다수의 빈민층들에게는 최저생계비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그들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있다. 남조선인구의 4 분의 1 을 차지하는 증산층들도 불안정한 생활에 놀려 부단히 몰락되는 과정에 있다.

남조선의 이런 모순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체제와 전두환일당의 군사파쑸통치를 종식시키지 않는 한 결코 해결될수 없다.

따라서 오늘 남조선의 시문학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제는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반미자주화, 반파쑸민주화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고무하는 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옹계 수행하는것이다.

하지만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문학이 이러한 시대적사명을 외면하고 사람들을 절망과 죽음에 이끌어가는 염세주의와 패배주의를 퍼뜨리는데 복무하고있는것은 바로 그것이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삶에 대한 의욕과 광명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군사파쑸독재정치를 순순히 받아들이도록 하자는

홍익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남조선의 반동시문학은 이처럼 사람들을 비애와 실망,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사상독소를 강하게 풍기는 한편 사회에 살고있는 인간의 힘으로써는 불안과 공포, 절망과 죽음을 피할수 없는것이기때문에 사람이 누릴수 있는 최선의 자유는 오직 순간의 향락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을 부화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책동하고있다.

남조선반동시문학이 사람들을 부화타락시키는 데 적극 복무하는 수단으로 되고있는것은 그것이 프로이트주의를 사상리론적기초로 삼고있는것과도 관련된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오지리의 정신병학자인 프로이트에 의하여 제창된 관념론적심리학설인 정신분석학은 자본주의사회의 문학령역에 널리 도입되어 부르조아문학의 색정주의적성격을 강화하는 주요한 사상적바탕으로 되고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의 심리적영향을 받고있는데 이 《무의식》의 내용을 이루는것은 성적충동이며 이 성적충동이야말로 인간의 심리와 모든 활동의 《원동력》으로 된다는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활동과 사회현상을 이 《무의식》의 작용에 귀착시킴으로써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의 결정적역할을 부인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제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병들게 하고 그들을 부화타락하게 하는데서 가장 악독한 작용을 하고 있는 프로이트주의의 이러한 반동성과 부패성을 포착하고 그것을 남조선에 널리 퍼뜨렸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프로이트주의가 사람들을 부화타락의 길로 이끄는 중요한 아편으로 되고있으며 그것이 시문학분야에 도입되어 반동시문학이 사회에 패륜과 패덕을 퍼뜨리는 안내자의 역할을 놀게 하고있다.

리 아무개라는 반동시인은 시 《멜로드라마》에서 무위도식하는 난봉군이 부모처자도 모르게 돈을 몰쓰듯하면서 젊은 녀자를 자주 찾아다니며 부화방탕한짓을 하는 방종한 생활을 찬미하였는가 하면 시 《깊고 푸른 밤》에서는 마누라와 자식을 둔 《그레고리 백》이라는 한 바보녀석이 남의 녀자를 건드린것으로 하여 두려움에 도망다니다가 자기를 쫓는자를 권총으로 쏘아 쓰러뜨리는 내용을 마치도 자랑처럼 시화하였다.

그런가 하면 김 아무개라는 반동시인은 시 《아빠트 생전》에서 해가 지고 푸르스름한 어둠이 찾아들면 남녀들이 서로 눈과 눈썹, 눈가장자리를 더듬으며 붙어돌아가는 추잡한 장면을 시행에 올리면서 바로 그런 성행위가 아파트에서 살고있는

인간들의 생존방식이라고 뇌까리고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상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개조하는 고상한 존재들인것이 아니라 다만 성적인 충동과 그 만족만을 누리는 동물에 불과하다는것이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고상한 가치를 무시하고 인간을 다만 성적욕망을 충족시키는 동물들로만 보는 견해야말로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야수적관점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의 반동시인들은 이처럼 사람들을 색정적인 동물세계에 끌고가기 위하여 성본능에 대한 이른바 《사회적, 도덕적 억압》을 없애고 성적무정부상태를 허용할것을 요구하면서 바로 그런 요구를 실현하는데 방해로 되는 룰리와 도덕에 도전하여나서고있다.

남조선의 반동시인 김시종이라는자는 시 《호질문》에서 동리 과부와 부화한 행위를 한 《북박선생》을 꾸짖은 실학사상가 연암 박지원을 절고들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바람난 과부와  
련애 좀 했다고  
나를 위선자라,  
연암은 꼬집었지  
...  
연암이여!  
잘살아도 백년을 못사는  
짧은 인생을  
시체처럼 딱딱하게 살건 없다네

시인은 과부집을 찾아다니 《북박선생》이 얼마나 위선자인가 하는것을 폭로한 연암을 공격하면서 위선자의 전형인 《북박선생》이 마치도 인간성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인것처럼 그의 패덕과 방종을 정당화하려 하고있다.

물론 우리는 봉건룰리도덕을 찬미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사회의 풍기를 문란시키고 사람들을 정신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패륜, 패덕 행위를 용납할수는 없다. 그러나 시인은 봉건유교도덕을 반대한다는 미명아래 우리 인민의 고상한 룰리도덕적전통을 거부하고 패륜, 패덕을 찬양함으로써 사람들을 부화타락의 길로 이끌려 하고있다.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존엄과 가치를 깨닫고 자주성과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며 시대와 민족이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 해결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고무하는데 참담게 이바지하는것을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고있는 시문학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의 반동시문학은 이처럼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외면하고 사람들을 동물들의 저속한 성적취미에로 이끌어가는 반동적사상독소를 퍼뜨리는데 적극 복무하고있을뿐아니라 북과 남사이의 신뢰와 단합을 이룩함으로써 민족통일의 전제를 마련하여야 할 현시기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미제와 군사깡패들의 《반공》선전의 확성기노릇을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순수 문학》의 대표자로 자처하던 남조선의 반동시인 서정주라는자는 한때 《문학의 자율성》을 부르짖던 그 가면마저 벗어던지고 최근에는 반공광신자로서의 갖은 추태를 다 부리고있다.

이자는 반미자주화의 기운이 드높아가는 최근에 미제침략군을 《은인》으로 구가하는 시작품들을 발표하여 남녘겨레들의 반미감정을 녹차혀보려고 피하고있는가 하면 공화국북반부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모독하는 반공시들도 꺼리낌없이 써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남조선의 극악한 반동시인인 윤석호라는자는 군사분계선지역 야월산의 백마고지에 기여올라가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넘겨다보면서 애비자식들을 북에 두고 도망쳐가던 지난날의 《아픔》을 들춰내면서 《원한과 통곡이 서려있는》 북반부에 《자유의 종》이 울려퍼지라고 악담을 늘어놓고있다.

우리는 이자의 이런 시를 통해서도 민주진국시에 남쪽으로 도망간 계급적원수들이 여전히 입에 피를 물고 빼앗긴 옛지위를 되찾아보려고 발악하고있다는것을 보게 되며 따라서 혁명적경각성을 조금도 늦출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남조선의 부르조아시문학은 이상과 같이 시대와 민족을 등지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파쑸민주항전을 가로막아보려고 발악함으로써 그 반동성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멸의 위기에 처한 퇴폐적인 반동시문학의 마지막발악에 불과하다.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문학이 그 아무리 남녘땅에 퇴폐풍조를 퍼뜨려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아보려고 발악한다 하더라도 주체의 기치따라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의 길에 펼쳐나서는 남녘겨레들의 전진운동을 멈춰세우지는 못할것이다.

지금 남조선문학계에서는 인민대중의 드높아가는 자주의식을 반영한 새로운 진보적문학운동이 점차 활발해지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문학계를 뒤흔들고있는 《민중문학》운동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민중문학》은 인민대중의 참상과 고뇌를 사회앞에 고발하며 그들의 소원 즉 《민중해방》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활동을 벌려나가는것을 창작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이 《민중문학》의 창작활동에는 량심적인 일부 기성문인들과 함께 각성된 새세대의 문인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대중이 광범히 참가하고있다. 그들은 반동작가들이 독점하고있는 기성문예지와는 관계없이 여러 지역들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새로운 민중문학지 즉 무크지(《무크지》라는것은 잡지와 단행본의 성격을 동시에 갖추고있는 새로운 형식의 책을 말한다.) 등을 만들어내면서 창작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남조선에서의 《민중문학》의 급속한 발전은 남조선문학을 저들만이 좌지우지할수 있다고 자처하던 부르조아반동작가들의 오만한 태도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남조선에서 《민중문학》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인민대중은 자기들의 의사와 념원을 반영한 민중문학작품들을 즐겨읽으면서 부르조아반동문학을 배척하는 운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이렇게 되자 인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고있는 부르조아반동문학은 극도의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사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문학은 그 반동성과 퇴폐성으로 하여 력사의 오물통에 내던져질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며 남녘땅에는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한 인민대중의 애국적투쟁을 고무하는 참다운 문학만이 꽃피게 될것이다.

주체의 혁명문학을 건설하는 우리 작가들은 남조선의 진보적작가들의 정의로운 창작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반동문학과 그 조작자들의 죄상을 날날이 폭로단죄함으로써 조국과 민족,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여나갈것이다.